

필리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5
외교관계 / 7
주한주재 국기관 / 8
한국과의 주요이슈 / 8

II. 경제

경제정책 / 9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0
주요 산업 동향 / 11
정보조사 자료원 / 31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통계 / 32
무역통계 / 35
투자통계 / 42

IV. 출장가이드

기후 / 45
시차.근무시간 / 46
도량형 / 46
출입국.비자 / 47
환율.환전 / 49
물가정보 / 50
교통.통신 / 52
호텔.식당 / 55
관공서 관행 / 58
공휴일 / 58
여행시 유의사항 / 59
유용한 연락처 / 61
관광명소 / 67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68
수입규제제도 / 69
관세제도 / 71
주요인증제도 / 72
지적재산권 / 73
소비자보호제도 / 77
교역관련 국가기관 / 78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79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82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82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83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84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85
운송 / 85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87
유형별 분쟁사례 / 88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89

우리기업 투자동향 / 90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92

투자인센티브 / 101

타당성조사 / 102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103

입지선정 / 105

공장 설립 / 108

투자관련 정부기관 / 111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13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14

조세제도 / 116

외환관리 / 117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19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통칭 Philippines, 공식국명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타갈로그어 국명: Republika ng Pilipinas) (현지에서는 Filippine 으로도 부름)
위 치	동남아시아, 북위 4도23분-21도25분, 동경 116도-127도
면 적	300,800 km ² (한반도 1.3배,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
기 후	고온다습 아열대성 기후,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대별
수 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서울시와 면적, 인구 비슷)
인 구	8천 5백 2십만 명(2005년 추정) (National Capital Region : 1천만 명 이상)
주요도시	Manila City(1.6백만명) (면적: 종로구보다 약간 넓음), Quezon City(2.2백만 명)
민족(인종)	말레이계가 주종 네그리토/인도네시아/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간 혼혈
언 어	공용어(타갈로그어), 상용어(영어)
종 교	로만 카톨릭 82.92%, 프로테스탄트 5.43%, 이슬람 5.7%, 기타 등
건국(독립)일	1898. 6. 12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Ms. Gloria M. Arroyo (14대, 재임) - 취임일: 2000.1.20 - 초임: 2000.1.20~2004.5.29(전임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잔여임기 승계) - 재임: 2004.6.30~2010.6.29 (정식 임기 6년)
입 법 부	양원제 (현재 상원 24명, 하원 209명)
정 당	여당 국민회의당 (K-4 Coalition), 자유당(LP), 진보운동당(PROMDI) 등

나. 경제지표 (2005년 말 기준)

G D P	\$984억(참고: 2004년 US\$861억)
GDP성장률	5.0% (참고: 2004년 6.2%)
물가상승률	7.6% (참고: 2004년 6.0%)
실 업 률	8.1% (2006년 1/4분기 기준)
화폐단위	페소(PES0)
환 율	US\$ 1 = 55.09페소, <참고: 51.31페소(2006. 8. 29. 현재 기준)>
외 채	US\$ 607억 (잠정치)
연말 외환보유고	US\$ 159억
산업구조(GDP비중)	1차 산업(14%), 2차 산업(32%), 3차 산업(54%)
교역규모	수출 US\$402억, 수입 US\$477억
주요 교역품	수출: 반도체 등 전자부품/제품, 의류, 동/니켈, 코코넛/ 열대과일/참치 등 수입: 반도체 등 전자부품/제품, 기계류, 유류/석유화학제품, 낙농제품 등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06. 7 (환율은 당 관 자체집계 기준)

다. 한-필리핀 관계

체결협정	자원·에너지협력협정('05), I.T.협력협정('05) 등
교역규모 (2006년6월기준)	US\$ 1,833백만 (대 필리핀 수출) US\$ 1,077백만 (대 필리핀 수입)
교 역 품	전자부품, 직물, 철강제품 (우리나라 수출) 전자부품, 농산물, 비철금속 (우리나라 수입)
투자교류	대필 투자: US\$ 187.67백만 실제투자(2006년 3월 누계, BSP통계 기준) 대한 투자: US\$ 47,130천 투자신고(2006년 6월 누계, 산업자원부 통계)
교 민	영주권소지자 1,500명 포함 장기체류자 37,000명 추정 단기체류자 포함 시 50,000 - 60,000 명 내외
관 광 객 (2005년 기준)	필리핀 방문 한국인 약 48만 명 (미국-52만 명-에 이어 2위) 한국 방문 필리핀인 약 5만 명

자료원: KOTIS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행정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행정부의장이자 국가수반으로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6년 임기로 연임 불가능. 대통령 유고 시는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승계하며 이어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까지만 대행.

대통령의 피선 자격은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최소 40세 이상, 선거직전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함.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 권한을 승계하며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나 1차 연임 가능. 부통령의 유고 시 대통령이 상. 하원 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상. 하원 의원 과반수의 비준 필요). 피선거격은 대통령과 동일.

나. 사법부

대법원(Supreme Court)은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에 있는 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선고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하며 모든 결정은 대법관 10명 이상의 동 의가 필요함.

고등법원(Court of Appeals)은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을 수도에 두고 있으며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 법원의 판결 심사 등의 기능 담당.

지방법원은 지역법원(Trial Court) 8개, 수도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17개,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29개,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19개, 시 순회법원(Circuit Trial Court) 10개로 구성.

특수법원으로는 회교재판소(Sharia District Court) 3개, 회교순회재판소(Sharia Circuit Court) 11개,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 1개,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1개가 있음.

다. 입법부

필리핀의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 24석, 하원 250석으로 구성.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된 24명으로 구성되며 매3년 마다 12명씩 개선. 임기는 6년이며 1차 중임만이 허용됨. 상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포고 동의, 조약 및 사면의 동의 등 권한을 행사.

하원은 소선거구제에 입각하여 1구 1인 선출(1선거구는 인구 25만명 기준)하며 대통령이 직능대표로 50명까지 임명 가능하다. 임기는 3년이며 2차 중임까지 허용됨. 하원의 권한으로는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특정 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 소추 제기권이 있음.

라. 군대

육군 6만 1천명, 해군 2만 2천명, 공군 1만 5천명으로, 총 9만 8천명의 병력

마. 선거제도

선출직의 임기는 대통령 6년, 상원의원 6년(매 3년마다 절반을 선출), 하원의원 3년, 지방 정부 및 지방의회의장 등 지방 선출직은 3년. 매 임기 만료 시 선거가 실시됨.

바. 정당제도 및 현황

필리핀의 정당제도는 다당제로서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103개에 달함. 주요 정당으로는 다수당이며 여당인 K-4 Coalition와 KBL 및 군소정당 National People's Coalition 등이 있음.

사. 주요 정당

- K-4 Coalition (Lakas Christian Muslim Democrats/ Liberal Party/ People's Reform Party)
 - Gloria Macapagal Arroyo 현직 대통령이 명예의장이자 당수인 집권당
 - 법률고문은 Alberto C. Agra
- Liberal Party (LP, 자유당)
 - 당수는 Franklin M. Drilon
 - 의장은 Jose L. Atienza, Jr.
 - 사무총장은 Benigno Simeon Aquino III
- Lakas Christian Muslim Democrats (LAKAS-CMD)
 - 당수는 Raul S. Manglapus

- 의장은 Fidel V. Ramos (전 필리핀 대통령)
- 사무총장은 Jose C. De Venecia, Jr
- Kilusang Bagong Lipunan (KBL)
 - 당수는 Ferdinand R. Marcos II
 - 의장은 Vicente D. Millora
- Nacionalista Party
 - 사무총장은 Paul Gonzales
- Bayan Muna
 - 의장은 Rafael L. Coscolluela
 - 부의장은 Crispin Beltran
 - 사무총장은 Nathaniel Santiago
- Anakpawis
 - 당수는 Rafael Mariano
 - 사무총장은 Cherry Clemente

아. 군소 정당

-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 사무총장은 Frisco F. San Juan
 - 사무총장 대리는 Ramon B. Cardenas
- Partido Magdalo
 - 의장은 Renato P. Dragon
 - 사무총장은 Juanito Victor C. Remulla
- People' s Reform Party
 - 당수는 Miriam Defensor Santiago
- Lapiang Manggagawa (LM) "Workers Party"
 - 당수 겸 의장은 Jose Malvar Villegas, Jr.
 - 사무총장은 Frank Pasion
- Laban Ng Demokratikong Pilipino (LDP)
 - 의장은 Edgardo Angara
 - 사무총장은 Agapito Aquino
- Partido Demokrtiko Pilipino Lakas Ng Bayan
 - 당수는 Jejomar Binay
 - 의장은 Aquilino Pimentel, Jr.
 - 사무총장은 Enrico G. Dayanghirang
- Bicol Saro
 - 당수는 Corazon Imperial

3. 주요인사

가. 대통령 및 부통령

- 대통령(President)
 - Gloria Macapagal-Arroyo
- 부통령(Vice-president)
 - Noli L. De Castro

나. 내각 (Secretary of Department)

대통령이 의회 인준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명

- Executive Secretary(대통령비서실장관)
 - Eduardo R. Ermita
- Land Reform(토지개혁)
 - Nasser Pangandaman (직무대행)
- Agriculture (농수산)
 - Domingo F. Panganiban
- Budget (예산)
 - Rolando Andaya Jr.
- Defense (국방)
 - Avelino J. Cruz, Jr.
- Social Welfare (사회복지)
 - Esperanza Cabral (직무대행)
-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행정)
 - Ronaldo Puno
- Labor and Employment(노동)
 - Arturo D. Brion
- Science and Technology(과학 기술)
 - Estrella F. Alabastro
- Education (교육)
 - Jesli Lapus
- Energy (에너지)
 - Raphael Lotilla

-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환경자원)
 - Angelo T. Reyes
- Finance (재무)
 - Margarito Teves
- Foreign Affairs(외무)
 - Alberto G. Romulo
- Health (보건)
 - Francisco T. Dugue III
- Justice (법무)
 - Raul M. Gonzalez
- Tourism (관광)
 - Joseph Ace H. Durano
- Trade and Industry(무역산업)
 - Peter Favila
-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교통체신)
 - Leandro R. Mendoza
- Public Works and Highways(건설)
 - Hermogenes Ebdane Jr.
- NEDA (경제개발청)
 - Romulo L. Neri

다. 기타 주요 인사

- Presidential Spoke Person(대통령궁 대변인)
 - Ignacio R. Bunye
- Press(공보)
 - Ignacio R. Bunye
- 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이민국)
 - Alipid F. Fernandez, Jr
- Bureau of Customs(관세청)
 - Alexander Arevalo
- Bureau of Internal Revenue(국세청)
 - Jose Mario C. Bunag

- GSIS(공무원보험관리공단)
 - Winston F. Garcia
- National Security Adviser(국가안전보장)
 - Norberto Gonzalez
- Phil. Nat'l Police(경찰청)
 - Oscar C. Calderon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국가정보원)
 - Nestor M. Mantaring
-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상공회의소)
 - Donald G. Dee
- Fed. of Filipino Chines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Francis Chua
- Philippine Ambassador to Korea(주한 필리핀 대사)
 - Susan O. Castrence

4. 외교관계

기본정책은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의 고양(군사력 약세를 외교력으로 보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교 강화, 필리핀 해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있음. 대미 관계는 아직도 필리핀 안보의 기반임.

1992.11월말 필리핀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했으나 미국과의 상호 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등을 계속 유지. 미국은 필리핀의 제 1교역 상대국이며 또한 1995년까지만 해도 대 필리핀 최대 투자국이었음. 2002년 민다나오 지역의 회교반군 문제로 이 지역에서 미군과 합동군사작전을 벌였고 미군주둔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 2003.5월 아로요 대통령의 미국방문기간 동안 양국간의 우호관계 과시.

일본은 필리핀의 제 2위 교역대상국이자 1996년 이래 최대의 투자국으로 부상함. 일본은 필리핀이 수령하는 대외원조(ODA)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외교적 노력을 투입해 2차 대전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필리핀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의 군국화와 경제적 팽창을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는 순조로움. 아로요 대통령의 방일(2001.1월 취임 이후 2002.12월 국민방문 포함 총 4회) 및 고이즈미 총리의 필리핀 방문(2002.1월) 등 긴밀한 관계 유지.

중국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제국과의 선린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정상화 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표면화되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가 필-중 관계 발전의 저해요소였음. 이 영유권 문제는 중국의 대국주의, 패권주의적 경향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 갈등을 불러 일으켜 왔으나, 2004년 9월 아로요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남사군도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친중국 분위기로 돌아섬. 2005년 3월에는 베트남,

중국과 3년 간 남사군도개발 타당성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함(서명 당사자: Philippine National Oil Co./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Vietnam Oil and Gas Corp.) 과거 1999년 11월 주룽지 총리 필리핀 방문, 2000.3월 아로요 부통령 중국 방문, 2000년 5월 에스트라다 대통령 중국 방문, 2002년 9월 이봉 전인대 상무위원장 필리핀 방문 등 고위인사 상호 방문.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 원유수입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외 노동자 60%를 고용하고 있는 관계로 필리핀은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과는 인종 차별 정책이 철폐된 후 관계를 정상화 시켰으며 아프리카에서 투쟁하는 소국가들의 독립 운동을 지지함.

구 공산권과는 50년대, 60년대에는 대미관계에 따라 친미 반공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1972년 루마니아, 유고 등 동구권과 외교관계를 맺고 1975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강화. 북한과는 2000년에 수교.

우리나라와는 1943년 3월에 외교관계 수립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유엔군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 1954년 1월에 주한 공사관 및 주 필리핀 공사관을 각각 설치했고, 1958년 2월 양국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함.

5. 주한주재국기관

□ 필리핀대사관

- 대사: Susan O. Castrence
- 주소: 34-44 Itaewon-1 dong, Yongsan-gu, Seoul
- 전화: 02) 796-7887, 7388
- 팩스: 02) 796-0827
- 근무시간: 9:00-12:00 & 13:30-16:30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ASEAN FTA 체결

2006년 8월 정식 서명된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2007년 1월 1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나. 한국산 중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 부품 등의 현지 수요가 많아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일본과의 FTA 추진에 따른 일본측의 집요한 로비 활동 영향으로, 한 때 한국산 중고자동차 부품의 현지 수입이 금지된 바 있음.

이후 현재까지 한국산 중고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 등의 제한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담당자에 따라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한국산 중고 자동차 부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2-3년 사이에 한국산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5년 전과 비교 시 40% 수준으로 격감하였음.

II. 경제

7. 경제정책

2001년 세계경제 동시 침체와 9.11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대외무역 환경이 악화된 바, GNP 대비 무역규모 비율이 85%를 상회하는 높은 대외의존 성향의 필리핀 경제를 감안하여 수출시장 유지, 확대, 수요창출을 위해 2001년부터 국내경기를 지탱해온 소비심리 진작과 정부발주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주력하며, 부족한 국내자금 보완을 위한 외국인투자 및 ODA 적극 유치. (2003년 4.5% 및 2004년 경제성장을 6.1% 달성은 국내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성장에 크게 힘입은 바 있음)

빈약한 조세징수와 정부 재정적자 누증으로 재정적자 문제가 빈번히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정적자 목표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노력. 조세수입 확대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와 수입관세율 인상 및 조세징수 노력 강화. 고질적인 탈세와 조세행정의 미비에 따른 세수 확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전산화를 추진 중이나 내부의 저항과 재정조달로 인해 성공여부는 미지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회담 실패를 계기로 그간 재검토해온 자국 수입관세 인하 정책을 급선회, 관세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로 회귀. 2003년 11월 50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상한데 이어 2004년 초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상함. 수입관세 인상과 함께, 200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세(12%, E-VAT: Extended VAT)의 시행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는 재정적자 문제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004년 7월 아로요 대통령의 새로운 6년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구조적인 부패의 만연으로 인한 세금 징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문제 해결과 전력공급능력 확충 및 전력요금 인하 문제, 불 확실한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인구의 40% 가까운 빈곤층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 도입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2006년 2월 하순경 발생한 쿠데타 기도가 일단 외형적으로는 수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으나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현재 아로요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광공업부문 개발확대를 꾀하는 한편, 콜센터 유치 및 무선 인터넷 기반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치여건 불안정 요인 지속으로 정부가 희망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GDP가 1998년 마이너스 0.6% 성장한 바 있으나 99년부터 다소 회복됨. 2000년 들어서는 대통령 하야 등 정정불안으로 2001년에 2.9%로 성장률이 저조한 이후, 2002년 4.6%, 2003년 4.5% 성장을 달성하였고, 이어 2004년에도 연말의 태풍 및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순조로웠던 기후여건에 힘입은 농업분야의 호조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증가, 통신업 등을 위주로 한 내수소비 증가, 선진국 IT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높은 6.1%의 성장 달성. 그러나 2005년에는 선진국들의 IT 등 전자부품 수요 감소로 수출주종품목인 전자부품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성장률이 전년보다 낮은 5.0%수준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4.5%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빈약한 조세징수와 정부 재정적자 누증으로 재정적자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GDP의 80%에 이르는 외채(이중 공공부문의 외채는 GDP의 111.8%임)감축과 재정적자 해결은 국가적인 당면 과제임. 외채 이자 지급액이 2003년 2,309억 페소로 정부 지출예산의 28%였고, 2004년에는 27%였으며, 2005년에는 33% 수준으로 집계됨. 필리핀 정부는 2006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의 25.6억불 규모의 60% 수준인 16.5억불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재정적자 누증 및 세수확대조치 미진을 들어 국가신용도를 하향조정했으며, 세수확대를 위해 아로요 정부는 최근 부가세 10%에서 12%로 인상 및 주류, 담배세 인상 등 8가지 조세개혁법안을 추진, 의회를 설득해옴. 2004년 말 주류, 담배세 인상 한 건만 통과되었고, 부가세법 개정안은 2005년 5월에 ‘면세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되, 2006년에 12%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한다’고 상하 양원이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2006년 2월부터 12%의 인상된 부가세율(E-VAT: Extended VAT)을 시행하고 있음.

연도	평균환율(US\$기준)	재정적자액
1998년	41.8931 페소	49.9십억 페소 (GNP의 1.78%)
1999년	39.0890 페소	111.6십억 페소 (GNP의 3.56%)
2000년	44.1938 페소	134.2십억 페소 (GNP의 3.54%)
2001년	50.9927 페소	147.0십억 페소 (GNP의 3.79%)
2002년	51.6036 페소	212.6십억 페소 (GNP의 5.03%)
2003년	54.2033 페소	199.9십억 페소 (GNP의 4.63%)
2004년	56.0399 페소	187.1십억 페소 (GNP의 3.85%)
2005년	55.0855 페소	146.5십억 페소 (GNP의 2.70%)
2006년(1-7월)	52.0993 페소	N/A

자료원: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Philippines

9. 주요 산업 동향

< 산업부문 별 비중 및 성장률 >

경상가격 GDP 기준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림수산업	549	599	631	734	777
광공업	1,149	1,262	1,373	1,538	1,754
- 광업, 채광업	22	34	44	53	64
- 제조업	832	915	1,004	1,115	1,259
- 건설업	179	189	188	214	234
- 전기, 가스, 수도	116	124	137	156	197
서비스업	1,933	2,103	2,289	2,554	2,848
- 수송, 통신, 창고	248	277	313	367	412
- trade	518	556	603	682	777
- 금융	160	170	188	215	268
- 부동산	237	253	270	292	320
- 민간서비스	434	485	538	605	664
- 공공서비스	338	362	377	394	408
G D P	3,631	3,964	4,293	4,826	5,379
G N P	3,877	4,219	4,591	5,168	5,796
1인당 GNP(\$)	967	1,020	1,035	1,104	1,234

불변가격 GDP 기준 (1985년도 기준)

(단위 : 십억 페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농림수산업	200	207	214	225	229
광공업	336	350	362	381	401
- 광업, 채광업	10	15	18	18	20
- 제조업	244	253	263	277	292
- 건설업	49	47	46	49	51
- 전기, 가스, 수도	33	34	35	37	38
서비스업	454	477	505	540	574
- 수송, 통신, 창고	74	81	88	98	104
- trade	161	171	180	193	204
- 금융	47	49	52	57	66
- 부동산	48	49	51	54	56
- 민간서비스	74	78	82	88	91
- 공공서비스	49	50	51	52	53
G D P	990	1,034	1,081	1,146	1,205
G N P	1,061	1,106	1,163	1,235	1,306
1인당 GNP(\$)	726	741	764	794	823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NSCB)

주 : 소수점 첫 자리 반올림 지

제조업 비중이 약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50%가 넘는 소비위주 경제임. 제조업은 대부분 외국인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전자산업 및 의류산업 등 재수출용 제조업이 주종. 소비위주 경제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내수대상 제조업은 식품가공업, 음료, 통신업 등 위주로 발전.

가. 가전산업

1) 필리핀 가전산업 구조

필리핀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내수지향적이며 판매량의 대부분이 내수용임. 대다수의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이 외국 굴지의 기업들과 합작한 제품을 생산하며 외국기업의 브랜드를 사용.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가 점차 동남아 현지법인에서 들어와 내수시장에서는 판매만 하는 업체가 많으며, 최근 들어서는 현지에서 거의 가전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현지 제조업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도 낮아져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특히 아세안 통합에 따라 대 아세안 수입관세율이 현재 대부분 무관세 내지는 5%까지로 낮아져 필리핀 현지생산을 중단하고 인근 아세안 회원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해오는 업체가 갈수록 증가함.

주요 가전제품 수입관세율

품목명	HS CODE	2004 년		2005 년	
		MFN	CEPT	MFN	CEPT
WHITE LINES					
- Refrigerator	8418.21	10	5	10	5
- Freezer, Chest Type	8418.30	5	5	5	5
- Freezer, Upright Type	8418.40	- 10	5	10	5
- Washing Machine	8450.11	5	5	5	5
- Air-Conditioner, window or wall type	8415.20	5	5	5	5
- Parts for Refs & Freezers	8414.90	5	3	5	3
- Parts for Air-Con	8415.90	10	5	10	5
- Parts for Washing Machine	8450.90	5	0	5	0
BROWN LINES					
- Audio	8527.13	- 15	5	15	5
- Color TV/Video	8528.21	15	5	15	5
- Microwave Ovens	8516.50	3	0	3	0
- For Kitchen, Others (range, stove, rice cookers)	8616.8030	5	5	5	5
- Electric Fans (table, floor, wall, ceiling type)	8414.51	7	5	7	5
- Parts for TV/Video, Audio	8529.1090	- 5	0	5	0
- Parts for Kitchen Appliances	8516.9090	5	0	5	0

주 1 : 대한 수입관세율 : MFN 적용

주 2 : 아세안 회원국 : CEPT 적용

총 현지 내수 판매량

(단위 : 대)

품 목	2006(1-5)	2005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Refrigerator	219,000	567,100	625,000	571,700	440,200	466,900
Freezer	14,100	35,500	39,800	40,800	24,300	17,300
Washing Machine	197,100	565,800	747,000	685,000	588,800	570,600
Microwave Oven	31,100	83,300	103,400	97,500	43,400	28,800
Vacuum Cleaner	8,600	18,300	19,500	18,300	13,200	15,400
Air-conditioner	232,300	589,900	593,100	501,500	393,700	371,900
Rice Cooker	65,600	322,700	502,300	460,400	425,100	247,100
Flat Iron	131,000	562,600	726,700	567,300	651,200	430,900
Toaster	25,800	101,300	185,100	194,100	200,300	152,800
Stove	78,400	303,700	417,000	482,500	723,900	637,500
Range	21,500	66,500	86,600	61,500	70,900	73,100
Electric Fan	307,800	1,083,400	1,566,200	1,592,400	1,594,800	1,298,500
Color TV	413,300	1,061,600	1,069,300	1,014,500	943,000	883,100
VCR/VCP	-	-	1,600	1,150	7,900	43,700
VCD Player	-	2,000	20,600	93,400	194,300	10,600
DVD Player	125,700	259,500	251,100	120,800	41,900	n/a
DVD Home Theater	5,500	12,200	n/a	n/a	n/a	n/a
Video Camera	12,300	30,100	25,500	n/a	n/a	n/a
Music Center	49,300	160,800	207,100	232,100	242,400	302,100
Radio Cassette	28,200	99,600	97,100	99,800	171,800	206,300
Karaoke	13,400	36,800	57,000	60,600	67,600	75,700
Headphone Stereo	2,800	9,300	7,200	9,700	13,500	17,300
Total	1,982,800	5,972,000	7,348,200	6,905,050	6,852,200	5,849,600

자료원: Economic Indicators ; May 2006

주: 현지 Philippine Appliance Industry Association, Inc.의 자료를 원용하여 작성된 통계로, 동 회원사 소속 업체들의 신제품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중고제품 판매 수량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으며, 중고제품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2) 한국업체 진출 현황

- LG 전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했다가 판매법인으로 전환함.
- 삼성전자는 생산법인이 있으나 재수출용 전자부품 생산. 가전제품은 판매법인에서 취급

나. 광 업

1) 개 황

필리핀은 동, 니켈, 금 등의 매장량이 세계 8위로 추정되는 자원 보유국이며 자원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외에도 크롬, 구리, 철 등 다른 지하 자원도 풍부하나 낙후된 기술과 자본력 미약, 외국인 단독투자 불허 등으로 매장량 조사가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경제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광업이 국민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2004년 기준)밖에 안 될 정도로 비중이 적음.

1995년에 Philippine Mining Act (광산개발법)가 통과되었는데 동 법은 광업에 투자하는 경우 제세감면, 시설 도입 시 면세 통관 등 제반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하여 광업을 진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채굴의 경제성이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함. 또한 이 광산 개발법의 일부 조항,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재정 및 기술지원 계약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 광산개발 사업권, 광물 가공 사업권 등을 허용한 것이라고 2004년 초에 필리핀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어 논란이 되었음. 이에 자원개발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나 자원개발에 참여하려는 국내자본이 없어 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리핀 정부로서는 난국에 봉착.

정부의 재심 요청에 따라 필리핀 대법원이 2004년 12월초 1995년 광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종전의 위헌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재계와 정부의 환영을 받음. 1995년 광업법 중 재정 및 기술지원 계약(FTAA)의 경우 외국인 회사가 광산 개발권 및 개발 지분의 100%를 소유 할 수 있다고 판결. 이에 필리핀 광산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었음. 다만, 환경보호론자, NGO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 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짐.

2) 자원 생산량

주요 자원 별, 연도별 생산량

자원	단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Copper							
Concentrate	DMT	138,365	129,755	98,065	79,213	80,821	70,578
Gold	kg	31,065	36,511	33,792	35,846	39,008	35,464
Nickel	kg	508,218	1,023,381	1,290,524	1,200,204	872,923	874,193
Cement Raw Materials	MT	14,718,400	22,264,100	21,535,100	20,524,400	17,555,300	20,514,000

주 : DMT : Dry Metric Ton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NSCB)

3) 자원 수출량

광물자원의 연도별 수출량 및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불,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Export Volume	728	642	36	369	328	280	435	757
Export Share (%) (Export Volume/ Total Export)	3.0	2.0	1.8	1.8	1.0	0.8	1.2	1.9

자료원: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NSCB)

다. 농림수산업

1) 개 황

농림수산업은 필리핀 경제의 주 원동력으로서 국민총생산에서 약 15%를 차지함. 농림수산업에 대한 종사인구는 40% 정도이며 필리핀 농림수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단위 당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앞으로 개발 필요성이 많은 분야임. 1986년 마르코스 독재가 무너지기 전 필리핀 농업은 농지소유에 제한이 없어 대농장이 많았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 기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는데 당시에는 쌀, 설탕, 옥수수 등의 생산이 내수를 초과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어 수출도 했었음.

그러나 현재는 쌀, 옥수수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쌀 생산량은 비슷한 데 비해 인구가 매년 2%인상 증가하고 있어 쌀 자급도는 농업부문의 획기적 생산증대가 따르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관개수로 확충 부족으로 가뭄 시 농업용수가 부족해 애로를 겪으며, 생산물이 국내 내륙 운송을 위한 도로망 확충 부족으로 내륙운송비가 많이 들어 농수산물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 농수산업 현대화 계획을 도입하여 식량자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120만 톤 가량씩 쌀을 수입해옴. 주요 생산 작물은 옥수수, 코코넛,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망고, 담배, 아바카, 고무, 카사바, 고구마, 망고 등이며, 특히 열대 과일류는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도 함.

2) 농기계 산업 개황

일정기간 기업소득세 면제 등 주로 조세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우선 투자분야(Investment Priority Plan; IPP)에 농기계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음. 농수산업 현대화법에서 농기계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농기계제조업 육성보다는 농민에게 혜택부여를 통한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즉,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정책적 의지는 없으며 이는 기계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 되어있고 투자자본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에 투자를 꺼리는 필리핀 기업가들의 행태에도 기인.

필리핀 농기계 산업은 저기술, 유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약 45-50개 정도의 농기계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 철공소 수준에 불과하며, 비교적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는 6개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도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부족해 표준모델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주문생산 형태를 취하고 있음.

동력장치인 엔진, 모터는 필리핀 자체 생산이 없으며 외국산 신품 또는 중고엔진에 단순 기능 장치를 부착하는 수준이고 사용 자재도 고철을 사용. 수요자(농민)의 구매력이 매우 낮고, 농가당 경지면적이 소규모(최대 5헥타르)이며 기후 조건이 선진국과 상이하여 현대화된 농기계는 현재의 필리핀 실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미국의 재정지원으로 아시아 지역 쌀 생산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미작 연구소)은 저가, 단순 기능의 모델을 디자인하여 보급하고 있음.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 조합 및 농기계 제조, 수입업체의 의견을 종합하면 Power Tiller 및 Rice Thresher의 경우 수요의 약90%를 필리핀 국내산으로 조달하며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내 자급률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100% 수입의존 품목은 엔진(가솔린 및 디젤), 사륜 트랙터, 전기 모터 등으로 디젤엔진의 경우 한국산 대동 및 국제 등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전기모터의 경우 LG모터가 판매된 바 있음.

3) 농지개혁법(CARP; 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 시행

1986년 민중혁명으로 마르코스 독재가 무너지고 아키노 정부가 들어선 이후 87년부터 시행된 농지개혁법이 농가 1가구당 농지 소유한도를 5헥타르로 제한하면서 단위 경작 규모가 소규모화 되고 농가(예전 소작농 또는 농장 노동자)의 자금여력이 없음에 따라 농업 기화는 후퇴하여 농기계 수요도 현저히 줄어들었음.

농지개혁법 시행시한이 당초 1998년이었으나 정부재원 부족으로 토지구매 자금이 없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10년간 연장하여 2008년까지로 연장됨. 2004년 상반기말 현재 분배대상 토지 4.29백만 헥타아르 가운데 80%인 3.42백만 헥타아르 면적의 농지가 1.95백만 명의 농부들에게 분배됨. 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2008년까지도 달성이 어려울 전망되어 2010년까지로 다시 시한 연장을 추진중임.

토지분배정책에 따라 대규모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세 농가들이 운영함에 따라 농기계 수요 처는 협동조합, 농촌 상인(농기계를 농민에 대여하고 수확기에 생산물로 변제 받음; 고리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 및 유통업체(쌀의 경우 건조기 및 도정 시설 등을 갖춘 업체) 등이며 실 경작 농민의 농기계 수요는 극히 제한적임.

4) 농수산업 현대화법의 시행

전임 에스트라다 정부에 이어 현 아로요 정부에서도 식량확보(안보)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을 신정부의 역점 분야의 하나로 지정하고 라모스 정부 시절 통과된 농, 수산업 현대화법의 실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단기간 내에는 가시적 정책집행이 의문시되고 있기도 함.

동 법은 정부차원에서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농업기계 및 종자 구입시 농민에게 자금을 대여, 장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에서 농민에게 대출해주는 자금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 별 농기계 대량 구입 등이 뒤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재정 부족으로 진척이 어려움.

라. 석유화학산업

1) 개 황

필리핀 석유화학 산업은 개발단계에 있는 유치산업임. 나프타 분해공장은 없으며, PVC, PS, PP, PE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타국에 비해 가격,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수입관세율 인하로 위기에 처함.

2001년 말에는 22개의 공장에서 PP, PE, PVC, PS, 알킬벤젠, 폴리아미드,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석유화학 레진을 연간 1.1백만 톤 가량 생산하였으나, 알킬벤젠, 프탈릭알데히드, 나일론 생산공장이 문을 닫음에 따라 2002년 말에는 11개의 공장에서 70만 톤 가량이 생산됨. 2003년 말 11개의 공장에서 71만 톤 생산.

석유화학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수입관세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하여 자국 유치산업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03년 초에 금년도 대 아세안 수입관세 인하율을 당초 계획보다 줄였음. 아세안 공동관세 인하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폴리에틸렌,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경우 2002년의 15%에서 2003년에는 5%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대통령령 E0 161호로 2004년 12월까지 10%를 적용기로 변경함. 일부 플라스틱 완제품은 2002년과 동일하게 7% 관세 적용.

2004년 9월 업스트림 업계에서 필리핀 최초의 나프타 분해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다고 하며, 대신 나프타 공장이 정상가동에 들어갈 때까지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석유화학 중간재 수입관세 인하계획을 다시 연기하여 당분간 자국산업을 보호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 관철시킴. 반면 다운스트림 업계에서는 PE, PVC 등 석유화학 중간재에 대한 고율관세로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이 채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반발.

한편, 업스트림 업계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각료급 관세관련위원회(Cabinet-level Committee on Tariff and Related Matters; TRM)가 2004.12.28에 동 관세인하를 2005.6월말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에 건의함에 따라 2005년 6월말까지 대아세안 관세인하 조치가 연기됨. 동 건의안은 2005년 말 현재까지도 변동사항 없이 실행중임.

2005년 3월 JG Summit이 구체적인 나프타 분해공장 설립 및 가동계획을 제시하면서 유치산업보호를 위해 당분간 해당 제품의 관세인하 계획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6년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음. 다운스트림 업계에서도 이번에는 원자재보다 낮은 수준인 일부 플라스틱완제품 관세를 원자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하면서 업스트림 업계와 의견을 통일시키고 있으나 다운스트림 업계의 전망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석유화학제품 생산동향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생산량	116,997	114,486	94,439	88,242	73,367
Aviation Turbo	5,318	4,825	5,050	5,024	4,584
Premium Gasoline	5,090	5,540	5,523	-	6,939
Regular Gasoline	5,118	-	-	-	-
Premium Unleaded	7,080	12,194	11,213	9,967	5,821
Kerosene	4,191	3,625	3,227	2,802	1,776
Diesel Oil	34,942	33,872	29,758	28,731	21,719
Fuel Oil	36,639	32,241	26,104	25,970	23,419
LPG	4,712	5,544	5,019	4,604	3,064
Asphalts	454	651	199	-	1.70
Hydro/Solvents	151	135	115	157	102
Naphtha	6,463	6,080	4,158	4,496	1,800
Mixed Xylene	324	209	541	731	852
Base Stocks	338	747	148	0	-
Secondary Products	386	-337	-110	0	-
Waxes	48	-18	-5	0	-
In-Process Loss	5,742	9,180	3,498	466	(3)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DOE/Oil Industry Mgmt Bureau

2) 합성수지 생산동향

플라스틱 가공, 직물 등에 필요한 합성수지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데다 제조업을 꺼리는 필리핀 특유의 산업구조에 기인.

각 합성수지 별 제조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성수지 별 제조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생산 능력(1,000 MTPY)
PP	Petrochemicals Corp. of Asia-Pacific*	225
	JG Summit Petrochemical Corporation	180
PE	JG Summit Petrochemical Corporation	175
	Bataan Polyethylene Corp.**	275
PVC	Phil. Resins Industries, Inc.	70
PS	D & L Industries, Inc.	18
	Phil. Petrochemical Products, Inc. (PPPI)	14

Alkylbenzene	LMG Chemicals Corporation	25
Phthalic Anhydride	RI Chemical Corporation (formerly Resins, Inc.)	14
Formaldehyde	Borden International Phils., Inc.	28
	RI Chemical Corporation (formerly Resins, Inc.)	40
Emulsion Polymers	Borden International Phils., Inc.	25
	D & L Industries, Inc.	
	Kemwerke, Inc.	
	Pacific Products, Inc.	
	Polymer Chemicals	
Polyester (unsaturated)	D & L	10
	RI Chemical Corporation	
	PPPI	
	Kemwerke	
	Pacific Products	
Polyamide	Pacific Products	1
Nylon 6 Fibers	Fibertex	14

자료원: 필리핀 투자청(BOI) 및 해당업체 문의, 2006년 8월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PE	195	133	154	94	165	134	224	138	169	136
PP	93	60	99	58	78	52	92	67	94	80
PVC	17	13	18	11	18	14	15	13	19	18
PS	16	17	21	18	20	20	25	25	24	27
계	321	223	292	181	281	220	356	243	306	261

구분	2005(1-8)	
	수량	금액
PE	56	57
PP	56	50
PVC	7	7
PS	10	13
계	129	180

자료원 : NATIONAL STATISTICS OFFICE

수입 관세율

(단위 : %)

품목	HS Code	CEPT Rates		MFN Rates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PVC	3904.1020	3	15	15	15
PS	3903.1110	10	0	15	15
PP	3902.1010	10	0	15	15
PE	3901.1010	10	0	10	15
	3901.2010	10	0	10	15
Formaldehyde	3903.1010	0	0	3	3
Emulsion Polymer	3905.9911	0	0	3	3
Polysters	3907.9110	3	3	5	5
	3907.9910	0	0	1	1
	3907.9940	3	3	10	10
Polyamide	3908.1012	3	3	10	10
	3908.1092	0	0	3	3
	3908.1011	3	3	10	10

자료원 : 2004/2005년 관세율표

마. 에너지산업

필리핀은 자국 내 유전에서 소량의 원유생산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을 해외 수입 자원에 의존함. 필리핀의 원유수입액은 연간 약 32억불수준으로서 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서 75%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 라 모스 대통령 취임 후 발전능력 향상 및 시설 개 보수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과거에 빈번 했던 정전이 94년 이후 점차 개선되어 최근에 와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 그러나 발전소 확충작업이 미뤄지면서 2008년경에는 루손섬에도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함. 재정조달 능력이 없는 현 정부로서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발전소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BOT법 등 관련법규 정비를 추진 하고 있음.

석유 이외의 지열발전 및 열수발전 등 대체 에너지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001년 10월 팔라완의 말람파야 지역에서 가스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됨.

전력개발을 정부주도에서 BOT방식에 의한 민영개발로 정책을 전환한 주된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정부재원 부족으로 발전, 서비스 향상에 한계
- 민영개발을 통한 전력난 해소가 주목적
- BOT 추진 시 정부의 보증도 억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정부재원 부족으로 중장기 전력개발계획 추진이 부진하며 전력생산 50% 이상을 오일 및 가스발전에 의존(기타 수력발전 21%, 석탄화력발전 13%, 지열발전 12% 정도)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임.

소비자 가격이 높으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가격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발전설비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송배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기인.

- 발전량의 76%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루손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민다나오섬에서는 15%, 비사야스섬에서는 단지 9%만이 생산됨.
- 총 송배전 연장길이는 17,000 ckt/km 정도로 설비의 노후화, 관리 부실로 최고 40% 까지로 전력 누수율이 심각.

과거 90년대 초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어 발전소를 설립할 때 정부가 민간 전력 생산업자들 (IPPs)과 맺은 계약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소비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임. 따라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 전기사용자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이에 전력요금을 일부 인하함에 따라 전력공사(NAPOCOR; NPC)의 재정적자가 100억 달러까지로 늘어나는데 일조함.

연간 전력생산은 2002년의 경우 48,467.4 gigawatt/hour, 2003년에는 52,941 gigawatt/hour, 2004년에는 55,957 gigawatt/hour, 2005년에는 56,568 gigawatt/hour가 생산되었음. (Dept of Energy / Power Statistics 2005)

한국전력은 지난 12월 16일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와 일리한 반전소에 이어 세부 발전소에 착공했음. 이는 지난 2004년 한국과 필리핀 정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세부지역의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2005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으로 한-필 간 에너지 협정조약이 체결로 한국 가스공사가 말라파야 발전소 개발에 참여 할 것으로 보임.

바. 자동차 산업

1) 자동차 산업

필리핀 자동차산업은 일본 자동차 조립회사들이 이끌고 있는데 승용차 14개(연간 생산능력 221,450대), 상용차 21개(연간 생산능력 145,950대), 모터 싸이클 21개(연간 생산능력 46만 대)업체가 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40% 정도 가동됨.

주요 제조사인 TOYOTA, HONDA, NISSAN, MITSUBISHI, ISUZU 등 5대 일본 조립업체들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약 90%에 달함. 그 외에 FORD, COLUMBIA MOTORS (MAZDA, DAIHATSU 조립) 등이 있음.

신형 차량의 연도별, 차종 별 판매대수는 아래와 같음. 필리핀인들은 가족수가 많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소형 승용차보다는 봉고형 승합차(Asian Utility Vehicle; AUV)를 선호함. 이에 따라 현대와 기아는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선두로 필리핀 시장점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점유율이 미흡한 상태임.

연도	승용차	상용차
2000	28,826	55,123
2001	23,684	52,986
2002	21,728	63,859
2003	24,321	68,015
2004	33,277	54,798
2005	35,633	61,432
2006. 1-6	17,979	28,252

자료원: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CAMPI) Economic Indicators; June 2006

2) 시장 규모

필리핀 시장규모는 2005년 등록기준으로 5,059,75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을 갱신한 차량은 4,299,173대, 신규 등록 차량은 760,580대임(LTO 통계).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LTO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신규 등록차량 대수와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한 신차판매량 대수를 비교하면 내내 말썽이 되고 있는 중고차 밀 반입량과의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음.

신규등록 대수와 신차 판매량의 차이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용 면세차량 반입분 및 일부 중고차량 밀수, 상용차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제작되는 지프니 등인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구분		2004	2003	2002	2001	2000
필리핀 전체	신규	723,400	539,845	490,881	414,990	388,613
	갱신	4,037,193	3,752,427	3,696,792	3,450,872	3,311,560
승용차	신규	47,772	30,032	30,889	29,189	31,369
	갱신	750,388	712,633	718,664	700,161	735,779
Utility Vehicles	신규	152,559	142,686	149,080	126,420	121,210
	갱신	1,636,412	1,543,631	1,503,234	1,362,846	1,266,907
Trucks	신규	24,028	21,286	17,287	16,640	17,909
	갱신	243,949	234,223	240,487	236,956	230,460
Buses	신규	2,496	1,560	1,674	1,446	1,763
	갱신	32,501	29,789	32,241	30,240	32,123
오토바이	신규	495,400	343,138	290,468	240,152	214,793
	갱신	1,351,961	1,209,441	1,179,915	1,098,111	1,021,448
Trailers	신규	1,145	1,143	1,483	1,143	1,769
	갱신	21,976	22,710	22,251	22,558	24,843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필리핀 자동차 자체생산은 없으며, 대중들의 교통수단인 지프니는 중고 엔진을 이용하여 지프니 제작공장에서 만들어짐. 지프니 생산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지프니는 2004년에 처음으로 수출이 되었는데, 2004년 3월 지프니 버스 4천대, 26억 페소(약 4천 6백만 달러)를 파푸아 뉴기니로 수출함. 지프니를 베트남과 인도로도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수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자동차 조립 생산업체

자동차 업체	생산 차종	점유율	설립연도	투자국
Toyota Motors Phils., Inc.	승용차, 상용차	35.87%	1988	일본
Honda Cars Phils., Inc.	승용차, 상용차	14.02%	1992	일본
Nissan Motor Phils., Inc.	승용차, 상용차	3.04%	1997	일본
Mitsubishi Motors Phils. Inc.	승용차, 상용차	12.47%	1996	일본
Ford Motor Company Phils.	승용차, 상용차	7.97%	1999	미국
Isuzu Phils. Corp.	상용차	14.06%	1996	일본

자료원 : CAMPI ; July 2006

3) 자동차 부품 산업

무역 산업부 웹사이트 자료(2005년 6월 현재)에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공식적으로 256개 라고 나와 있으나,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 협의회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 협회 등을 통해 문의해본 바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기준, 실제로는 149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Association of Consolidated Automotive Parts producers : 129 members
 - Add : G/F., Guieb Bldg., 961 Pres. Quirino Ave., Malate, Manila
 - Tel : 63-2) 522-0534
 - Fax : 63-2) 536-8138
- Motor Vehicle 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104 members
 - Add : 24 Gen. Araneta Cor., Gen. Atienza Sts., Brgy. San Antonio, Pasig City
 - Telefax : 63-2) 633-5382

자동차부품 수출은 2001년 954백만 달러, 2002년 1,167백만 달러, 2003년은 1,325백만 달러, 2004년은 1,757백만 달러, 2005년 1,895백만 달러, 2006년 상반기 958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업체별 또는 산업 전체의 자동차 부품 생산 규모는 발표된 자료가 없음. 관련 협회에 조회 하였으나 개별 업체들의 기밀사항이라고 하며 내역 제공을 거절하여 입수 불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자동차성능을 결정하는 핵심부분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며 필리핀 생산업체들은 단순한 비 핵심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짐. 4천여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며, 현지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부품은 15%에 불과함. 과거 현지 자동차 조립 시 적용되던 Local Contents(현지 산 부품사용)비율은 2003년 7월에 폐지됨.

참고로 필리핀 업체들(다국적 부품 생산업체 포함)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해온 부품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음.

- Spring Cramps, Axles, Nuts & Bolts, Carbide Tips, Drill Rods, Closed Impression Die Steel, Electrical Pole Lines, Hardware, Container Rocking Gear, Fitting/Mining Parts, Stamped Parts, Aluminium Alloy Wheels, Air Conditioning Copper Tube & Pipe for Diesel Engine, PVC Leather for Upholstery of Car Seat, Door Trims, Automotive Transmission, Shock Absorber, Air Conditioning Components, Rugs & Carpets for Auto., Motorcycle Parts 등

자료원 : ACAPP/ Association of Consolidated Automotive Parts Producers Inc

사. 정보통신산업

1)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

□ 전반적인 시장 현황

이동전화 이용자 및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 닷컴 기업 및 인터넷 관련 기업수의 증가, IT 부문으로의 국내. 외 투자 증가로 동 산업은 필리핀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관련 인프라는 점점 다양화되고 확산추세에 있으나 정부조직에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전산화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열악한 상황이며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린 편임.

국영 전화회사인 PLDT 1개사가 독점해온 통신산업을 1994년 통신산업 자유화 이후 다수의 유무선 통신회사가 설립되어 경쟁해오다가 합병과정 등을 거쳐 다시 정리되었고, 현재는 PLDT(국영통신회사 민영화)와 Globe Telecom(Ayala 그룹) 2개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 유선전화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Bayantel, Globe Telecoms 등 주요 전화회사가 시장을 분할 점유하고 있으나 PLDT가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 주요 전화서비스 회사별 회선 수 및 점유율은 다음과 같음.

사업자명	회 선 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PLDT	3,050,557	2,933,145	2,533,555	2,912,129
GLOBE	786,292	790,291	-	-
DIGITEL	611,999	618,271	633,190	633,190
BAYANTEL	465,365	488,684	443,910	443,910
ISLACOM	693,541	693,978	693,978	-
INNOVE	-	-	-	1,507,197
OTHERS	1,374,899	1,389,866	2,546,748	976,625
총 계	6,982,653	6,914,235	6,557,403	6,473,051

사업자명	가입자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PLDT	1,723,942	2,092,539	2,098,453	2,115,561
GLOBE	143,471	134,803	-	-
DIGITEL	384,476	389,967	391,605	412,618
BAYANTEL	218,883	185,506	227,057	227,057
ISLACOM	73,367	73,491	-	-
OTHERS	429,043	434,627	582,206	352,347
INNOVE	-	-	-	329,908
총 계	2,973	3,310,182	3,299,361	3,437,491

자료원 :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5, NTC

주 : PLDT가 제1의 서비스업체(자회사인 SMART 포함)이며 GLOBE TELECOM이 제2의 전화 서비스 업체임. ISLACOM 은 2003년에 Globe에 합병됨.

라모스 정권기에 통과된 REPUBLIC ACT 7925 (TELECOMMUNICATION POLICY ACT)에 의해 NAT'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이 설립되면서 대도시 전화 사업권을 받은 민간 사업자에게 오지의 전화선도 매설토록 의무화하고,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는 사업자들에게도 오지에 전화선을 매설토록 의무화하여 전화보급률이 확대되었다가 최근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로 유선전화는 오히려 보급률이 낮아짐.

연도별 전화보급률(100명당 전화 회선 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보급률	9.05	8.91	8.70	8.0	7.83

자료원 : Phil. Statistical Yearbook 2005, NTC

통계상으로 볼 때 많은 발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필리핀 통신산업은 아직까지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통신이용자수의 증가, 통화질의 향상, 고비용 통신비용의 개선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전화선을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 을 감안할 때 인터넷 부문 발전을 위해서는 큰 폭의 전화 보급률 상승이 이루어져야 하나 회선 증설 속도가 완만함.

낮은 PC보급률에 따라 최근 들어 인터넷카페(PC방)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초고속 통신망 보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동통신

약 4개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각 사별 가입자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사업자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SMART	2,858,479	4,893,844	6,825,686	10,080,112	14,595,782
GLOBE	2,653,000	5,405,415	6,572,185	8,800,000	12,513,973
PILTEL	656,814	1,483,838	1,773,620	2,867,085	4,612,450
ISLACOM	181,614	181,614	181,614*	N/A	Closed
EXTELCOM	194,452	194,452	29,896	29,896*	13,670
DITITEL	-	-	-	732,467	1,200,000
총 계	6,454,359	12,159,163	15,383,001	22,509,560	31,735,875
인 구 수	76,320,141	77,898,196	79,476,271	81,054,271	84,241,341
100명당 보급률	8.46	15.61	19.36	27.77	37.67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NTC

주 : 전년도 통계 기준 수치. ISLACOM 은 2003년에 Globe에 합병됨.

양대 이동통신 회사인 Smart Communications와 Globe Telecom는 이미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동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가입자수는 300만 - 500백만 명 정도로 필리핀 전체 단말기 사용자에게 10%-20%선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GSM 방식을 사용. 단말기는 보급품의 저가 기종이 대부분이며, 후불제 보다는 선불카드 방식이 주류를 이룸. 통신회사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 및 소액 재충전 서비스 도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4년 말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3천5백만 명에 달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VoIP

현재는 기존 유선통신 사업자들에게만 사업권이 허가되어 있으나, 관련 업계의 규제해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최근 규제를 해제하여 유선통신뿐만 아니라 무선통신사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짐. 2005년 3월초, PLDT 회장이 금년 내 VoIP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2005년 9월 달부터 실행되고 있음.

□ 인터넷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붐을 타고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업체도 크게 늘어났다 가 대미달러 환율의 급상승, 경기침체, 기존 유선망 사업자인 PLDT와 GLOBE까지 ISP시장에 가세하는 바람에 경쟁환경이 급격히 악화됨. ISP사업자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NTC에 등록된 ISP 숫자는 2000년 34개사, 2001년 64개사, 2002년 93개사, 2003년 121개사, 2004년 144개사, 2005년 177개사로 2005년 말까지 총 633개사가 등록되어 있음. (NTC 문의 결과)

ISP 업체들간 경쟁 과열로 네트워크 능력을 초과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바람에 네트워크 과부하로 가입자들의 불만 증가. 앞으로 NTC가 ISP의 네트워크 용량과 가입자 유치 실적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기도 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는 없음

인터넷 카페 수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00여 개가 있는데, PC 15대 이상을 설치한 중견규모는 5,000여 개, 1-2대 등 소규모로 설치한 곳들은 9,000여 개로 추산.
(2005.3월 Business World by Netopia Internet Company Survey)

인터넷 사용자수는 1999년 95만 명, 2000년 190만 명, 2001년 310만 명 이었고, 2002년 340만 명, 2003년에는 400만 명, 2005년에는 782만 명으로 2년 동안 약 2배의 증가를 보임. 그러나 주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기적 사용자(regular user)'는 2002년 965천 명에서 2003년 1백만 명으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침.

이는 주로 유선전화 보급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짐. 나머지 300만 명은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있거나 가끔 이메일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 (AC NIELSEN: Business World 2004.2.13, 2004년 이후 자료 미공개)

사업가들도 인터넷을 가끔 이메일을 사용하는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한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메일을 점검한다는 바이어들도 많아 사업상 의견교환은 주로 팩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인터넷 회선 가입자는 2001년 50만 명, 2002년 80만 명, 2003년 100만 명, 2004년 120만 명, 2005년 144만 명으로 파악됨. (자료원: NTC)

인터넷 사용자의 40% 가량이 Pre-Paid Card 사용자로, 휴대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인구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유선전화 보급 부진, 높은 유. 무선 전화이용료, PC보급 부진 등이 인터넷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에 WiFi 무선랜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서비스가 커피전문점(Starbucks, Coffeebean), 호텔, 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 중임.

아직까지 Dial-up 방식이 주류로, 최대속도는 56K이나, 인프라 부실로 인해 실제 접속 속도는 이보다 느림. ISDN의 경우 유선전화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64K, 128K가 서비스 되고 있고, 기업용으로 한정되어 E1급(30채널)이 주로 보급되고 있음. ADSL은 광섬유 라인이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되고 있고, 기업용은 512K, 1M, 2M가 가능하며, 월 사용료 600달러로 사용료가 비싸서 일부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용 : 최저 18K - 최대 2Mbps DSL 연간 사용료 약 2,700 달러(속도 별 차등)
- 가정용 : 최저 18K - 최대 1.6Mbps DSL 사용료 월 58 달러
- 케이블 인터넷은 CABLE TV업체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월 34달러 정도.
-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나 단말기가 저가 보급품 위주로 보급되어 있어 다양한 동영상 등의 서비스는 도입하기 어려움. 현재는 뉴스, 간단한 게임 등 사용 분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콘텐츠도 다양하지 못함.

□ PC 보급

1998년 9만대, 2001년 136만대, 2003년에 185만대 보급. 2003년 말 기준 인구 100명 당 2.77대 수준으로 추정(자료원: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분야별로는 기업 65%, 가정 13%, 정부기관 10%, 학교 6%로 추정. 장기적으로 개인 PC보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의 80%가 월 소득 27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이 IT보급 확산의 장애 요인임.

2004년도 필리핀 정부가 인텔사와 약정을 맺고 ‘국민형 PC(PC for the people)’를 도입, 학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했으며, 2005년 3월에는 세계 2위의 마이크로칩 업체인 AMD (Advanced Micro Devices Inc.)와 다시 약정을 맺고 저가PC보급을 시작함. 인텔의 국민형PC는 판매가격이 대당 17,600페소 (약 320불)로, 리눅스가 설치됨. 필리핀에 부품 형태로 반입되어 조립, 판매. 부품 조달처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코스타리카 등으로 알려짐. AMD는 인텔보다 낮은 가격인 대당 16,500페소 (약 300불)에 칼라잉크가 장착된 프린터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임. AMD는 2005년에 1만대를 필리핀에 공급하였고, 판매대상은 학교 및 공무원으로 인텔사와 같음.

□ 필리핀의 IT산업

필리핀 정부가 육성하려는 필리핀 IT 산업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으로, 그 가운데 특히 콜센터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 2003년 IT분야에서의 투자는 23% 증가한 64억 페소였는데, 그 중 69%인 44억 페소가 콜센터 산업에 투자됨. 2004년 1분기에는 IT분야 투자 26.3억 페소 가운데 92%가 콜센터 산업에 투자됨.

필리핀의 콜센터 산업은 2002 년의 10,000 석에서 2003 년말에는 21,000 석으로 100% 이상 증가했으며, 2004 년 말에는 4 만 석, 2005 년 말에는 8 만 석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2005 년 이후 자료 미공개). 현재 세계 콜센터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5 년 내지 7 년 후에는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콜센터 기지로서의 필리핀의 장점은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구사 인력이 풍부하며 통신 인프라 여건이 비교적 좋다는 점 등임. 또한 필리핀인들의 미국 선호가 강한 덕분에 미국 문화와 친숙하다는 점도 강점임. 현재 필리핀에는 미국의 유수 콜센터들인 Convergys, West Tele Services, Sykes, ICT, APAC Customer Services 가 있으며, 메트로마닐라, 클락, 세부 등에 60 여 개의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IT Park 육성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공단조성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IT 단지 및 건물에까지 확대. 대상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개발, 하드웨어 디자인 및 시제품 생산, 컴퓨터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 연구개발 및 IT 제조. 2006년 6월 기준, 총 161개의 IT Park와 IT 빌딩이 지정되어 있음.

단지별 주요 입주 기업

단지명	주요 입주기업
Eastwood City	IBM Business Services Inc., Siemens Inc., E-Telecare (콜센터), NEC Toppan Circuit Design Inc., Toie Animation Philippines Inc., Trend Micro Inc.(보안 소프트웨어), Link2Support Inc.
RCBC Plaza SEZ	Dell International Services Philippines Inc, Safeway Philtech Inc., ACS of the Philippines Inc.
Asia Town IT Park SEZ	Epson Precision (Philippines) Inc., Epson Precision (Philippines) Inc., People Support (Philippines) Inc.
Northgate Cyberzone	HSBC Electronic Data Processing (Philippines) Inc. APAC Customer Services Inc., Itron, Inc.

자료원: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June 2006)

□ IT 인력의 임금 및 노동여건

영어 구사 및 해독 가능한 IT 관련 programmer, analyst, system integrator 등 숙련 인력이 풍부하여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IT관련 숙련인력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강점을 지니고 있음.

다만, 필리핀은 노조설립이 자유롭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노동정책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선진국에 가까운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KMU 등 전문 노동운동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투자업체들의 큰 애로사항 내지 우려사항의 하나가 노사분쟁임.

필리핀 기업도 노사분쟁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꼭 현지 파트너가 외국인 경영진보다 노무관리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생소한 외국인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함.

IT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필리핀 내에서는 급여가 많은 편임. 필리핀 기업이나 외국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업종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단순작업 종사자는 월 15,000- 20,000페소, PROGRAMMER는 월 20,000-25,000페소, SYSTEM ANALYST 및 WEB DESIGNER는 월 25,000-30,000페소, IT ENGINEER는 월 40,000-50,000페소 정도임.

2) 국내기업 진출유망 분야

□ 유망진출 분야

○ IT 분야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무선통신이 발달하였기에 무선통신과 관련된 위성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등이 유망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저렴한 영어구사 가능 인력으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전세계에서 문의되는 고객문의에 응답하는 역할을 하는 Web Call Center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국가로 인식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하청생산 기지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수요는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경제적 물량을 수주하기가 어려움. 인터넷 솔루션은 필리핀의 인프라, 구매력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광산 개발 분야

필리핀 광산지구과학국(Mines and Geosciences Bureau)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전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 특히 금속성 광물 자원은 총 8 억 5 천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2004 년 기준)은 약 99 만 톤으로 총 매장량에 약 0.117%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자원개발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잠재 광물자원이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체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95 년 「광업법 (Philippine Mining Act - Republic Act 7942)」과 2004 년 1 월에 「행정 명령 270 호(Executive Order No. 270)」를 제정,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현재 한국기업의 경우 'LG 상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KORES)'가 필리핀 Rapu-Rapu 동·금광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기업은 구리(Cu) 약 3 천 톤과 아연(Zn) 약 4 천 톤을 확보한 상태임

□ 현지협력(합작 등) 가능 업체

독자적으로 파트너를 물색하기 힘들 경우 필리핀 투자청(BOI)에서는 합작 파트너를 소개해 주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할 수 있음.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내수 판매, 관리 등 파트너의 역할을 먼저 분명히 정하고 이에 적절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좋음. 일반적으로 자본이 있는 필리핀 사업가들은 제조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상업, 금융 기타 서비스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합작 선으로 나선 파트너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합작을 하기를 원하는 지 사전에 분명히 파악 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의 목적이 우리측의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필리핀에서 파트너 선정에 있어 애로사항은 경제적인 상류층과 하층이 너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자본력도 있고 왕성한 기업욕을 가진 중소기업 수가 적다는 데 있음.

□ 기진출한 IT 업체 및 진출성공/실패 사례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의 IT관련 업체는 2001년 진출한 LG CNS와 2003년 진출한 와이드랜닷컴 등이 있음.

인터넷 카페를 운영중인 한국 업체들도 있으며 온라인 게임을 주 기반으로 하여 성업 중.

인터넷 솔루션 장비업체들도 필리핀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결말을 맺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진출을 보류중인 경우가 많다고 함. WAP 솔루션 장비의 경우 노키아에서 이동통신회사에 단말기 제공을 목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음에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동 장비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한국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음.

10. 정보조사 자료원

□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 수출입 통계 및 일반 경제 기초자료 열람
 - 주소: Solicarel Bldg. I, R. Magsaysay Blvd. Sta. Mesa, Manila 1008 PHILIPPINES
 - Tel: (63-2) 716-0807, 713-7074, 715-6502
 - Fax: (63-2) 713-7073, 715-6503
 - Web Site: www.census.gov.ph

□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 국가/ 품목(상품코드)별 수출입 통계 열람
 - 주소: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63-2) 890-4901 to 05
 - Fax: (63-2) 895-6487
 - Web Site: www.dti.gov.ph

□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BOI)

- 필리핀 내 투자에 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정보 열람
 - 주소: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1200 Makati, Metro Manila
 - Tel: (63-2) 890-9332, 895-3638, 897-5582
 - Fax: (63-2) 895-3512
 - Web Site: www.boi.gov.ph

□ 필리핀 경제지대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 경제특구 지역 내 투자정보 열람
 - 주소: 6th Fl, Almeda Building, Roxas Blvd Corner San Luis St, Pasay City
 - Tel: (63-2) 551-3454, 3455
 - Fax: (63-2) 891-6380
 - Web Site: www.peza.gov.ph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 환율 및 물가지수 열람
 - 주소: Central Bank Bldg, Apolinario Mabini St, cor. Vito Cruz St., Malate, Manila
 - Tel: (63-2) 524-7011~53
 - Fax: (63-2) 523-3461, 6210
 - Web Site: www.bsp.gov.ph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GDP 및 주요 경제 통계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Q
실질 GDP 성장률(%)	2.96	4.43	4.52	6.18	4.97	5.52
GDP(미\$ 10억)	72.0	78.0	79.6	86.7	98.4	26.4
GNP(미\$ 10억)	76.8	83.1	85.4	93.4	106.7	28.7
1인당 GDP(미\$)	905	970	977	1,038	1,153.8	305.3
1인당 GNP(미\$)	978	1,034	1,050	1,118	1,251.2	332.1
수출(미\$ 10억)	32.2	35.0	36.2	39.6	40.2	10.7
수입(미\$ 10억)	29.6	33.5	37.4	4.03	47.7	12.3
연평균환율(미\$: 페소)	50.9927	51.6036	54.2033	56.0399	55.0855	51.8843
소비자 물가 상승률 (%)	6.1	3.1	3.1	6.0	7.6	7.1 (1-6)
실업률(%)	11.1	11.4	11.4	11.8	8.7	8.1
산 업 구 조						
- 농수산업 (%)	14.9	14.7	14.5	15.2	14.3	
- 2차 산업 (%)	32.4	32.5	32.3	31.9	32.2	-
- 서비스업 (%)	52.6	52.8	53.2	52.9	53.4	
해외근로자송금액(미\$10억)	6.0	7.2	7.6	8.6	10.7	3.7 (1-4)
외채(미\$ 10억)	51.9	53.6	57.4	54.8	54.2	55.3
대외채무의 GDP비중(%)	72.9	69.8	72.5	63.7	55.1	53.9
원리금상환액 GDP비중(%)	9.11	9.9	9.98	8.32	7.64	7.35
- 이자상환비중(%)	3.98	3.3	3.16	2.73	2.70	-
- 원금상환비중(%)	5.13	6.5	6.82	5.59	4.94	-
외환보유고 (미\$ 10억)	15.7	16.4	17.1	16.2	18.5	20.6

자료원: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National Accounts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NEDA 문의 등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 (불변가격 GDP 기준 1985)

지 표	2006(전망)	2007(전망)
GDP 성장률(%)	6.3-7.3	6.5-7.5
*GDP(10억 페소)	5,656.4-5,922.3	6,262.7-6,682.1
*GNP(10억 페소)	6,157.0-6,385.9	6,763.4-7,142.2
*1인당 실질 GDP(페소)	14,228.6-14,615.5	14,805.4-15,350.6
*1인당 명목 GNP(페소)	63,375.4-66,355.0	68,565.3-73,156.5
수출(미\$ 10억)	52.3	58.2
수입(미\$ 10억)	58.5	65.3
연평균 환율(미\$: 페소)	55-57	55-57
소비자물가 상승률(%)	7.0	5.2
실업률(%)	11.6	11.1
*재정지출(10억 페소)	1,103.08	1,170.36
*재정적자(10억 페소)	161.77	127.00

자료원 : 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04-2010 (NEDA)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05

주: 미화(US\$) 대 페소(PHP)의 환율 전망치 유동성으로 인해 미화 대신 현지화인 페소로 기입

□ 물가지수

1998 - 2002년

지 표	1998	1999	2000	2001	2002
소비자물가지수 (1994=100)	136.9	146.0	152.8	161.6	166.6
도매물가지수 (1985=100)	240.9	255.1	259.1	265.6	275.2
물가상승률% (1994=100)	9.8	6.6	4.4	6.1	3.3
통화량(십억 페소)	1,144	1,365	1,427	1,525	1,670
주가지수 (PSE Composite Index)	1,968.8	2,171.6	1,541.7	1,331.9	1,204.9
연평균 환율 (Peso/US\$)	40.8931	39.0890	44.1938	50.9927	51.6036
연도 말 환율 (Peso/US\$)	39.0590	40.3130	49.9980	51.4040	53.0960
T-Bill Rate (91-day, %)	15.27	10.20	9.86	9.86	5.43

2003년 - 2005년

지 표	2003	2004	2005	2006 (1-6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171.7	120.6	129.8	138.1
도매물가지수 (1998=100)	268.6	144.4	159.9	-
물가상승률% (2000=100)	3.0	5.7	7.6	6.7
통화량(십억 페소)	1,724	1,883.7	2,052.5	*2,072.8
주가지수 (PSE Composite Index)	1,197.2	1,621.7	1,983.1	2,178.8
연평균 환율 (Peso/US\$)	54.2033	56.0399	55.0855	52.0494
연도 말 환율 (Peso/US\$)	55.5690	56.2670	53.6118	53.1567
T-Bill Rate (91-day, %)	6.03	7.34	6.36	5.19

자료원 : Economic Indicators (June 2006),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June 2006)

주1 : 통화량은 2006년 4월 M3 (Domestic Liquidity) 기준

주2 : 연도 말 환율과 연평균 환율은 6월 평균 환율임

노동 통계

지 표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고용인구 (천명, 15세 이상)	46,214	47,415	48,637	48,076	49,424	50,841	52,305	53,569
실업률 (%)	7.9	9.6	9.4	10.1	9.8	10.2	10.2	10.9
평균임금(일, 페소)	112.76	122.17	131.25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230.12	234.09
임금상승률	13.2	8.3	7.4	미발표	미발표	미발표	-	1.7
주당평균근로시간	42.2	41.8	41.6	42.7	40.9	40.8	41.1	4.12

주1 : 고용인구, 실업률은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주2 : 평균임금, 임금상승률은 1997-2002 ILO 통계, 2003-2005 필리핀 Current Labor Statistic (July 2006) 통계

주3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997은 ILO 통계 1998-2003은 필리핀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4 및 Gender Statistics on Labor and Employment 2005 통계

주4 : 2005년 1월 평균 임금은 240.95 페소/일 임

12. 무역통계

가. 주재국의 무역통계

주재국 무역수지 지표

(단위: US\$ 백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Q
자본수지(순)	-513	-206	663	115	-280	2,407	2,128
경상수지(순)	-2,225	-1,762	-351	282	1,626	2,354	1,166
무역수지	-5,971	-6,265	-5,530	-5,851	-5,684	-7,546	-1,569
수 출	37,347	31,313	34,403	35,339	38,794	40,231	10,691
수 입	43,318	37,578	39,933	41,190	44,478	47,777	12,260
외환보유고	15,063	15,692	15,365	17,063	16,228	18,494	20,645

자료원 :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June 2006)

주 : 경상, 무역수지: 2006년 3월 필리핀 중앙은행(BSP) 1999-2004년 무역, 경상수지 개정 발표

주재국 국가별 수출 통계

(단위: US\$ 백만, %)

국명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총액	36,231	100.0	39,598	100.0	41,255	100.0	26,678	100.0
일본	5,769	15.9	7,963	20.11	7,206	17.47	3,987	17.58
미국	7,254	20.0	7,079	17.88	7,383	17.90	3,999	17.63
네덜란드	2,922	8.1	3,582	9.05	4,033	9.77	2,593	11.43
홍콩	3,094	8.5	3,139	7.93	3,340	8.10	1,619	7014
중국	2,145	5.9	2,652	6.70	4,077	9.88	2,019	8.90
싱가포르	2,431	6.7	2,630	6.64	2,707	6.56	1,827	8.06
대만	2,492	6.7	2,188	5.53	1,888	4.58	886	3.91
말레이시아	2,463	6.8	2,062	5.21	2,459	5.96	1,245	5.49
독일	1,219	3.4	1,427	3.60	1,349	3.27	781	3.44
한국	1,314	3.6	1,113	2.81	1,391	3.37	701	3.09
태국	1,234	3.1	1,062	2.68	1,169	2.83	670	2.96
영국	695	1.9	555	1.40	436	1.06	244	0.99
호주	407	1.12	482	1.22	455	1.10	212	0.94
인도네시아	296	0.82	386	0.98	476	1.15	182	0.80
*아세안	6,581	18.2	6,839	17.27	7,150	17.33	4,104	18.10
* E U	5,880	16.2	6,502	16.42	7,001	16.97	4,382	19.32

자료원 : Bureau of Export Trade Promotion

주재국 국가별 수입 통계

(단위: US\$ 백만, %)

국명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입총액	37,497	100%	40,297	100.0	47,418	100.0	20,037	100.0
일본	7,641	20.4	7,445	18.48	8,071	17.02	2,751	13.73
미국	7,399	19.7	6,584	16.34	9,094	19.18	3,381	16.88
싱가포르	2,542	6.8	3,079	7.64	3,727	7.86	1,781	8.89
대만	1,861	5.0	2,942	7.30	3,549	7.48	1,588	7.92
중국	1,797	4.8	2,533	6.29	2,973	6.27	1,439	7.18
한국	2,401	6.4	2,482	6.16	2,294	4.84	1,181	5.9
홍콩	1,601	4.3	1,714	4.25	1,929	4.07	797	3.98
말레이시아	1,359	3.6	1,707	4.24	1,779	3.75	844	4.21
태국	1,361	3.6	1,508	3.74	1,583	3.34	754	3.76
사우디	1,198	3.2	1,274	3.16	2,182	4.60	1,156	5.77
독일	927	2.5	1,061	2.63	1,131	2.39	397	1.98
인도네시아	824	2.2	935	2.32	344	0.73	394	1.98
호주	492	1.3	578	1.44	531	1.12	226	1.13
영국	466	1.2	440	1.09	393	0.83	150	0.75
네덜란드	310	0.8	378	0.94	407	0.86	182	0.91
UAE	477	1.3	100	0.25	216	0.46	84	0.42
*아세안	6,398	17.1	7,675	19.05	8,874	18.71	4,104	20.48
* E U	3,016	8.0	3,298	8.18	3,727	7.86	1,608	8.03

필리핀의 품목별 수출 통계 (2002 - 2006 상반기)

(단위 : US\$ 백만, %)

구 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 출 총 액	36,231	100%	39,598	100%	41,255	100%	22,678	100%
1. 소비재	3,521	9.72	3,438	8.68	3,664	8.88	2,132	9.40
○ 의류	2,179	6.01	2,084	5.26	2,227	5.40	1,208	5.33
○ 가정용품	179	0.50	170	0.43	160	0.39	74	0.33
○ 기독교장식용품	55	0.15	56	0.14	56	0.14	21	0.09
○ 패션악세사리	240	0.67	215	0.54	226	0.55	128	0.57
- 피혁제품	141	0.39	112	0.28	96	0.23	57	0.25
· 여행용 가방	58	0.16	35	0.09	15	0.04	15	0.07
· 혁제비혁제장갑	68	0.19	66	0.17	68	0.17	30	0.13
○ 가구	278	0.77	294	0.74	304	0.74	144	0.74
○ 건축용 목재	103	0.28	92	0.23	107	0.26	229	1.01
○ 신발	46	0.13	35	0.09	26	0.06	14	0.06
○ 선물용품	75	0.21	83	0.21	88	0.21	41	0.18
○ 기타 소비재	350	0.97	390	0.98	451	1.09	263	1.16

- 종이 및 종이제품	70	0.19	77	0.19	106	0.26	58	0.26
- 의약품	22	0.06	27	0.07	29	0.07	14	0.06
- 의료용구	20	0.05	22	0.05	31	0.08	17	0.08
- 화장품미용용품	31	0.09	30	0.07	35	0.08	22	0.10
- 비누세제	24	0.07	31	0.08	29	0.07	18	0.08
- 스포츠용품	40	0.11	40	0.10	42	0.10	29	0.13
- 카메라 및 렌즈	77	0.21	101	0.25	113	0.27	64	0.28
2. 음식료품	1,566	4.32	1,579	3.99	1,651	4.00	872	3.84
○ 가공식품	708	1.98	737	1.86	832	2.02	434	1.91
- 낙농제품	61	0.17	75	0.19	83	0.20	45	0.20
- 음료	57	0.16	42	0.11	46	0.11	21	0.09
· 알콜음료	51	0.14	35	0.09	39	0.09	16	0.07
- 설탕및당분	70	0.19	80	0.20	81	0.20	61	0.27
- 너트, 코코넛제품	106	0.30	114	0.29	137	0.33	73	0.32
- 가공과일류	231	0.64	242	0.61	274	0.67	128	0.57
· 잼, 젤리, 마말레드	123	0.34	128	0.32	158	0.38	67	0.30
○ 신선식품	433	1.19	431	1.09	474	1.15	272	1.20
- 신선과일	404	1.11	400	1.01	436	1.06	253	1.12
- 신선채소	27	0.07	25	0.06	28	0.07	17	0.08
○ 수산물	425	1.17	411	1.04	345	0.84	166	0.73
- 참치	157	0.43	155	0.39	102	0.25	58	0.25
- 갑각류	163	0.45	150	0.38	140	0.34	63	0.28
· 새우	125	0.35	112	0.28	94	0.23	45	0.20
3. 자원재	2,201	6.07	2,509	6.34	2,885	6.99	1,987	8.76
○ 코코넛오일	505	1.39	578	1.46	578	1.46	316	1.39
○ 광산물	314	0.87	360	0.91	393	0.95	280	1.23
- 금, 동	117	0.32	49	0.12	50	0.12	77	0.34
- 니켈	28	0.08	51	0.13	69	0.17	37	0.16
○ 임산물	26	0.07	37	0.09	35	0.09	13	0.06
○ 담배	58	0.16	120	0.30	143	0.35	59	0.26
○ 해조류	33	0.09	36	0.09	28	0.07	16	0.07
○ 홍조류	47	0.13	54	0.14	43	0.11	23	0.10
○ 섬유사	237	0.65	228	0.58	247	0.60	119	0.52
○ 석유제품	505	1.39	406	1.03	705	1.71	491	2.17
○ 기타 자원재	438	1.21	636	1.61	579	1.40	644	2.84
- 천연고무	33	0.09	36	0.09	37	0.09	24	0.11
4. 산업재	27,059	74.68	30,325	76.58	31,536	76.44	16,693	73.61
○ 전자제품, 부품	24,168	66.71	26,646	67.29	27,299	66.17	14,196	62.60
- 반도체	17,017	46.97	18,647	47.09	20,207	48.98	10,899	48.06
- 데이터처리장치	5,660	15.62	6,175	15.59	5,504	13.34	2,503	11.03

- 사무용	184	0.51	209	0.53	195	0.47	122	0.54
- 계측제어기기	5	0.01	10	0.03	16	0.04	6	0.02
- 통신장비, 레이더	341	0.94	447	1.13	269	0.65	87	0.39
- 유무선전화	96	0.27	118	0.45	137	0.33	113	0.50
- 가전제품	536	1.48	612	1.55	567	1.37	245	1.08
○ - 기계및수송기계	1,840	5.08	2,373	5.99	2,602	6.31	1,225	5.40
- 기계장비류	97	0.27	118	0.30	101	0.25	57	0.25
- 금속제기계류부품	169	0.47	203	0.51	234	0.57	115	0.51
- 수송장비류	1,575	4.35	2,052	5.18	2,267	5.49	1,054	4.65
· 자동차	156	0.43	159	0.40	169	0.41	69	0.30
· 자동차부품	1,325	3.66	1,757	4.44	1,895	4.59	958	4.22
○ 금속제품	74	0.20	121	0.31	165	0.40	135	0.60
○ 건축자재	144	0.40	173	0.44	181	0.44	210	0.93
○ 화학제품	342	0.95	393	0.99	482	1.17	325	1.43
- 무기화학제품	29	0.08	19	0.05	49	0.12	89	0.39
- 비료	49	0.14	67	0.17	92	0.22	53	0.23
- 동물성화학품	87	0.24	105	0.27	113	0.27	56	0.25
- 석유화학제품	99	0.27	126	0.32	146	0.35	79	0.35
· 플라스틱중간재	99	0.27	126	0.32	146	0.35	79	0.35
○ 기타 산업재	489	1.35	619	1.56	807	1.96	601	2.65
- 포장제품	63	0.17	60	0.15	76	0.18	40	0.18
5. 특별거래	1,883	5.20	1,746	4.41	1,518	3.68	995	4.39

필리핀의 주요 품목별 수입 통계

(단위 : US\$ 백만, %)

구 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입 총액	37,497	100%	40,297	100%	47,418	100%	20,037	100%
1. 소비재	1,508	4.02	1,617	4.01	1,674	3.53	764	3.18
○ 의류	33	0.09	32	0.08	46	0.10	25	0.12
○ 가정용품	62	0.16	62	0.15	64	0.13	24	0.12
○ 완구, 인형	21	0.06	21	0.05	19	0.04	8	0.04
○ 패션 액세서리	48	0.13	57	0.14	66	0.14	29	0.15
- 모조 장신구	7	0.02	7	0.02	10	0.02	5	0.02
- 가죽제품	12	0.03	13	0.03	16	0.03	10	0.05
○ 가구	44	0.12	43	0.11	57	0.12	28	0.14
- 금속제 가구	5	0.01	6	0.01	7	0.02	4	0.02
- 가구 부품	18	0.05	14	0.04	23	0.05	13	0.07
- 목재 가구	15	0.04	17	0.04	18	0.04	7	0.04
○ 건축용 목재	5	0.01	4	0.01	3	0.01	2	0.01

○ 신발	56	0.15	42	0.10	43	0.09	20	0.10
- 비 혁제신발	29	0.08	19	0.05	24	0.05	10	0.05
○ 기타 소비재	1,230	3.28	1,350	3.35	1,369	2.89	626	3.12
- 인쇄출판자재	94	0.25	117	0.29	89	0.19	37	0.19
- 종이, 종이제품	371	0.99	388	0.96	399	0.84	187	0.93
- 의약품	396	1.06	426	1.06	463	0.98	214	1.07
- 의료용구	41	0.11	41	0.10	41	0.09	17	0.08
- 화장품, 미용용품	98	0.26	127	0.31	121	0.25	59	0.29
- 비누, 세제	47	0.12	70	0.17	67	0.14	29	0.14
- 스포츠용품	43	0.11	41	0.10	46	0.10	26	0.13
2. 식품, 조리품	2,163	5.77	2,409	5.98	2,686	5.66	1,286	6.42
○ 가공식품	1,368	3.65	1,617	4.01	1,608	3.39	748	3.73
- 낙농제품	425	1.14	547	1.36	480	1.01	217	1.08
- 씨리얼, 제분	102	0.27	116	0.29	113	0.24	47	0.24
- 가공채소	58	0.16	64	0.16	59	0.12	31	0.16
- 설탕, 당정	52	0.14	46	0.11	44	0.09	32	0.16
- 음료	152	0.41	150	0.37	148	0.31	59	0.30
· 비알콜음료	98	0.26	111	0.28	105	0.22	43	0.22
- 동물용사료	355	0.95	441	1.09	462	0.97	244	1.22
○ 신선식품	746	1.99	755	1.87	1,017	2.15	516	2.57
- 냉장육	109	0.29	143	0.36	140	0.29	58	0.29
- 씨리얼	561	1.50	558	1.38	800	1.69	428	2.13
- 과일	17	0.05	13	0.03	24	0.05	15	0.07
○ 해산물	49	0.13	37	0.09	61	0.13	22	0.11
3. 자원재	6,242	16.65	7,392	18.34	9,093	19.18	4,373	21.83
○ 코코넛 copra	4	0.01	18	0.04	13	0.03	2	0.01
○ 광산물	440	1.17	560	1.39	615	1.30	162	0.81
- 동광, 선광	271	0.72	370	0.92	423	0.89	84	0.42
○ 임산물	213	0.57	197	0.49	249	0.53	95	0.47
- 제재목(lumber)	96	0.25	82	0.20	109	0.23	40	0.20
- 합판	61	0.16	61	0.15	88	0.19	31	0.16
○ 담배	193	0.51	190	0.47	190	0.40	52	0.26
- 담배원료	87	0.23	166	0.41	180	0.38	48	0.24
- cigar, cigarette	96	0.26	22	0.05	8	0.02	2	0.01
○ 석유사	1,018	2.72	1,000	2.48	1,046	2.21	460	2.30
○ 석유제품	3,646	9.73	4,557	11.31	6,062	12.78	3,161	15.78
○ 기타자원재	647	1.73	780	1.94	839	1.77	401	2.00
- 천연유지, 왁스	151	0.40	207	0.51	261	0.55	111	0.56
- leatherhide, skin	31	0.08	31	0.08	35	0.07	14	0.07

4. 산업재	26,668	71.12	27,367	67.91	33,260	70.14	13	66.87
○ 전자제품	11,097	29.63	11,512	28.57	11,684	24.64	4,805	23.98
- 반도체, 부품	6,273	16.75	6,673	16.56	7,032	14.83	3,047	15.21
- 데이터처리장치	3,242	8.65	3,261	8.09	3,217	6.78	1,171	5.84
- 통신장비, 레이더	402	1.07	250	0.62	172	0.36	70	0.35
- 사무용전자	103	0.27	96	0.24	88	0.18	30	0.15
- 의료용산업용기기	25	0.07	33	0.08	36	0.08	28	0.14
- 계측제어기기	91	0.24	108	0.27	113	0.24	44	0.22
- 유무선전화	462	1.23	581	1.44	471	0.99	240	1.20
- 가전제품	487	1.30	500	1.24	544	1.15	173	0.86
○ 기계 및 부품류	3,096	8.26	3,115	7.73	3,678	7.76	1,478	7.38
- 기계, 장비	799	2.13	915	2.27	959	2.02	410	2.05
- 금속제기계부품	819	2.18	816	2.03	894	1.89	359	1.79
- 수송장비	1,478	3.94	1,383	3.43	1,825	3.85	709	3.54
· 자동차	230	0.61	231	0.57	308	0.65	154	0.77
· 자동차부품	763	2.04	641	1.59	671	1.42	253	1.26
.. 금속제차부품	685	1.83	565	1.40	591	1.25	217	1.08
· 오토바이부품	150	0.40	176	0.44	199	0.42	89	0.44
○ 금속제품	1,140	3.04	1,199	2.98	1,403	2.96	464	2.31
- 철강	859	2.29	919	2.28	1,088	2.29	318	1.59
○ 건축자재	548	1.46	652	1.62	662	1.40	300	1.50
- 금속제건축자재	468	1.25	570	1.41	552	1.16	248	1.24
○ 화학제품	2,205	5.88	2,419	6.00	2,496	5.26	1,091	5.45
- 유기화학품	286	0.76	314	0.78	328	0.69	129	0.64
- 무기화학품	198	0.53	224	0.56	289	0.61	139	0.69
- 비료	198	0.53	187	0.47	205	0.43	98	0.49
- 석유화학제품	919	2.45	1,037	2.57	1,040	2.19	460	2.30
· 플라스틱원료	542	1.45	606	1.50	581	1.23	264	1.32
· 플라스틱중간재	202	0.54	255	0.63	261	0.55	111	0.55
○ 기타산업제품	8,582	22.89	8,471	21.02	13,338	28.13	5,260	26.25
- 포장재	163	0.43	165	0.41	181	0.38	72	0.36
· 플라스틱포장재	92	0.24	93	0.23	102	0.22	42	0.21
5. 특별거래	915	2.44	724	1.64	704	1.46	214	1.07

자료원: Bureau of Export Trade Promotion(www.dti.gov.ph 에서 검색),
(금액 소숫점 첫 자리 반올림)

나. 한국과의 무역통계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 US\$ 천, %)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0	3,359,774	7.4	1,814,748	56.6
2001	2,535,383	-24.5	1,819,018	0.2
2002	2,950,038	16.4	1,867,351	2.7
2003	2,975,010	0.8	1,963,979	5.2
2004	3,379,196	13.6	2,119,961	7.9
2005	3,219,714	-4.7	2,316,036	9.3
2006. 1-7월	2,152,559	-	1,264,759	-

자료원 : 한국 관세청 (통관 기준)

한국과의 수출 무역통계

(단위 : US\$ 천, %)

순위 (2005년 기준)	품목명	2006		2006.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전자부품	1,243,515	0.6	869,529	41.2
2	광물성연료	335,542	-20.7	231,541	5.7
3	산업용전자제품	322,714	-22.4	198,976	12.8
4	직물	205,411	18.9	140,679	17.4
5	철강제품	179,868	0.1	91,864	-18.3
6	석유화학제품	156,172	-3.5	81,223	-14.2
7	비철금속제품	112,736	22.4	99,539	57.4
8	수송기계	89,651	-6.6	68,147	35.7
9	가정용전자제품	66,949	-3.	27,684	-26.4
10	정밀화학제품	62,579	-8.9	44,302	14.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과의 수입 무역통계

(단위 : US\$ 천, %)

순위 (2005년 기준)	품목명	2005		2006.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전자부품	1,161,249	-7.8	613,132	-14.5
2	산업용전자제품	344,411	53.6	138,981	-32.0
3	농산물	276,367	45.3	180,009	6.9
4	비철금속제품	218,028	35.8	152,132	14.7
5	충전기	93,065	47.0	72,233	48.6
6	수송기계	44,060	1,065.8	5,733	-20.6
7	가정용전자제품	23,282	-33.4	13,573	1.2
8	수산물	21,800	-22.4	13,472	21.2
9	정밀화학제품	19,915	15.5	9,793	-17.9
10	철강제품	18,453	-16.8	12,859	0.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13. 투자통계

가. 주재국의 투자 통계

< 주재국 투자수지 지표 >

필리핀은 대외투자가 매우 미미한 나라로, 대외투자 통계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 국제 수지표상의 자료를 인용함. 통계가 매년 발간 자료마다 상이하여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관련 세부 부문별/산업별 통계가 없어 전체 투자액만 표기함.

(단위: US\$ 백만)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3)
Direct Investment	-161	59	197	579	162	32
Portfolio Investment	383	449	1,458	862	1,153	397
Other Investment	13,893	13,165	-737	907	3,532	190

자료원: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Economic Indicators; July 2006,
(필리핀 중앙은행; 국제 수지표의 Financial Account 참고)

주: 각 'Assets, Residents' Investments Abroad' 항목

국가별 순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투자국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3
*총 계	1,293.32	447.09	1,290.09	116.67	451.48	813.18	48.33
미 국	155.43	154.93	391.67	12.24	118.70	259.17	51.94
일 본	107.35	133.84	738.39	40.28	43.59	38.21	14.37
홍 콩	45.34	1.31	3.61	7.64	1.63	258.05	-1.60
네덜란드	0.01	0.21	10.85	-10.25	-17.48	-0.05	0.38
영 국	510.77	8.80	1.26	3.10	1.98	3.41	0.61
호 주	0.02	4.50	0.32	9.65	1.54	0.20	0.22
캐나다	-0.04	-0.05	0.04	0.03	0.31	0.71	0.78
프랑스	59.64	95.10	0.33	0.12	0.67	1.52	0.07
독 일	0.36	0.93	0.52	-460.01	1.33	34.40	0.47
스웨덴	-	-	0.02	0.10	0.29	0.37	0.05
오스트리아	-	-	0.39	0.52	0.37	0.06	0.01
싱가포르	48.55	60.35	20.48	183.78	115.46	0.66	-34.26
덴마크	-	-	-0.19	0.09	0.30	0.21	0.50
룩셈부르크	-	-	0.18	0.08	0.11	0.03	0.01
말레이시아	15.16	2.20	-0.29	7.99	0.22	2.07	0.34
버뮤다	-	0.63	-	-	0.04	-	-
한 국	-	0.43	0.94	1.17	-0.13	0.02	-0.07
대 만	3.36	1.57	0.38	1.69	0.85	0.03	0.09
British Virgin ISLANDS	-	38.94	-	-	-	-	-
중 국	-	0.08	-	0.02	-0.18	-0.17	-
기타	347.37	-56.68	121.19	318.43	181.88	214.28	14.42

주 : 총계는 상기 통계표의 국 별 수치의 합계 금액임

자료원: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July 2006

업종별 순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업 종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2,106.73	1,398.20	857.87	1,431.42	1,488.18
금융업	258.28	483.91	476.38	153.03	530.54
제조업	1,049.16	171.67	262.87	943.10	215.20
광산업	27.33	239.47	66.21	114.55	138.78
도매/부동산	166.30	62.32	23.25	26.57	57.69
서비스	16.74	5.20	8.41	21.48	11.73
공공서비스	552.46	423.48	20.56	131.81	433.53
농림수산업	0.81	0.31	0.00	0.02	0.00
건축건설업	1.83	0.90	0.20	40.87	100.72
기 타	33.81	10.95	0.00	0.00	0.00

자료원 :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업 종	2004	2005	2006. 1-3
전 체	749.72	1,030.03	183.98
농림, 사냥, 삼림	0.00	0.18	0.00
수산업	0.00	0.00	0.01
광업, 채석업	0.22	0.35	0.57
제조업	83.63	491.34	13.40
전기, 가스, 수도	8.60	-1.61	-1.21
건설업	-15.25	-2.85	0.69
무역, 상업	18.56	3.58	0.50
호텔, 레스토랑	0.00	0.00	0.00
운수, 창고, 통신	1.60	-53.50	0.33
금융업(보험 포함)	6.77	21.14	-27.85
부동산	54.76	119.88	42.65
서비스	89.94	19.07	5.16
기타	500.89	432.45	149.73

주 : 2004년 통계부터는 업종분류 방식이 변경됨

자료원 : Selected Philippine Economic Indicators ; July 2006

나. 한국과의 투자통계

<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 통계 >

산업자원부 자료 기준(1977.1.1-2006.9.30)

구분	투자분야	투자건수(건)	투자금액(US\$천)
제조업	제조업 합계	15건	18,773
	섬유, 직물, 의복	3	132
	화공	6	5,008
	비금속광물	1	200
	전기, 전자	4	13,133
	기타 제조	1	300
서비스업	서비스업 합계	43건	103,517
	도·소매(유통)	27	31,267
	식품	2	15,000
	음식, 숙박	3	424
	운수, 창고(물류)	5	1,442
	통신	1	44
	부동산, 임대	2	55,000
	비즈니스서비스업	3	340
합 계		58건	122,290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투자 통계 >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 기준 (2006.6월말 누계)

분 야		신고	투자	회수*	순투자*
전체투자	건수(건)	1,007	770	63	612
	금액(US\$천)	1,239,833	779,574	198,700	518,660
농림어업	건수(건)	18	15	2	10
	금액(US\$천)	15,551	1,331	149	550
광업	건수(건)	11	8	0	5
	금액(US\$천)	14,174	3,219	0	3,107
제조업	건수(건)	738	539	53	458
	금액(US\$천)	773,748	561,251	183,963	350,020
건설업	건수(건)	54	41	5	26
	금액(US\$천)	115,988	37,636	13,698	22,959
도소매업	건수(건)	57	48	2	39
	금액(US\$천)	25,040	10,289	286	7,916
운수창고	건수(건)	31	26	0	17
	금액(US\$천)	63,915	4,220	0	1,809
통신업	건수(건)	4	4	0	3
	금액(US\$천)	25,018	22,692	0	21,960
숙박음식점업	건수(건)	28	27	0	18

	금액(US\$천)	67,754	27.582	0	4,839
서비스업	건수(건)	53	50	0	30
	금액(US\$천)	116,042	105,328	4	101,317
부동산	건수(건)	13	12	1	6
	금액(US\$천)	22.603	6.026	600	4,183

주 : 회수 및 순투자 통계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회수, 순투자 통계 서비스 중단으로 2005년 2월 누계 기준임.

- 필리핀 정부 자료 기준 (투자승인 기준) : 347 건 (최근 자료 미발표)
- 필리핀 투자청(BOI) 투자승인 건수 : 153건 (2004. 2월)
- 수출 가공지대 관리청(PEZA) 투자승인 : 171건 (2003. 12월)
- 수빅(Subic) 경제특구 관리청 투자승인 : 17건 (2004. 1월)
- 클락(Clark) 경제특구 관리청 투자승인 : 6건 (2004. 2월)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로 계절은 건기(11~4월/루손 섬 기준,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와 우기로 나누어짐. 연평균 강수량 2,030mm이며, 연평균기온 25도(24~31도), 습도 70~85%의 기후 특성을 보임.

나. 풍토병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말라리아(Palawan 섬), 뎅기열병, H-Fever, 해산물 특히 조개류에 의해 감염되며 치사율이 높은 레드타이드(Red Tide) 등이 있음.

다. 주요 지역의 기후

지역별 연평균 기온 (섭씨 기준)

구분	필리핀 평균	루손섬	비사야	민다나오
최고기온	33.0	33.0	33.3	33.7
최저기온	21.3	21.0	21.6	21.1

지역별 강수량(mm) 및 강우일

구분	필리핀	루손섬	비사야	민다나오
총강수량	36,284	11,823	12,454	12,007
총강우일	137	147	132	132

라. 출장 시 복장

하복정장 스타일이 가장 무난함. (날씨가 더워도 실내는 대부분 춥다고 느낄 정도로 냉방이 잘 되어 있음. 호텔이나 영화관, 쇼핑몰 등 실내에 들어가면 긴 소매 외투 필요) 현지 기후 상 양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양복 바지와 와이셔츠, 넥타이만으로도 정장으로 간주.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 1시간'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음.

나. 근무시간

- 일반 직장, 정부관공서의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8:00-17:00까지 임.
- 은행은 09:00-17:00까지 근무하나 실제 고객이 이용 가능한 시간은 15:00까지 임. 달러화를 인출할 경우에는 14:00에 업무가 종료됨.
- 일반상점은 10:00-20:00까지 영업함.
- 관공서, 은행, 국영 기업체 및 사무실 등은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공장은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전력요금 절약을 위해 2005년 4-5월 두 달간 정부 공무원 (민원부서 일부 제외)은 월-목까지 주4일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함)
-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가 보통임.
-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이 문을 열지 않는 날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음.
- 우기인 경우 집중호우가 있을 시 관공서, 사무실 등은 일찍 문을 닫고 직원들을 조기에 귀가 시키기도 함. 우리가 보기에는 과도한 폭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관공서가 문을 일찍 닫는 경우가 자주 있음. 메트로 마닐라 일대에 저지대 (특히 마닐라 지역)가 많고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일이 많아 퇴근길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잦기 때문임.

다. 회계연도

정부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3. 도량형

가. 도량형

미터법을 사용하며, 표현 시 T을 M/T(metric ton)로 kg을 nk(net kilogram)로 표현하는 점

이 우리나라와 다름. 현지에서 사용되는 net의 개념은 우리의 gross(total)과 같은 개념으로, 예로 호텔요금의 경우 식사비, 봉사료, 세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net price'라고 말함.

나. 전기규격

220V/110V 겸용이며 60Hz로 한국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플러그 모양이 다르므로 traveler's jack을 슈퍼마켓에서 구입, 끼워 넣으면 됨.

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컴퓨터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전압조정기(AVR)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갑작스런 전압 상승으로 인해 제품이 고장 나는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음. 특히 현지 생산품이 아닌 한국에서 가져온 제품, 특히 컴퓨터나 냉장고, 오디오 등 고급 가전제품은 반드시 AVR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AVR은 슈퍼마켓이나 하드웨어점에서 구입하면 됨.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방문기간이 21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해야 함.

체류기간 연장 시는 출입국 사무국(이민국)에 21일이 경과하기 전에 여권과 함께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6~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59일 이상) 등이 있음. 체류 예정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함.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이민국 통과 시 '21일' 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으므로 이민국 통과 시 스탬프를 찍어 주면 그 자리에서 59일짜리인지 확인하고, 만약 21일짜리로 되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받는 것이 좋음. 그러나 최근 들어 59일짜리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았더라도 입국 시 이민국에서 21일짜리로 여권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비자 기한은 이민국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 하더라도 정중하게 정정을 요청해야 함. 이민국 통과 시 이민국 직원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나 그 무례한 언행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로 인해 강제 출국 당한 사례 있음.)

비자 종류별 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gov.ph/faqs/visa.asp> 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비자 발급처

- 주한 필리핀 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dd : 34-44 Itaewon-1 dong, Yongsan gu, Seoul, Republic of Korea
 - Tel:(02)796-7387~9, Fax:(02)796-0827
 - Ambassador: Susan O. Castrence
 - 근무시간: 09:00-12:00 & 12:30-17:30(토요일 휴무)

- 필리핀 출입국 사무국 / Bureau of Immigration & Deportation
 - Add: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Tel: 527-3265 / 527-5371
 - 근무시간: 오전 8:00 - 정오 12:00, 오후 1:00 - 오후 5:00

다. 출입국 절차

1) 입국

입국 시에는 기내를 나서서 입국 심사대를 거쳐 수화물을 찾고 세관심사를 마친 후 공항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됨.

입국 심사 시는 외국인 전용 라인을 이용해야 하며 입국신고서와 함께 여권, 항공권을 제시 (무비자로 입국하는 21일 이하 체류 관광객의 경우는 출국용 항공권을 함께 제시)해야 함. 세관 심사 시는 세관신고서(대개 기내에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1-2개의 손가방만 휴대한 경우는 블루라인(Nothing to declare)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 (참고: 1인당 담배 2보루, 주류 2병은 면세). 블루라인을 통할 경우라도 세관원이 가방을 열어보라는 등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비지니스 출장으로 샘플이 과다할 경우 관세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카톤 박스에 샘플을 담아오는 경우 개봉요구 가능성이 많음), 목적, 용도 등을 자세히 조리 있게 설명하면 대개는 그냥 통과됨.

전시품의 경우라도 보세 통관이 허용되지 않음. 세금을 납부하고 입국했다라도 출국 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음.

세관심사 후 출입문 입구에서 공항직원이 수화물 번호와 해당 수화물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화물 번호표를 회수하므로 반드시 수화물표를 보관해두어야 함. (반복적인 확인으로 불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내 짐을 남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 생각하면 합당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수화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공항당국에 입국기편, 수화물 내용, 수령할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고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입국해야 함.

마중객은 공항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Terminal 2(필리핀항공 전용공항)에서는 공항 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앞에서 마중객들 만날 수 있으며, 공항 내 택시 서비스 티켓 발급소에서 승차권을 구입(거리 정액제)하여 택시에 탑승할 수 있음. Terminal 1(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외국항공 전부)에서는 공항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건너편에 택시회사 부스들이 있어 이곳에서 택시를 타면 되며, 마중객이 있는 경우 Waiting Area (A to Z)로 걸어 내려가야 만날 수 있음. 현지 여행사에서 마중 나오는 경우에도 이곳까지 내려와야 함.

마중객이나 여행사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곳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 전화로 연락할 수 있음. 참고로, 이곳에서 현지인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경우 실제 통화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므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는 편이 나음.

휴대전화로는 발신이 안 되는 공중전화도 많으나 공항 내에는 휴대전화로도 발신 가능한 전화기가 있음.

2) 출국

항공권이 없으면 공항 내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탑승 수속 시 환승객은 동행하지 못함. 공항 건물 진입 시 여권과 함께 항공권을 제시해야 함. 수화물의 X-RAY 투시기 통과 및 탑승객의 금속탐지기 통과 후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발송하고 항공기 탑승권 (보딩 패스)을 수령한 후 출국 심사장으로 진입하며 출국 심사 전 1인당 550페소(또는 미화 10~11불)의 공항 이용료를 납부한 후 출입국 심사대로 감. 출국 심사대에 출국 신고 서와 함께 여권, 탑승권, 공항 이용료 영수증을 제시 (59일 이상 체류한 여행자는 별도로 ECC 1,010페소를 납부하여야 함)

출국심사를 마치면 면세구역 내로 진입케 되며 이곳에서 탑승권에 명기되어 있는 탑승구 번호를 확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면 됨.

라. 예방접종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황열병 예방주사 접종 확인을 포함한 방역관계서류 제출이 요청됨.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 화폐단위는 페소(PES0)로서 약칭은 P이며 1페소는 100센타보임.
- 지폐는 1,000페소, 500페소, 100페소, 50페소, 20페소, 10페소가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10페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간혹 200페소 지폐도 볼 수 있음. 동전은 10페소, 5페소, 2페소, 1페소, 50센타보, 25센타보, 10센타보, 5센타보, 1센타보.
- 25센타보 미만의 동전은 통상 사용되지 않으며 거스름돈도 1페소 미만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나. 환율

- 최근 환율 (2006.8.29): US\$1.00=51.31페소
- 연도별 연평균 환율, 연말 환율 (페소/US\$)
 - 1999: 연평균 39.0890 / 연말 40.3130
 - 2000: 연평균 44.1938 / 연말 49.9980
 - 2001: 연평균 50.9927 / 연말 51.4040
 - 2002: 연평균 51.6036 / 연말 53.0960
 - 2003: 연평균 54.2033 / 연말 55.5690
 - 2004: 연평균 56.0399 / 연말 56.2670
 - 2005: 연평균 54.9853 / 연말 54.350
 - 2006 (1-7월): 평균 52.0993페소

자료원: Bangko Sentral ng Pilipinas (Philippine Central Bank); August 2006

다. 환전

- 호텔, 은행(여권 지참), 환전상이 산재해 있으며, 각각 환율이 다름. 대개 시중 사설 환전소의 환전율이 제일 높음. 환전소가 곳곳에 있는 이유는 해외파견 근로자(OFW)들의 달러화 송금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가족, 친척들이 수시로 환전을 하기 때문임. 최근 들어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환전소 이용객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바 환전소 이용 시 유의해야 함. 또한 환전 시 화폐를 순식간에 바꿔 치기 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운터에서 즉시 금액을 확인할 필요 있음. 출장자나 여행객 입장에서 환전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에서 환전하도록 권장함.
- 시간대 별로는 주로 목요일 중의 환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특히 주말이나 은행 근무시간이 끝난 오후의 환율은 낮은 편임.

6. 물가정보

□ 도시 : 마닐라(필리핀)			- 환율 : US\$1 = Peso52.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1,350	7.1	구두(1켤레, 소가죽)	127.84
1.2	넥타이(1개, 실크100%)	16.39	7.2	차약(150g, 1개)	1.31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38.4	7.3	칫솔(1개)	1.82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2.65	7.4	면도기(1세트)	1.37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030.34	7.5	건전지(1세트, 1.5V AA)	1.25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3.02	7.6	화장지(1통, 300매)	0.97
1.7	청바지(Levi's)	88.89	7.7	비누(1개)	0.72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2.42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39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2.56	8.2	볼펜(12개)	3.23
2.3	닭고기(1KG, 생닭)	2.05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04
2.4	쌀(1KG, Short Grain)	0.7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0.46
2.5	밀가루(1KG)	1.43	8.5	휴대폰(범용형)	104.25
2.6	설탕(1KG, 백설탕)	0.59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3.54
2.7	계란(10개)	0.79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45.72
2.8	감자(1KG, 현지산)	0.62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5.72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8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1,947.07
3.1	고추장(1Kg)	6.77	9.2	엔진오일(중급-1L)	5.12
3.2	된장(1Kg)	3.47	9.3	휘발유(Unleaded-1L)	0.81
3.3	라면(신라면-1개)	0.76	9.4	자동차등록비(2,000cc)	36.58
3.4	설령탕류 (1인분, 설령탕, 곰탕 등)	4.52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035.98
3.5	불고기(1인분, 200g)	4.32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4.32	10.1	지하철(1구간)	0.23
3.7	김치찌개(1인분)	4.1	10.2	시내버스(1구간)	0.19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58
4.1	햄버거(1개)	1.5	10.4	택시(추가요금/Km)	0.05
4.2	피자(1판)	6.13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38	11.1	전화 개통비(PLDT 기준) (1회선, 가입비, 장치비포함)	14.97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19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3.72
4.5	담배(수입산, 1갑)	1.5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03
4.6	위스키(1병, 750ml)	21.95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05
4.7	커피(1병, 175g)	7.04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22.58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18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823.02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37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188.8	11.8	특급우편(서류) (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20.45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 (1KW/h, 가정용)-마닐라	0.15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 (1㎡, 가정용)-마닐라	0.88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
6.1	TV(29인치, 칼라, 범용)	475.43			
6.2	VTR(6헤드, 범용)	73.16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07.79			
6.4	전자레인지	57.66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2,101.43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46.22			

□ 도시 : 마닐라(필리핀)			- 환율 : US\$1 = Peso52.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6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02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2,90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5,000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0.16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9,98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1,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3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3,510	18.6	연간국경일	10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9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30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2,286.15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31.9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385.63	19.1	법정최저자금	1,828.92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0.88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65.78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2.50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32%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32%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2,010.52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2~16%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0.97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 1회)	18.29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3.66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 유력지)	10.36			
15.2	한국신문(1개월)	38.39			
15.3	케이블TV (1개월, 기본시청료)-Destiny	9.6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2.11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7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5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8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5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6.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5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4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380			

7. 교통/통신

가. 한국-필리핀 직항편

비행기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가량 소요되며, 시간표(2006년 8월 기준)는 아래와 같음.

1) 인천 → 마닐라

- 대한 항공 : 20:10-22:50 (월화수금토일)
- 아시아나 항공 : 09:00-11:50 (매일), 19:45-22:50 (월수금일)
- 필리핀 항공 : 20:20-23:20 (매일)
- 세부퍼시픽 항공 : 21:20-00:20 + 1day (월화금토)

2) 마닐라 -> 인천

- 대한 항공 : 12:10-16:50 (매일), 00:10-04:50 (월화수목토일)
- 아시아나 항공 : 13:00-18:00 (매일), 23:50-04:40 + 1day (월수금일)
- 필리핀 항공 : 14:15-19:15 (매일)
- 세부퍼시픽 항공 : 15:05-20:05 (월화금토)

3) 인천 -> 클라크

- 아시아나 항공 : 20:45-23:40 (화수금토일)

4) 클라크 -> 인천

- 아시아나 항공 : 01:00-06:00 (월수목토일)

5) 부산 -> 마닐라

- 아시아나 항공 : 21:00-23:40 (화목금일)
- 필리핀 항공 : 19:45-22:30 (월수목금토일)

6) 마닐라 -> 부산

- 아시아나 항공 : 04:00-08:30 (월수금토)
- 필리핀 항공 : 14:00-18:45 (월수목금토일)

7) 인천 -> 세부

- 아시아나 항공 : 20:20-23:50 (수목토일)
- 필리핀 항공 : 21:45-01:10 + 1day (수목토일)

8) 세부 -> 인천

- 아시아나 항공 : 00:50-06:20 (월목금일)
- 필리핀 항공 : 15:20-20:45 (수목토일)

나. 국내교통

교통수단의 노후화, 더운 열대기후, 대중교통 수단 미 발달, 치안 불안 등의 이유로 외국인, 특히 비즈니스맨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 및 비행기로 한정되어 있음. 특히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간 이동 시 내국인은 배를 주로 이용하며 안전이나 시간 면에서 외국인 및 상류층은 비행기를 이용함.

장기노선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역내 짧은 거리는 지프니(JEEPNEY)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음, 지프니는 냉방시설이 없으며, 버스도 냉방시설이 없는 것이 많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안전문제를 감안, 이용할 만한 교통 수단은 택시 및 에어컨 버스 정도이며 택시의 경우도 가능하면 호텔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외부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호텔 벨보이에게 차량번호를 인지토록 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함.

1) 택시

외국인 방문객이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피하려면 입국 시 공항건물 바깥에서 탑승 쿠폰을 구입하여 쿠폰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 (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상이하나 메트로마닐라의 ‘마카티 시’ 까지의 요금은 500페소 정도임.)

2) 교통 수단 별 요금

- 택시
 - 기본요금 30.0페소 + 2.50페소/200미터
 - 택시요금 계산시 미터기에 나온 금액을 지불해야 함.
- 지프니 : 7.5 페소 (기본 3KM) + 0.50 또는 1페소 (추가KM당)
- 에어컨 버스 - 10페소/ZONE
- 버스요금은 버스회사 및 노선에 따라 다름.
- 경전철(기본요금) : LRT - 12페소/ONE WAY, MRT - 9.5페소/ONE WAY

다. 국제 통신

근래 들어 사정이 많이 좋아졌으나 시설의 낙후로 잘못 연결되거나 회선의 부족으로 ‘통화중’ 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잦음.

특히 우기에는 침수 등으로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가 많으며 간혹 전화번호를 올바르게 돌려도 "The Number you dialed is not yet in service" 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Sorry, the line is busy now" 라는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잦음.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도중에 통화가 끊기거나 상당기간 불통이 되는 경우도 빈발.

1) 한국과의 통화방법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의 통화

- 국가번호 63--->지역번호(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2)--->가입자번호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통화 시에는 필리핀 국가번호 63, 지역번호(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2), 가입자 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름
- 휴대전화로 걸 때는 국가번호(63)→휴대전화 사업자번호(앞의 0을 빼고 916, 917, 919, 927 등)→가입자 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름.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

- 국제전화 접속번호 00 ---> 국가번호 82 ---> 지역번호(서울일 경우 2) ---> 가입자 전화번호 순으로 다이얼을 누름
- 단 국제전화는 국제통화가 허용된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함
- 시간대 별로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통화가 용이한 반면 근무 시간대 및 저녁 시간대에는 체증이 심함.
- 필리핀 교환을 통한 국제전화 신청 시는 108을 다이얼링

□ 한국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통화(COLLECT CALL)

- 10582(한국통신), 10587(데이콤 안내), 105087(데이콤 직통), 105823(온세통신) 등을 다이얼링
- 호텔에서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통화를 하려면 0번을 눌러 교환을 부른 다음 교환원에게 10582 또는 10587 등의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 됨.

라. 국내 통신

공중전화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시내 거리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커머셜 센터 같은 공공장소 등 매우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되어 있음. 지방에서는 전화사무소를 찾아 신청 후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카드 전화기는 공항 내 및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음. 유선전화 보급률이 2004년에는 100명당 7.8대 수준으로 매우 낮음. 총 보급회선은 647만 회선이나 전체 가입자는 344만 회선임.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집에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화가 있는 이웃집을 통해 전갈을 받는 경우도 많음.

휴대전화 보급률이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는 3천 5백만여명(필리핀 국가 통신위원회 자료)이며 선불카드가 널리 사용됨. 휴대전화 단말기는 저가 보급형이 주류.

8. 호텔/식당

가. 호 텔

필리핀 관광부는 176개 호텔, 60개 Inn, 11개 Apartel 및 113개의 리조트에 총 18,92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편이 저렴함. 다만, 호텔측에서 이따금 과도하게 예약을 받아놓은 경우에는 호텔에 투숙하려는 시점에서 객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성수기나 행사가 몰려있어 수요자가 많은 경우에 여행사를 통해 예약 하려면 객실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특급 호텔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 19개 정도가 있으며 WALK-IN GUEST의 경우 보통 싱글 US\$ 135 - US\$ 250, 더블/트윈 US\$ 280 - US\$ 330 (서비스 료와 세금제외) 수준.

2) 1급 호텔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 16개 정도가 있으며 WALK-IN GUEST의 경우 싱글 US\$ 60 - US\$ 150, 더블/트윈 US\$ 70 - US\$ 160 (서비스 료와 세금제외) 수준.

3) 기타

기타 메트로마닐라 지역에는 70개의 STANDARD 호텔과 70개의 Economic호텔이 있으며 그밖에 장기체류자를 위한 아파트 형태의 호텔인 아파텔 및 Pension하우스 등이 있음.

그 외 현지 교민들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기거하는 경우 한국식 식사(아침, 저녁)와 의복 세탁까지 해주는 곳들이 있으므로 장기 투숙자는 이용할 만 할 것임. 하숙집은 현지 교민 신문들에 광고가 게재되며, 교민신문들은 인근 한국 식당이나 한국 식품점들에서 입수할 수 있음. 교민지에는 현지 한국계 여행사 광고 등 각종 영업점 광고가 게재됨.

주요 호텔 객실요금 (할인 전 정상요금)

(단위: US\$)

호텔명	SINGLE ROOM	DOUBLE/TWIN	전화번호
Shangri-la Makati	197.39	228.04	813-8888
Inter-Continental	150	150	815-9711
Peninsula	116.14	141	810-3456
Mandarin Oriental	194.93	182.67	750-8888
New World Renaissance	120	120	811-6888
Shangri-la EDSA	158	184	633-8888
Diamond	110	110	528-3000
Westin Phil. Plaza	151	151	551-5555
Hyatt Regency	86	86	833-1234
Manila Hotel	101	101	527-0011
Dusit Hotel Nikko	125	125	867-3333
Trader's Hotel	159	183.13	523-7011
Manila Pavilion	89.76	89.76	526-1212

주: 1. 상기 요금에 10% 서비스료와 12%의 부가세가 추가 됨.

2. 상담장 임차 시에는 가능한 2개월 이전에 예약을 완료해야 함.

한인운영 숙박시설

업소명	전화	소재지
서울 호텔	2)890-1830	Makati City
오가 호텔	2)890-2052	Makati City
코리아비즈니스호텔	2)890-7793	Makati City

주 : 요금은 1박 3식 세탁포함 1인당 40-50불 수준임.

나. 식 당

1) 필리핀의 전통 음식

- 크리스피파타(Crispy Pata) : 돼지족발 튀김요리
- 카레카레(Kare-kare) : 소꼬리 요리
- 아도보(Adobo) :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식초에 버무려 삶은 요리
- 라뿌라뿌(Lapu-lapu) : 필리핀의 상징적인 생선, 요리방법은 다양
- 레촌(Lechon) : 통돼지를 장작불에 돌려 구워서 기름을 뺀 것
- 포크 리열뵈 (Pork Liempo) : 두껍게 썰어 팬에 구운 돼지 삼겹살 요리
- 알리망고 : 검은 녹색을 띠고 있는 게. 삶아서 요리하는 것이 대부분
- 시니강 : 야채와 돼지고기나 생선 등을 이용해서 요리한 시큼한 맛을 가진 국
- 칼라만시(Calamansi)주스 : 레몬 비슷한 과일주스. 신맛. 비타민C 풍부

2) 메트로 마닐라의 식당

호텔이 몰려있는 메트로 마닐라 일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식당이 산재해 있음. 필리핀 식 전통 식당 이외에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및 유럽식 요리 등을 하는 식당들이 많음.

현지 교민지에 광고가 게재된 한국식당 수는 마닐라 지역 23개, 마카티 29개, 파식/ 만달루 용 지역에 9개, 그린힐 1개, 퀘존 18개, 파라냐케/알라방 지역 11개, 파사이 6개, 수빅/ 앙헬레스 3개, 라구나 1개, 보라카이 11개, 세부 16개, 다바오 3개, 바기오 3개 등 총 145 곳이며,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소규모 식당들도 있음. 광고를 게재한 식당들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만 해도 100여 개에 달함.

패스트푸드는 맥도널드, 웬디스, KFC 등 서구 브랜드도 있지만 '졸리비(Jollibee)'라는 필리핀 고유 브랜드가 사랑 받고 있음.

3) 메트로 마닐라 소재 가 볼만한 식당

- 한국식당 (마카티 소재)
 - 가야 (KAYA) : 895-0404
 - 한국관 (KOREA GARDEN RESTAURANT) : 895-5443
 - 마산가든 (MASAN GARDEN) : 896-9395, 896-5094
 - 부마(해산물) : 897-1011
 - 동원가든(한식) : 898-3558
- 일 식 (마카티 소재)
 - Furusato : 523-0476
 - Inagiku : 813-8888 (local: 7842) (마카티 상그릴라 호텔 내)
 - Tsukiji : 843-4285
- 중국식
 - Shang Palace : 813-8888 (마카티 상그릴라 호텔 내)
 - Tin Hau : 750-8888 (만다린 호텔 내)
 - Dragon Gate : 404-2853 (파사이 소재)

- 필리핀식
 - IHAW-IHAW (Singing Cooks & Waiters): 832-5579
 - Gery's Grill : 897-9862, 9698 (마카티 소재) (저렴함)
 - Harbor View : 524-1532 (마닐라 베이 소재) (해산물)
- 스페인식 (마카티 소재)
 - Via Mare (seafood specialty restaurant) : 815-1918

9. 관공서 관행

가. 민원 처리 기간

서구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인정주의가 혼재해 있으나 전반적으로 후진국형 색채가 강하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불만임. 개인적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느낌을 주나 일부 통제성 기관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느리며 무뚝뚝한 인상을 줌.

현지인들의 느긋한 성격 때문인지 관공서의 일처리가 상당히 느림. 일례로 정부 공사에 들어가는 제품을 소개하는 자료를 공문과 함께 발송해본 바, 내부 검토를 거쳐 회신이 돌아 오는데 거의 두 달이 소요된 일도 있음. 어떤 통관대행업자는 한 건의 물품 수입을 위해 68명의 담당자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다소간의 비공식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현지 투자업체 일부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식으로 관공서의 업무처리를 혹평하고 있는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단계별 사례금 지급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다고 함.

나. 관공서 방문 시 유의 사항

외국인에 대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필리핀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나 발언은 절대 금물.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을 비하하는 행동을 한 일들이 현지 언론에 자주 보도된 바 현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정중하게 행동할 필요 있음.

한국인이 공항 입국 시 이민국 직원과 시비를 벌여 강제 출국된 사례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관광객이 큰 소리로 웃음에 따라 시비를 벌인 사람과 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 출국 당한 사례가 있는 바, 현지인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도록 행동하지 말아야 함.

10. 공휴일

□ 2006년도 공휴일

- 1/1 (일) New Year 's Day (신정)
- 2/25(토) EDSA Revolution Day (EDSA 혁명일)
- 4/9 (일) Bataan Day (Veteran's Day; 참전용사의 날)
- 4/13(목) Holy Thursday (성목요일 ; 부활절 첫날)
- 4/14(금) Good Friday (성금요일)
- 4/15(토)-16(일) 부활절 주말
- 5/1 (월) Labor Day (노동절)
- 6/12 (월)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 8/21 (월) Ninoy Aquino Day (니노이아키노 상원의원 서거 기념일)
- 8/27 (일) National Heroes' Day (국가영웅의 날)
- 10/23(월)-24(화) Eidul Fitre (Feast of Ramadhan) (라마단 축일)
- 11/1 (수) All Saints Day (성인의 날)
- 11/30(목) Bonifacio's Day (보니파시오의 날)
- 12/25(월) Christmas Day (성탄절)
- 12/30(토) Rizal Day (리잘기념일)
- 12/31(일) New Year's Eve (송년일)

필리핀인들의 휴가철인 부활절 전후 기간(2006년의 경우 3월 19-27일), 크리스마스 휴가철인 12월-1월초에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중역들이 휴가를 실시중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어려움. 상담의 경우 월요일에는 각 기업들의 회의가 많아 바쁜데다 주말을 지나면서 약속을 잊어 버릴 수가 있으며, 금요일은 업무정리와 교통체증 등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담 일자는 될 수 있으면 월요일과 금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음.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있는 샌드위치 데이인 경우 특별공휴일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시 사전 점검이 필요함. 다만, 해당 공휴일에 임박하여 공휴일 변경을 선포하므로 최소 일주일 전에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대개 3-4일 전에 변경사항을 발표함. 따라서 사전에 출장을 계획할 때는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주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5년의 경우 6월 12일 독립기념일이 일요일과 겹치자 13일(월) 휴무를 6월 10일(금)저녁에 발표한 바 있음.)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의복은 한국의 여름을 생각하면 됨. 그러나 쇼핑몰, 호텔, 극장 등 건물 내부에서는 냉방으로 인해 추울 수 있으므로 겉옷이 필요함. 비즈니스 면담 시에는 양복을 입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복장상의 유의사항은 없음.

진통제, 소화제 등 기초 응급약품은 휴대하여 다니는 것이 좋음. 약국이 문을 일찍 닫고 기초 의약품 외 항생제 등은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

전기규격은 220V, 60HZ로 한국 가전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플러그 모양이 다르나 이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TRAVELER' S JACK' 을 사서 연결하면 됨.

나. 여행여건

1) 치안

과거에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특히 마카티 시내는 치안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들어 강도, 납치 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대도시에서 한낮에도 방심을 해서는 안됨. 서민들의 대중교통인 지프니에서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강도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음. 특히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는 일을 삼가해야 함. 과다한 현금 보유,

귀중품이나 보석류 소지 및 화려한 옷차림도 자제하는 것이 좋음. 특히 현지인에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음.

현지인들이 흥기(총기 등)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음. 공항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나 임신부 등이 길을 묻는 등 접근하여 관심을 끈 후 일행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에서 서류가방을 들고 사업가나 회사원으로 위장한 채 말을 걸어(한국어 사용) 유인한 후 강력한 수면제가 든 음료 등을 권하여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으면 돈을 빼앗는 사례가 자주 있는 바, ‘현지인이건 한국인이건 낯선 이의 친절 한 접근을 경계’ 해야 함. 마중객이 나오기로 미리 약속된 경우가 아닌데 누군가 마중을 나와 있다면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공항택시로 이동하시기 바람.

시내에서 환전소를 이용하게 되면 표적이 되기 쉬우니 환전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환율이 약간 불리하더라도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특히 달러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음을 주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안전함.

외국인 납치가 빈번한 민다나오 섬 근처의 회교 자치구역은 특히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민다나오섬 전역, 술루(Sulu), 바실란(Basilan) 및 팔라완 (Palawan)의 Puerto Princesa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여행경고 지역’으로 경보를 발령한 상태이므로 이 지역들에 대한 여행 필요 시 대사관에 사전 연락을 하기 바람. 그 외 현지인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해서 현지인을 자극하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현지인과의 마찰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2) 교통

수도권은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함. 일반택시를 이용할 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등 가격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탑승 시 미터기 사용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하차 시 미터기에 나타난 금액을 지불하면 됨. 여자인 경우 혼자 일반택시를 가급적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남자들의 경우에도 호텔택시가 요금이 비싸더라도 친절하고 가격시비가 없고 안전함. 호텔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의 2배정도인데 HOTEL BELL BOY가 사전에 요금을 알려줌. 지프나 버스는 탑승 시는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3) 전화

공중전화 요금은 시내통화의 경우 3페소(1페소 COIN사용)이며 시내에 있는 대부분 공중전화 기에서는 휴대전화로는 발신이 되지 않음. 공항 내 전화에서는 휴대전화로 발신 가능한 전화 기들이 설치되어 있음.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됨.

서울로 전화를 희망하는 경우 '00-82-2-서울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필리핀 교환을 통한 국제전화 신청 시는 108을, 수신자 부담 전화 (한국 교환)는 10582 (한국통신), 10587 (데이콤), 105087 (데이콤 수신자 부담 직통전화), 10583 (온세 통신)을 이용하면 됨. 호텔에서는 0번을 누르고 교환원에게 수신자부담 전화번호(10587 등)를 연결해달라고 하면 됨.

4) 팁

호텔 내 식당에는 10%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식사비용이 청구되므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20-100페소 정도를 주기도 함. 호텔 외 식당에서 식사 할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20페소 정도의 팁을 주면 됨. 공항이나 호텔포터는 포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20-30페소 정도의 팁이 적당함. 호텔 객실에는 매일 20-30페소 정도 팁을 주는 것이 좋음.

다. 쇼핑

1) 물가

필리핀의 수도권은 서울 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소득에 비해 물가수준이 높음.

2) 쇼핑장소

필리핀 대도시는 대형 쇼핑몰이 매우 많아, 쇼핑 시 가까운 쇼핑몰을 이용하면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쇼핑몰에는 극장, 볼링장 등 여가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음.

12. 유용한 연락처

가. 알아두면 유용한 비상연락처

- 화재신고
 - 911, 16016
- 응급환자(앰블런스 호출)
 - 117
- 한국병원
 - 02)303-6700
- 전화고장신고
 - 173
- PLDT 전화번호 안내
 - 187
- 경찰구조요청
 - 166
- 대사관 긴급전화(사건사고발생신고)
 - 0917-817-5703

나. 의료기관

- Capitol Medical Center
 - 02)372-3825
- Our Lady of Lourdes Hospital
 - 02)716-3901

- Makati Medical Center
 - 02)888-8999
- Manila Doctor's Hospital
 - 02)524-3011
- Medical City General Hospital
 - 02)635-6789
- Phil. Heart Center for Asia
 - 02)925-2401
- St.Luke's Medical Center
 - 02)723-0301

다. 현지 관공서

-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 02)524-7011/53
-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 02)928-7031/39
- DEPARTMENT OF AGRICULTURE (DA)
 - 02)928-8741/65
- DEPT.OF BUDGET AND MANAGEMENT (DBM)
 - 02)735-4847, 4926
- DEPT.OF EDUCATION,CULTURE & SPORTS (DECS)
 - 02)632-1361 to 70
- DEPARTMENT OF ENERGY (DOE)
 - 02)840-1401 to 21
- DEPT. OF ENVIROM'T & NATURAL RESOUR'S (DENR)
 - 02)929-6633 to 35
- DEPARTMENT OF FINANCE (DOF)
 - 02)524-7011 to 53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
 - 02)834-4000 / 834-3333
- DEPARTMENT OF HEALTH(DOH)
 - 02)743-8301/23

- DEPT. OF INTERIOR & LOCAL GOV'T.(DILG)
 - 02)925-0320/23
- DEPARTMENT OF JUSTICE (DOJ)
 - 02)523-8481/98
- DEPARTMENT OF LABOR & EMPLOYMENT (DOLE)
 - 02)527-2116 / 527-2121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 02)911-6001/31
- DEP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 02)304-3000 / 304-3280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 (DOST)
 - 02)837-2071/82
- DEPT. OF SOCIAL WELFARE & DEVT. (DSWD)
 - 02)931-8101/7
- DEPARTMENT OF TOURISM (DOT)
 - 02)523-8411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DTI)
 - 02)890-4901 to 05
- BOARD OF INVESTMENTS (BOI)
 - 02)890-9332
- DEPT. OF TRANSPORTATION & COMM.(DOTC)
 - 02)727-7960~79
- NATIONAL ECONOMIC DEVT. AUTHORITY (NEDA)
 - 02)631-0945

라. 필리핀 주요 은행

- Allied Banking Corp.
 - 02)816-3311
- Asian Development Bank (ADB)
 - 02)636-8008
- Banco De Oro Universal Bank
 - 02)636-6060

- China Banking Corporation
 - 02)242-5601
-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 02)811-5407
- Development Bank of the Phils.
 - 02)818-9511
- Far East Bank & Trust Co.
 - 02)845-9888
- ING Bank N.V.
 - 02)840-8888
-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 02)522-0000 / 551-2200
- Metropolitan Bank & Trust Co.
 - 02)898-8000
- Phil. Bank of Communications
 - 02)637-1717
- PCI/Equitable Banking Corp.
 - 02)840-7000
- Philippine National Bank
 - 02)891-6040
- Prudential Bank - Under BPI
 - 02)889-2479
-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 02)894-9000
- Security Bank Corporation
 - 02)867-6788
- Union Bank of the Phils.
 - 02)830-2361
- United Coconut Planters Bank
 - 02)811-9000

마. 외국계 은행

- Australia & New Zealand Banking Corp.
- 02)818-8117
- Bank of America NT & SA
- 02)815-5000
- China Trust (Phils) Commercial Bank
- 02)848-6818
- Citibank
- 02)995-9999
- Dao Heng Bank
- 02)812-7054
- Deutsche Bank AG
- 02)894-6900
- HK & Shanghai Banking Corp.
- 02)830-5300 / 878-7878
-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 02)811-5683
- ING Bank
- 02)840-8888
- Korea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
- 02)848-1988
- Standard Chartered Bank
- 02)886-7888
- Orion Bank (동양오리온은행)
- 02)845-3817, 3838

바. 경제단체

- Confederation of Philippine Exporters
- 02)833-2531 to 34 (마닐라)
- 032)254-4333 (세부)
- Employers 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 02)816-3813

-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 02)722-3409
- Makati Business Club
 - 02)751-1137, 8
-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02)844-3290, 3250
- Federation of Filipino Chin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FCCCI)
 - 02)242-6289

사. 한국기관

- 대사관 : 정무,경제,공보
 - ADD : 10TH FL.,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CITY
 - TEL : 632)811-6139,6145/6
 - FAX : 632)811-6148
- 대사관 : 영사과
 - ADD : 18TH FL.,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 TEL : 632)811-8260/2
 - FAX : 632)811-8258/9
- 마닐라 무역관 (Korea Trade Center, Manila) (KOTRA)
 - ADD : UNIT 1002, 10/F., AYALA LIFE-FGU CENTER, 6811 AYALA AVE., MAKATI
 - TEL : 632)893-1183, 3244
 - FAX : 632)817-3369
- 한인회
 - ADD : 1104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MAKATI
 - TEL : 632)887-4967, 2422
 - FAX : 886-7997
- 한국외환은행 (위에 있음)
 - ADD : 33TH FL., CITIBANK TOWER 8741 PASEO DE ROXAS, MAKATI
 - TEL : 632)848-1988
 - FAX : 632)818-0074,819-5377
- 동양 오리온 은행 (위에 있음)
 - ADD : GROUND FL., CHATHAM HOUSE 116, HERRERA ST., SALCEDO, MAKATI
 - TEL : 632)845-3838, 845-3822/30
 - FAX : 632)845-3840/42

○ 대한 항공

- ADD : GROUND FL., LPL PLAZA, 128 ALFARO ST., SALCEDO VILLAGE, MAKATI
- TEL : 632)815-9265/6
- FAX : 632)815-0737

○ 아시아나 항공

- ADD : 6/F., SALCEDO TOWERS, 169 H.V. DELA COSTA STREET, SALCEDO, MAKATI
- TEL : 63-2)892-5688
- FAX : 63-2)892-5701

아. 외국 항공사

- 필리핀 항공(국제선) : 855-8888, 831-8370
- 에어 필리핀(국내선) : 851-5258
- 타이 항공 : 812-4744
- 노스웨스트 : 841-8800
- 세부퍼시픽 : 702-0888
- 퍼시픽에어 : 853-8394

13. 관광명소**가. 시내 관광명소****1) 리잘공원 / Rizal Park**

마닐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인 호세리잘(Jose Rizal)이 1896년 12월 30일 처형된 장소를 기리는 비석도 세워져 있음. 주말에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산책장소로도 널리 애용됨.

2) 말라카냥 궁 / Malacanang Palace

필리핀 대통령의 관저로서 일부 공간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어 일반인에게도 공개됨.

3) 아얌라 거리 / Ayala Ave.

상업, 금융 도시인 마카티(Makati City)의 중심도로로서 필리핀의 Wall Street라 할 정도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들어서 있음.

4) 차이나타운 / China Town

중국계 필리핀인들의 집중 주거지역으로서 각종 약품판매점, 귀금속점, 중국식당, 중국제 과점들이 많음.

나. 메트로 마닐라 외의 관광명소

1) 이푸가오 라이스 테라스/ Ifugao Rice Terraces

산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쌀 경작지(논)로서 루손섬 북부인 Mountain주에 위치.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함.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2) 보라카이/ Boracay

필리핀 중부 파나이 섬 북서단에 있는 작은 섬으로 세계 3대 해변으로 선정될 정도로 하얀 모래, 수정 같은 바닷물을 자랑함.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함.

3) 바기오/ Baguio

필리핀 루손섬 북쪽에 있으며 필리핀의 여름수도로 애기될 정도로 날씨가 선선하여 특히 여름에는 피서객,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임. 비행기를 타면 40분 정도, 자동차로는 6-8시간 소요.

4) 세부/ Cebu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남국의 여왕(Queen City of the South)으로 불리고 있으며 비사야 제도의 중심지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함.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함.

5) 초콜릿 힐/ Chocolate Hills

비사야스 지방의 보홀섬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 40미터 정도의 원추형 구릉이 1,000여개 정도가 잇따라 있어 불가사의한 풍경이 됨. 우기에는 풀로 덮혀 있어 녹색을 띄지만 건기가 되면 초콜릿 색으로 변한다 하여 '초콜릿 힐'로 불림. 비행기로 이동해야 함.

6) 팔라완 엘니도 / El Nido

팔라완 지방의 엘니도 섬은 때문지 않은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우 사랑받는 곳임.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함. 미니락, 라겐, 아만폴로 등의 리조트가 유명하며,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모든 식사와 서비스 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팁을 받지 않고 친절하여 방문객은 누구나 만족해 함.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중앙은행의 Circular No.1389호에 의거, 수입금지품목 및 수입제한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수입이 자유로움. 수입자격은 자연인 및 법인 모두 제한이 없으나, 개인의 경우 무역산업부(DTI)에 등록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BIR)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함.

1996년 3월28일 WTO협정에 따라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수량제한 철폐, 관세화 실시. 수입 관세평가 기준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방식 적용. 즉, 송장(invoice) 상의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단, 세관원이 보기에 송장가격이 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품목의 가격과 비교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선적 전 사전 검사인 SGS 검사는 2000년 4월부터 폐지됨. 최근 들어서는 고율관세 부과 WTO 협정에 배치됨에 따라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의 발효를 통해 자국산업 보호를 도모. 시멘트, 타일, 유리 등이 해당됨. 우리나라는 Ceramic Floor and Wall Tiles와 Clear Float Glass에 대해 Safeguard가 적용되고 있으나 수출액이 매우 미미하여 별다른 영향 없음.

중고 승용차는 오래 전부터 수입이 금지되어옴. 중고 중형승합차는 과거에 수입이 허용되어 오다 2003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E0) 156호에 의거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나, 수빅 수출 자유지역 화교업체의 제소로 법원이 TR0 (Temporary Restriction Order)를 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수입금지령이 무력화되었고, 2005년 2월 필리핀 고등법원이 대통령령 156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법적 근거를 상실함. 이에 필리핀 정부는 동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했으며, 중고승합차 반입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 2005년 6월부터 중고승합차 1대당 종량세 50만 페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2006년 1월 필리핀 대법원은 중고 차량 수입에 대해 수빅 수출 자유지역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동 지역 이외의 지역을 통하거나 외부지역 거주자가 동 지역에서 유출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 사실상 중고차 수입을 금지 했음.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품목 (Import Regulated Commodities) (범례) 품목 ... 수입승인기관

유의: 아래 자료는 중앙은행(BSP)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최근 자료가 발간되지 않아 현재의 정확한 수입관리품목은 정리된 것이 없는 바, 수입 시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사전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을 해야 함.

- Acetic anhydride ... DDB
- 쌀, 옥수수 ... NFA
- Sodium Cyanide ... BFAD
- Chlorofluorocarbon ... BFAD
- Penicillin, derivatives ... BFAD
- 정제석유제품 ... ERB
 - Aviation Gasoline ; Motor Spirit (Gasoline) ; Petroleum Naphtha ; Kerosene (including Kerosene type jet fuel) ; Diesel Oil ; Other Gas Oils ; Fuel Oils for use in the generation of electric power ; Bunker Oil ; Slop Fuel Oils ; Other Fuel Oils ; Lubricating Oils and base stock, Heavy Oil Preparations ; LPG
- 석탄 ... ERB
- 칼라복사기 ... NBI & Cash Dept. of Central Bank

- 폭약용 화공약품 ... PNP-FEO
 - Sodium Nitrate ; Nitric Acid ; Sodium Chlorate ; Potassium Chlorate ; Sodium Perchlorate, Ammonium Perchlorate and Potassium Perchlorate ; Potassium Nitrate ; Lead(II) Nitrate, Copper(II) Nitrate, Barium Nitrate, Calcium Nitrate, Strontium Nitrate and Cupric Nitrate ; Ammonium Nitrate ; Nitrocellulose and Dinitrocellulose
- 양파, 마늘, 감자, 양배추 (종자용) ... Bureau of Plant Industry
- 농약 ... Fertilizer & Pesticide Authority
 - Agricultural Insecticides ; Fumigate ; Other Insect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Fung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Weed Killers (Herbicides)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sale by retail or as preparations or articles ; Rat Positions ; Anti-Sprouting Products ; Plant-Growth Regulators ; Other Products
- 중고 자동차 부품 ... BIS
- 중고 타이어 ... DTI
- 달러화로 결제하지 않는 중고차 수입 ... BIS
- 정부기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연간 2백만 페소 초과시) ... Nat'l Computer Center
- 방사능물질 ... PNRI
- 필리핀 통화의 합법적 입찰 ... BSP
- 금화, 구리, 니켈 등 각종 주화용 빈 동전, 지폐 ... BSP
-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 ... NFA, BAI
 - 옥수수, 가금류/돈육 및 그 제품,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및 그 제품
- 휴대전화 단말기, 전화수신기 등 모든 통신기기 ... NTC
- 중고컴퓨터 ... DENR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용 프레온 가스 ... DENR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BPI
- 신선 및 냉동 어류 ... BFAR
- 동물용 사료 ... BAI
- 가공 식품류 및 약품 ... BFAD
- PVC resin ... BOI
- Cigarettes & other Tobacco Products ... NTA, DENR, BIR
- 화장품 ... BFAD
- 수의약품 ... BFAD, BAI
- 보트 및 각종 선박 ... MARINA
- 각종 항공기 ... ATO, CAB
- 컴퓨터(모뎀 장착된 것) ... NTC

□ 승인기관 약칭 풀이

- ATO : Air Transportation Office
- BAI : Bureau of Plant Industry
- BFAD : Bureau of Food and Drugs

- BIR : Bureau of Internal Revenue
- BOI : Board of Investment
- BPI : Bureau of Plant Industry
- BRAR :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 CAB : Civil Aeronautics Board
- DDB : Dangerous Drugs Board
- DENR : Dep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 ERB : Energy Regulatory Board
- MARINA : Maritime Industry Authority
- NBI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NTA : National Tobacco Authority
- NTC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PNP-FEO : PNP 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 PNRI : Phil. Nuclear Research Institute

나. 수입금지 품목 (Prohibited Commodities)

-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등 농산품 (종자용 제외)
- 프로노 제품 / 재료
- 중고 의류 및 냄마
- 장난감 총
-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 (특별히 승인된 건 제외)
-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 도박용구, 카드, 기구 등
- 복권, 경마권 등
-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 불량 의약품 및 식품
-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17. 관세제도

□ 개황

상품분류는 HS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분류코드는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를 사용함.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PSCC 코드로 분류하여 집계, 발표됨. 관세율은 1999년 Estrada 대통령이 Executive Order 334를 발표, 당초에는 2001년 14단계에서 2004년까지 4단계로 축소(2004년 최고 관세율 5%)시킬 계획이었음. 그러나 2002년 4월에 Arroyo 대통령이 Executive Order 91을 발표, 관세율 인하 계획을 수정, 2004년에는 관세율이 9단계(2004년 최고 관세율 50%)로 변경함.

2003년 중반부터 수입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산업 보호 쪽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회담 실패를 도화선으로 해서 11월부터 5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고, 추가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조정.

2002년까지는 관세율 표에 3개년 분을 포함시켰었으나 2003년에는 당해 년도 관세율만 명시하여 발간함으로써 차후 관세율 조정 기미를 보였었음. 2004년도 관세율 표에는 2005년까지 2년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세안 관세율(CEPT Rates)과 MFN 관세율이 나란히 표시 됨.

2006년 5월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 및 소비자의 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재국으로 수입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관세를 최소 0%에서 최대 3%까지 탄력적으로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527호(E.O No. 527)를 발표함.

18. 주요인증제도

주재국에 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필리핀 식약청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등록 신청의 요구사항

- BD #1 s. 2002에 규정된 등록 지원서 작성
- 약품 등록 서식 첨부/참조(개정판)
- 모라토리엄 제어 대상 증명서
- 과거 RSN에 해당되어 승인 불가 통보한 서신 사본(재신청의 경우)
- 제조업자, 무역업자, 분배자간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 사본:
- 수입, 수출업자, 도매업자
- A.O. 54 규정에 명시된 제품 등록 증명서 원본 제출
- 제품 출처가 명기된 제조업자, 무역업자, 분배자, 수입업자의 LTO 사본
- 추가서류: 금지/통제 약품의 경우(DDB에서 발행된 허가증)
- 기준 복용량과 제조법
- 약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technical 내역서
- 주요 원재료에 대한 분석표
- 공급자(제조업자)에 의한 원재료 분석
- 제조업체의 완제품 분석
- 완제품에 대한 technical data(기술 검사서)
- 완제품에 대한 분석표(1회분의 견본 제출)
- 제조 공정 내역서, 생산 장비, 추출 견본, 품질검사 및 포장 공정 설명 내역서
- 효능을 분석/검사한 데이터 자료 e.g. 색층 분석(비공식적인 포물러라면 분석/테스트 결과 첨부)
- 안정성 시험(Stability Studies)
- Accelerated (최초신청)-1 batch at 3 elevated temperature
- Long Term(갱신)-3 batches
- In-Use(개조된 제품)
- 1 batch at 30 oC and 2 oC -8 oC
- 3 batches at 30 oC and 2 oC -8 oC

- 시중에 유통돼있는 상태의 샘플 또는 상용화 상태의 견본품(유효기간이 1년 이상 여유 있는)
- 라벨의 재질
- 고유색상이 지정된 label 도안 및 실물 각 3매
- Bioavailability / Bioequivalence Studies (for Rifampicin)
- 수입된 제품의 경우
- Certificate of Free Sale from Country of Origin duly authenticated
- by the territorial Philippine Consulate
- Regulatory Agency Certificate attesting to the status of the
- manufacturer as to competency, reliability of personnel and facilities duly authenticated by the territorial Philippine Consulate
-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
- General information
- Studies done on the plastic to substantiate claim that product is
- safe to use
- Test procedure and limits
- Empty plastic container and closure with corresponding proof of
- payment for laboratory analysis
- 새로운 약품 (적용되는 경우)
- Submit copy of ABC approval on pre-clinical, clinical, protocol
- for Monitored Release
- Copy of ABC approval on the rationale of Fixed Dose Combination
- Product (if applicable)
- Copy of ABC approval of PMS or letter of Extension of MR status
- (if applicable)

요금

(단위 : 필리핀 페소)

약제분류	최초 (1년 유효기간)	갱신 (5년 유효기간)
새로운 약재	20,000.00 / 3년	-
브랜드 명이 없는 약재	2,000.00	7,500.00
브랜드 명이 있는 약재	3,000.00	10,000.00

현지화 환율: US \$1 = 52.00 페소, 2006년 3월 기준

그 밖의 경우	금액
재 신청 (최초 / 갱신)	1,000.00 페소

자료원: 식품 의약품 관리국(Bureau of Food and Drugs)

19. 지적재산권

가. 개 황

필리핀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연합의 회원국으로 국제저작권법의 가맹국이며 법적인 토대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 미국이 2004년 4월에 지적재산권침해 우선감시대상국에 필리핀을 포함시킴으로써 3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오름.

Optical Media Board의 자료를 인용하여 Business World(2004.11.28)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불법복제 공장에 대한 급습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판 사용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율이 2002년의 82%에서 2003년에는 89%로 악화되었음.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영상물 산업으로, 금년 잠재 매출액은 63억 페소(\$1억 1,250만)이나 불법 복제물로 인한 손실액이 49억 페소(\$8,750만)에 달해 실제 매출액은 14억 페소(약 \$2,500만)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두 번째로 피해가 큰 분야는 영화산업으로, 잠재 매출액은 70억 페소(\$1억 2,500만)이나, 해적판으로 인한 손실액이 30억 페소(\$5,350만)에 달하며, 음반업계 또한 금년도 매출액은 13억 페소(\$2,320만)에 불과한 반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19억 페소(\$3,39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짐.

지적재산권 침해율이 이같이 높아짐에 따른 타격으로 영화관은 1997년에 1,200개에서 2004년에는 870개로 감소했으며, 영화제작사는 1997년 200개에서 금년에는 50개로 줄어 들었고 연간 완성 작품도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영화관들의 손실 외에도 오락세 30%, 부가 가치세 10% 등 정부가 입은 손실도 8억 페소(\$1,42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Business World (2004.6.18)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2002년의 3천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3천 3백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해적 음반은 2002년 2천 90만 달러에서 2003년 2천 22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영상물 복제비율이 2002년 80%에서 2003년 89%로, 음반 복제는 변동 없이 40%로 추정됨.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 추정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나, 2003년도 해적판 비율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2003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1년 손실 추정액 1천 990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26%가 증가한 2천 5백만 달러에 달했음. 현지 DVD 해적판은 정품의 최저 10%의 가격에도 판매됨. 2003년 한 해 동안 2,000여 건의 단속을 통해 압수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DVD 1백 3십만 장, VCD 84만 4천 장에 달했음.

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규 동향

2004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이 Optical Media Law로 알려진 Republic Act(RA) No. 9239호에 서명함.

RA 9239는 광디스크의 수입, 수출, 생산을 관할하는 법으로, 복제에 관련된 도구와 재료도 규제 대상으로 함. 현재의 Videogram Regulatory Board를 Optical Media Board(OMB)로 바꾸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별코드 시스템을 도입, 모든 디스크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디스크 제조, 복제 등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게 함.

OMB의 허가 없이 관련 제조 장비나 부품, 액세서리 등을 수입, 수출, 소유, 운영, 판매, 유통시키는 자는 3년에서 6년의 징역형과 50만 페소에서 최대 150만 페소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005년 2월 25일 RA9239의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발표되어 동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다. 특허권 획득

내국인 특허권 획득은 부진한 반면 외국인의 획득은 활발해지고 있음.

내국인의 특허권 획득 건수

연도	총 건수	Invention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2000	801	8	287	506
2001	351	10	189	152
2002	591	12	227	352
2003	863	13	393	457
2004	821	18	335	468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외국인의 특허권 획득 건수

연도	총 건수	Invention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2000	858	566	1	291
2001	1,328	1,082	5	241
2002	1,669	1,113	26	530
2003	1,727	1,160	23	544
2004	1,796	1,434	16	346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내국인의 상표권 등록 건수

연도	총 건수	Principal	Supplemental	Renewal	Container
2000	696	696	0	0	0
2001	298	232	0	26	0
2002	289	269	0	20	0
2003	989	938	0	51	0
2004	803	757	0	46	0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외국인의 상표권 등록 건

연도	총 건수	Principal	Supplemental	Renewal	Container
2000	3,237	3,237	0	0	0
2001	2,803	2,601	0	202	0
2002	1,790	1,673	0	117	0
2003	3,852	3,666	0	186	0
2004	2,988	2,808	0	180	0

자료원 :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라. 저작권

- 국립도서관에 등록된 작곡, 그림,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 저작권은 법적 보호를 받음. 보호기간은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이며 공동 창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속자나 대리인에 대한 보호 역시 사후 50년간임.
- 다음의 경우 법적 보호기간은 30년임: 정기 간행물 및 신문/ 오디오, 비디오/ 영화, 사진 영상물
-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라이선싱 계약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심사를 득하여 등록해야 유효함.

마. 상표권

- 근거법은 Law on Trademarks, Trade names and Service marks (RA 165)인 상표, 상호, 서비스 등록에 관한 법(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임.
-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는 상표국에 등록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선 사용 주의로서 등록하려는 상표는 필리핀 내에서 등록 이전에 2개월 이상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등록일로부터 20년 간 유효하며 20년마다 갱신. 5년 단위로 해당 상표가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선서 공술서를 제출해야 함.
- 출원수속: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 청구. 상표권 등록필증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표.
- 상표법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5만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 벌금

바. 의장권

- 근거법은 Patent Law, RA 165(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이며 출원 수속, 강제 실시권 등은 특허권에 준하며 동법 55조에 규정.
- 담당기관: Bureau of Patents
-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5년 단위로 해당 의장권이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선서공술서로 갱신 가능.

사. 특허권

- 근거법은 Patent Law, RA 165 (특허에 관한 법, 공화국법 제 165호, 1947년)
- 담당기관: Bureau of Patents

- 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법특허(Process Patent), 장치특허(Apparatus Patent)로 구분, 각각 인정. 보호기한은 특허권 교부일로부터 17년이며 종료 후 5년마다 2회 갱신 가능.
- 출원조건: 출원인의 발명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 /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 / 특허 출원 1년 이전에 필리핀 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지 않은 것
- 출원 제외사유: 미풍양속, 건강, 복지에 해가 되는 것 / 발명과 분리된 사상, 이론 / 상품의 개선 및 제조에 기여하지 않은 것 / 상업상의 발명. / 단지 기계적 기술로 이루어진 장치 / 의사의 처방을 나타낸 조합 약품.
- 출원수속: 등록인의 자격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일 경우 지명 대리인.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청구. 특허권 등록필증 교부는 관보를 통해 발표.
- 위반 시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10만 페소 이상 30만 페소 이하 벌금.

아. 관련 기관

- 지적재산권 등록, 침해 소송제기 등은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해당 국 별로 나누어 담당.
- Bureau of Patents
- Bureau of Trademarks
- Bureau of Legal Affairs
- Documentation, Information & Technology Transfer Bureau
- Administration, Financial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reau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EDP Bureau

□ 연락처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Add : G/F., IPO Bldg., 351 Sen. Gil J. Puyat Ave., Makati, Philippines
- Tel : 63-2) 752-5450/65 loc. 201 to 205
- Fax : 63-2) 897-1724
- Web Site : <http://ipophil.gov.ph>

20. 소비자보호제도

필리핀 소비자보호법은 성능 및 사용기준,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 소비재 상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기준 채택을 요구함. 소비자 보호법은 위법 및 부정판매로부터 소비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의 법률로 1992년 4월 13일 Republic Act 제 7394호로 승인된 필리핀 소비자보호법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이 있음.

동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은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불공정 및 비양심적인 판매행위 및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건전한 선택 및 적절한 권한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계몽 활동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권리 및 보상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정책 입안 시 소비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음.

동 법의 규정과 시행령은 다음 기관들이 맡음.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장비 및 물질에 대하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식품의약품 관리청 (Bureau of Food and Drug)
- 농산물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농업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 기타의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필리핀으로 수입될 예정인 모든 소비자 제품은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품질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유해하고, 안전하지 못하며, 위험하거나 표준규격에 벗어나거나 물질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필리핀으로의 수입이 금지됨. 수년 전 선진국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PL(제조물 책임법)은 아직 입법화 되어있지 않음.

무역산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풍기, 다리미, LPG, 휴대용 소화기, 안전벨트와 같은 제품들은 무역산업부의 Bureau of Product Standards가 정한 제품별 표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을 홍보하고, 중고품의 경우에는 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2005년 6월부터는 텔레비전이 제품표준을 준수해야 함.

소비자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접수 창구는 아래와 같음.

- 담당 기관 : 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 주소 : #361 Sen. Gil Puyat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 전화 : (63-2) 751-0384
- 팩스 : (63-2) 890-4949
- E-mail : btrcp@dti.gov.ph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 (63-2) 897-3640, 6682, 9308
- Fax : (63-2) 896-1166
- Web Site : www.dti.gov.ph

□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산하기관:

- Bureau of Export Trade Promotion (BETP),
- Bureau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BITR),
- Foreign Trade Services Corps (FTSC),

- Offi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Group (ITG)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 International Building (formerly L.C. Bldg)
 - 375 Sen. Gil J. Puyat Ave., Makati City 1200
 - Tel. (63-2) 890-4723 / (63-2) 897-7605
 - Fax (63-2) 890-4655

22. 시장특성

1) 외국인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추진

- 국내 자본조달 미약, 기술부족 및 제조업 투자 기피로 외국인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추진. 총 수출의 65%를 외국계 기업이 주도 (전체 수출의 70% 정도가 전자제품 및 부품이며,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50%)

2) 만성적 재정적자 및 외채 과다 보유국

- 2005년 재정적자 2,665 백만 불(1,468억 페소; GNP의 2.73%).
- 재정지출 총액 171억불 가운데 약 32%인 54억 불이 외채상환 및 외채이자로 지출됨에 따라 외채이자상환액 및 고정비 (인건비) 부담으로 공공사업 등예의 투자 여력이 거의 없음. 2006년 (1-5월) 재정적자는 852백만 불(44,157 백만 페소).
- 2006년 1/4분기 기준 외채는 553억불로 GDP의 53.9%, 연간 수출액(2005년 말 기준)의 1.4배에 달함. 89%는 중장기, 11%는 단기 외채.

3) 제조업 기반 취약, 서비스업 비중이 과다한 산업 구조

- 경제활동 인구 중 종사자 비율로 볼 때 3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GDP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로 농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편.
- 제조업은 약 23%로 비중이 낮고 주력분야는 외국인이 투자한 전기. 전자 분야의 수출 산업과 식품 등 내수 소비재 산업 분야이며 동남아 타 국가에 비해 제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함.
- 서비스업의 비중이 50%를 넘는, 후진국으로서는 과다한 비중으로 소비위주의 경제 구조임. 이러한 소비위주의 산업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해외근로자들(이민 포함)이 본국 친지들에게 보내오는 송금이 일반시민 구매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임.
-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넛, 쌀, 옥수수, 바나나, 고무, 커피, 마닐라삼, 새우 등으로, 특히 바나나와 파인애플, 사탕수수, 코코넛, 새우 등은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외화 가득률을 기록.

4) 수도권 및 일부 거점도시에 상권 집중, 대형 쇼핑몰 발달

-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루손 남부지역과 지방의 일부 거점도시에 상권이 집중됨.

- 일찍부터 대형 쇼핑몰이 발달하여 SM으로 대표되는 대형 쇼핑몰(백화점) 체인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쇼핑몰들에는 각종 소매점들이 입주.

5) 해외 송출인력 송금이 국내경제 부양

- 공식적인 송금액은 2005년 10,689백만 불이나 인편 송금 등 비공식 송금액을 포함하면 연간 100억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내로 유입됨. 단순 매출액이 아닌 순수 외화 가득 액으로, 공식 송금액만 해도 연간 GDP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임. 그러나 이 송금액이 산업자본으로 흘러가지 않고 대부분 송금자의 가족이나 친척의 생활비 등 가계소비로 지출되어 내수경기 부양에 기여.
- 해외파견 인력(약 1,063천명)중 송금인력은 약 861천명이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203명), 홍콩(91명), 일본(75명) 등지에 거주함(2004년도 필리핀 통계청 집계 기준).

6) 소비시장 양극화

- 절대빈곤층 35% 및 중산층 미약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취약, 고급 소비재와 저가품 시장으로 시장이 양극화.
- 소비재 시장은 유명 브랜드가 선도하는 최고급품 시장과 저가품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어 필리핀에 진출한 다국적 가전제품 업체들의 경우 유행이 지난 모델이나 기능을 단순화시킨 제품으로 가격을 낮추어 가격시장인 필리핀 시장특성에 맞춘 판촉활동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음.

7) 부의 편중

- 화교(대부분 복건성 출신)가 필리핀 전체 상권의 60% 이상 장악.
- 상위 5~10%로 추산되는 부유층은 잦은 해외여행을 통해 세계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고 있으며 740만 여명의 해외취업자들에게 허용되는 Balikbayan Box(가로, 세로, 높이 각각 1미터)로 비상업적 규모의 상품의 면세도입 허용,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에게 도착 후 48시간 내에 1회에 한해 허용되는 US\$ 1,000 내에서의 면세점 구매 허용 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수요가 상당부분 잠식당함.

8) 중산층 미약

- 1인당 국민소득은 약1,000불을 내외, 아직 중산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장이며 엔겔 지수가 50%에 육박.
- 2000년도 기준(Philippine Yearbook 2005)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 3,260불, 월 271.59불 수준임. 도시가구 수입은 연 4,638불, 월 386.50불이며, 농촌지역은 연 1,931불, 월 160.97불임. 가구당 평균 수입 중간값은 연 2,009불, 월 167.39불임.
- 다국적 마케팅 연구조사기관인 A.C. Nielsen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류층 10%(월 소득 1,785불 이상), 중류층 8%(월 892~1,785불), 중하위층 55%(월 142~267불), 극빈층 35%(월 142불 미만)으로 분류.

9) 일반적인 상행위 관행

- 상행위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느리며 동일한 제품에 대해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그 중 한 업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음. 한국인들과의 거래도 빈번하여 한국업체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 거래 시 계속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여러 한국 업체를 접촉하기도 함.

10) 유통경로

- 필리핀 시장의 유통경로는 디스트리뷰터, 딜러 및 소매업자 등 3단계로 구분됨.
- 일반 상품일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디스트리뷰터가 되고 딜러가 소매업자를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 기계류 및 중장비의 경우, 두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즉 제조업자/디스트리뷰터에서 딜러/소매업자로 유통됨.
- 유통단계를 줄이더라도 최종소비자 가격은 높은 경우가 많음. 보통 소매 가격은 수출 가격의 3-4배 수준.
- SM, Robinson 등 현지 대형유통체인들에 제품을 납품하려면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함. 이들 유통체인 본부에서 현지 에이전트에게 주문을 하면 에이전트가 지정 기한 내 해당 각 지점으로 제품을 입고시켜야 하기 때문임. 대금지불은 보통 1-2개월마다 판매된 분량에 대해 정산을 하는데, 대금지급이 미뤄지는 경향 있음.
- 유통업자가 재고부담을 지지 않는 경향이 큼. 미리 대량 수입해다가 쌓아두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씩 들여다가 판매하며 고가품으로 회전이 느린 제품의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수입하는 경우도 많음.

11) 수입통계의 정확성 부족

- 성행하고 있는 기술적 밀수와 도저히방을 경유한 밀수, 비능률적이고 복잡한 행정 등으로 통계수치가 정확한 수입규모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12) 마케팅 대상으로서의 소비자 계층 분류

- 소득수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A, B, C, D, E의 다섯 계층으로 분류. 다국적 마케팅 연구조사기관인 AC Nielsen의 분류방식을 따르자면, 최 상류층인 A층은 정착된 부자로 평균 월 소득이 10만 페소(약 \$1,785 / 56페소=\$1로 환산)를 초과하는 가구이며, B층은 5만 페소(약 \$892) 초과 10만 페소 이하의 소득층으로 중상류층(신흥부자 nouveau riche)으로 분류됨. AB층의 인구는 전체의 10%로 2000년 인구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총 7백 6십만 명이며, 전체 가구의 1.2%로 18만여 가구에 해당.
- 중산층인 C층 이하의 비중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큼. Philippine Survey Research Center는 C층이 전체 인구의 30~35%, 즉 2천 3백만 명 내지 2천 7백만 여 명이라고 보는 반면, AC Nielsen은 전체 가구의 8.3%인 1백 3십만 가구(인구수로는 약 6백 3십만여 명)가 C층이라고 봄. AC Nielsen 분류에 따르면, C층은 월 소득 1만 5천 페소

(\$267) 초과 5만 페소(\$892)까지 이고, 중하위계층인 D층에 대해서는 월 수입 8천페소(\$142)에서 1만 5천 페소(\$267)까지를 포함시키며 전체 가구의 55%가 이에 속한다고 봄. 월수입 8천 페소(\$142) 이하의 극빈계층인 E급 가구는 35%로 분류. 필리핀 통계청 자료는 34%의 인구(26.5백만 명), 28.4%의 가구(4.3백만 가구)를 극빈계층으로 집계함.

(자료원 : AC Nielsen ; Business World 2004.5; 2004년 이후 자료 미공개)

13) 전국적 소매점 형태별 매장

- 대형 쇼핑몰 : 442개
- 수퍼마켓 : 780개
- 편의점 : 796개
- 식품점 : 4,162개
- 약국 : 7,300개
- 시장 : 39,000여 개
- sari-sari store(필리핀식 구멍가게) : 448,000 여 개

(자료원 : AC Nielsen ; Business World 2004.5; 2004년 이후 자료 미공개)

14) 55%의 중하위층이 수퍼마켓 매상의 40% 차지, 소매품 소단위 포장이어야 잘 팔려

- AC Nielsen 분석에 따르면 중하위 D계층이 수퍼마켓 매상의 40%, 전국에 걸친 구멍가게 매상의 64%를 차지한다고 함. AB계층의 가구당 소비액은 저소득층의 3배 이상이지만 가구수가 적어 저소득층의 총 소비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임. (자료원: AC Nielsen; Business World 2004.5; 2004년 이후 자료 미 공개)
- 필리핀 소비자들, 저렴하고 값어치 있는 제품 선호. 저소득층은 여윌돈이 없으므로 일상생활용품도 소단위 포장으로 해야 잘 팔림. 심지어는 필리핀 양대 이동통신업체인 SMART와 Globe사도 1회당 휴대전화 충전 최소금액을 각각 30페소(US\$0.56)와 25페소(US\$0.48) 수준으로 낮추어 저소득층을 공략하고 있음.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무역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및 전시회 디렉토리에 등재된 업체를 대상으로 C/L 발송 및 유선 접촉을 통해 관심바이어 발굴.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현지 인터넷 여건 미약으로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필리핀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함.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문화적 금기 사항

일반적으로 특별히 터부시되는 사항은 없으나, 언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함. 특히 성질이 급한 한국사람의 시각에서 판단하기에는 ‘정황으로 보아 상대방이 언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될만한 일’에 언성을 높이더라도 현지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일로 받아들임. 또한 손가락이나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여성에 대한 모욕의 의미가 될 수 있음. 직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 석상에서 야단을 치면 모욕을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불러 잘못을 지적해야 함.

자존심이 매우 강하므로 종업원이든 누구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음.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인 방문객들이 현지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적으로 대하는 사건들이 현지 언론에도 계속 보도된 바 있어 현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대하지 않아야 함. 특히 유흥가에서 마치 한국에서처럼 과격하게 행동하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상대방이나 경비원들이 권총을 발사할 수도 있고 현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스려지게 되므로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처신에 유의해야 함.

그 외 남부 민다나오 섬의 회교권에서는 회교율법에 의한 금기사항이 있으나 다른 지역은 특별히 터부시되는 사항은 없음.

나. 수입 관행

필리핀의 수입은 대략 50% 정도가 대리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들은 통상 독점권을 요구함. 이 경우 독점권은 해당상품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창구를 하나로 독점한다는 의미이며 대리점등이 해당 브랜드의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통상 대리점은 수 가지의 상품 또는 경쟁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례가 많음.

유통업체들은 재고의 보유를 극히 꺼려 소량 반복 구매를 하므로 신속한 배송이 중요. 현지에서 가구나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구점이나 사무용기기 판매점을 접촉해보면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재고가 있더라도 곧바로 예약금을 내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되어 새로 수입품이나 제작품이 들어올 때까지 두 세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흔함.

통상 4월(부활절), 12월(크리스마스, 연말모임)에는 수입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지닌 기업주들이 해외휴가를 즐기기에 때문에 상담이 어려움. 중화학공업 제품이나 산업용 제품 등의 경우 수입상들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며 전반적으로 가격이 보다 주요한 구매조건이 됨. 화교계 상인들은 해외거래선 구축 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계와의 거래를 선호함.

다. 비즈니스 에티켓

외국문물의 깊은 영향, 사고방식의 개인주의화 및 서구화로 타 서구국가 바이어 상담 시와 같은 에티켓을 지킨다면 별도로 요구되는 비즈니스 에티켓은 없음. 상담 시 타갈로그어를 조금 섞어 쓰거나 전통의상인 '바롱'을 입고 상담에 응한다면 친밀감을 줄 수도 있으나 거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양복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면 정장으로 간주됨. 상의는 입지 않아도 무방하나 건물 내에서는 에어컨이 세게 가동되므로 상담장에서 종일 상담하는 경우 상의를 준비하는 것이 편함.

라. 바이어와 교신 방법

대부분 팩스로 교신하는 것이 일반적. 팩스겸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팩스 발송 시 사람이 나와서 응답하면 ‘Fax tone, please!(팩스 톤 플리즈!)’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팩스기를 ‘수신상태’로 돌려놓은 후에 전송하면 됨. (참고: A를 ‘아’로 발음. 예: Apple - 아플, Bank - 방크, Taxi - 택시)

실무자급은 이메일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상대방이 이메일 교신을 원하면 이메일로 연락해도 무방. 그러나 사장 등 의사결정권자는 이메일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점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팩스로 연락하는 편이 바람직.

샘플을 발송하는 경우 내용물에 따라 수신자가 세금을 내고 샘플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일반 항공우편물의 경우 분실되거나 제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긴급한 우편물이나 고가품의 경우에는 DHL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26.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가. 거래 시 유의사항

필리핀 시장은 중산층의 형성이 부진한 소득계층구조, 식민지시대의 역사를 통한 외국 문물의 깊은 영향, 사고방식의 개인주의화 및 서구화, 특정 집단의 상권장악, 지방산업의 발달, 농업중심 국가로서 제조업의 미발달, 분권주의화 및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특정 이해집단 등의 영향, 정부의 강력한 통제 및 추진력 미흡 등으로 손쉽게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장임.

필리핀인과의 거래추진은 단기간에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장기적, 단계적으로 시장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따라서 현지시장 진출 시 신중한 시장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초기 거래 시 D/A, D/P에 의한 거래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나. 상담 시 유의사항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등에는 전체 패키지에 의한 일괄 상담보다는 개별적인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세심함이 필요. 에이전트쉽 부여 등의 초기에는 가능하면 1년 이하의 단기간 계약으로 상대방의 반응 및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흔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과의 거래에서는 신뢰성에 기초하여 생산 착수 후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선적 등을 수행함으로써 부대비용의 절감을 가능케 하는 점을 주장하며 한국측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들 경쟁국의 경우 같은 화교 계로서 필리핀의 비즈니스맨들이 자산을 해외로 유출해둔 지역에 해당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함.

27. 통관절차

수입 절차

절 차	해당기관
단순 소비재인 경우	
- 수입업자등록	CIIS of BOC
- 대상품목의 수입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BOC, AAB
- 신용장개설	AAB
- 은행이 세관 앞 출고허가서 발행	
- 소비재 반입신청서(증명서 유첨) 제출	EPD
- 소비재수입증명서, 확인서 제출	FED
- 수입품 반출, 완료	
단순 소비재가 아닌 경우	
- 수입업자등록	CIIS of BOC
- 대상품목의 수입규제(제한, 자유) 여부 및 관세율 확인	BOC, AAB
- 신용장개설	AAB
- 은행이 세관 앞 출고허가서 발행	
-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일 경우 BOC에 보세반입신청	
- 단순 소비재가 아니고 CBMW용도 아니면 BOC의 특별수송 허가(SPT)	
- 수입품 반출, 완료	

주1 : CIIS : Customs Intelligence Investigation Service

주2 : BOC : Bureau of Customs

주3 : AAB : Authorizes Agent Bank

주4 : EPD : Entry Processing Div.

주5 : FED : Formal Entry Div.

주6 : SPT : Special Permit to Transfer

주7 : CBMW : 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참고로, 사전수입허가 등이 필요한 수입관리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수입에 앞서 확인하고 수입을 해야 함. 필리핀 정부는 수입관리대상 품목을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는 바,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하여 확인해둘 필요가 있음. 사전 수입허가 품목인데 수입품이 현지 세관에 도착된 이후 수입허가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례에 해당되어 30%의 Penalty를 물릴 수도 있기 때문임.

28. 운송

가. 국제공항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마닐라근교), Mactan International Airport (마닐라 남방 562킬로의 세부시 소재) 2개가 있음. 마닐라의 관문인 NAIA 1은 건물의 규모가 작아 출영객 및 환송객의 출입을 막고 여행객만을 건물 내에 출입시킴.

외자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NAIA 3는 2003년 초 개장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BOT 계약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가 완전 중단됨. 필리핀 정부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고 NAIA 3를 인수해야 하나 재정부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고 있음. 일단 정부가 NAIA 3를 일방적으로 인수를 선언. 2005년 말 에는 개장하겠다고 한바 있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실효적인 개장 일정이 공표되지 않았음.

외국 항공사들이 입주해 있는 NAIA 터미널 1에서는 입국자가 환영객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공항 건물을 나와 택시승강장이 있는 길을 건너 연결통로(Extension)로 내려가면 WAITING AREA (A부터 Z까지 표시)가 나옴. 마중 나온 사람은 길 건너편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자신이 마중 나온 여행객이 WAITING AREA에 내려온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길을 건너가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함.

필리핀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NAIA 터미널2를 이용하게 되는데, 세관을 통과하여 공항을 나오면 환영객을 바로 만날 수 있음.

마닐라 국제공항 이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입국 시, 입국카드를 작성한 후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Arrival Gate를 통해 청사건물로 빠져나가면서 입국카드 사본 1매와 수화물 티켓(통상 짐표로 호칭됨)을 제출해야 하므로 단체 입국 시 개인별로 수화물과 짐표를 제시하는 것이 확인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음.

한편 출국 시에는 청사건물 입장 시에 X-ray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항사정에 따라, 건물 바깥에서 20-30분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함.

나. 비행거리

마닐라와 주요 도시간 비행시간은 서울 3.5시간, 동경 4시간, 상해 3.25시간, 대만 2시간, 홍콩 1.5시간, 방콕 3시간, 쿠알라룸푸르 3.5시간, 싱가포르 3시간 등임.

다. 국제항구

Cebu, Manila, Batangas, Zamboanga, Iloilo, Davao, San Fernando 등의 국제항구가 있음.

라. 운송비용

운송비용은 도착지 및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선적시기에 맞춰 아래 현지 운송 업체에 문의 하는 것이 적절함.

마. 운송/통관 업체

- 아펙스(APEX)
 - 25th Flr.,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 Makati City
 - 전화: (63-2) 887-5996
 - 팩스: (63-2) 887-5480, 5420, 5426
 - 이메일: egchang@apexphilippines.com
 - 웹사이트: www.apexphilippines.com

- 디펙스(DPEX)
 - Perry' s Logistics Centre Naia Ave., Paranaque City
 - 전화: (63-2) 825-0100
 - 팩스: (63-2) 829-7900
 - 이메일: choi_dw@hanmail.net
 - 웹사이트: www.dpex.com
- 두라 해운항공
 - Rm 110 skyfreight Bldg., Naia Ave., Paranaque City
 - 전화: (63-2) 852-7220
 - 팩스: (63-2) 851-6950
 - 이메일: kc9698@hanmail.net
- 한진해운 마닐라지점
 - 2232 CTC Bldg., Roxas Blvd., Pasay City
 - 전화: (63-2) 831-9721, 832-2878
 - 팩스: (63-2) 551-9658, 932-2692
- 유니셉(주)
 - 3rd Flr., ECJ Bldg. Real St., Intramuros, Manila
 - 전화: (63-2) 527-4165
 - 팩스: (63-2) 525-7818
 - 이메일: jjjang@seeds.com.ph

29. 분쟁해결 절차

필리핀 업체들과의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같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함. 그러나 현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어려움.

대금결제 미 회수 금액이 대체로 소액(2만불 미만)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만불 이상인 경우는 바이어와 양자간 원만한 협상을 유도하여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임.

현지업체들과 분쟁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원만한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업체가 연락을 끊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분쟁 해결과정에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가급적 서면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며, 양측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 및 책임소재가 밝혀진 경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자칫 어느 한쪽이라도 손해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할 경우, 분쟁해결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현지업체와 의견 교환 시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EMS 포함)의 경우, 이따금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중요 문서는 DHL 이나 Fedex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이메일을 통해 대용량의 문서를 발송할 경우, 현지 인터넷 사정 열악으로 거의 대부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현지업체의 대금결제 미지급 사례

최근 국내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바이어가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 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동 거래의 대금결제 조건은 L/C 50% 및 현금결제 50%이고, L/C 대금은 현지 도착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나, 현지업체가 물품 인수 후 3개월이 경과토록 대금지불을 지연시키며 결제를 거부하였음.

현지업체 주장은 제품 자체의 결함 때문인데, 거래 초기에 국내업체가 제시한 샘플과 비교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었고, 국내업체는 바이어가 요구한 사양을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제품 상태가 불량하다면, 바이어가 제시한 사양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음.

결과적으로 현지업체가 지속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어 버림에 따라 동 분쟁은 국내업체가 손실 전부를 감수하고 종료됨.

현지업체가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대화를 중단할 경우 국내업체나 당관이 바이어를 접촉하여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왜냐하면, 현지 치안이 불안정한 여건으로 인해, 사무실 및 주택 입구에 경비원이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고, 방문자는 입구에서 면담자의 허락/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업체가 현지업체의 책임소재를 추궁하며 몰아부침에 따라, 전화 및 핸드폰 수신을 거부하고, 국내업체의 업체방문도 거절하여 협상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임.

나. 구체적인 계약내용 미 숙지 사례

현지업체가 무선 인터넷 다운로드가 가능한 핸드폰 단말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업체에 요구한 구매희망 제품 사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초기부터 요구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다운로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고, 제품에 불만을 느낀 현지업체가 제품 전량 회수 및 기 지급 선 급분 환불을 요구한 사례임.

국내업체는 부가적인 연결장치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를 구현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는 결과적으로 현지업체가 요구한 사양에 맞춰 별도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판매도 불가능하므로 제품 회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함.

이는 핸드폰 단말기를 수출한 국내업체가 무역업체로서, 제품의 특성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거래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사례로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현지업체가 한국업체와 더 이상의 거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 사례임.

다. 현지 독점권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

현지업체에 냉온수기를 수출한 국내업체가 현지 업체에 조건부 독점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독점권 제한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현지업체가 불명확한 계약내용을 빌미로 지속적인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내업체의 현지진출이 곤란을 겪은 사례가 있음.

수년 전 국내의 대표적인 냉온수기 업체가 자사 브랜드 사용권한을 현지업체에 부여하면서 취급가능 제품 모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독점권 취소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음.

이후 국내업체의 내부 여건상 자회사 성격의 협력업체에 브랜드 사용권한을 제공하면서, 취협력업체와 취급모델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현지업체와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규모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거래중단을 통보하였음.

최근 브랜드의 원소유권이 있는 업체의 협력업체가 현지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현지업체가 영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동 국내업체의 현지진출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음.

국내업체는 모 기업격인 브랜드 원 소유업체에 확인한 결과, 현지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됨에 따라, 독점권 사용권한도 함께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현지 업체는 독점권 사용권 중단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없고, 현지업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선통보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수년째 해당 브랜드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업체가 진출하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됨.

결과적으로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내업체가 진출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락 되기는 하였지만 현지업체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거래선 전환 및 진출전략 재설정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제한조건 및 독점권 회수절차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 사례임.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2005 년도 대 필리핀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동향을 볼 때 제조업, 공공서비스업(수도/전기/가스),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 신고액에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주재국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전체 산업 중 약 53%를 차지)가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필리핀은 전기, 수도, 가스시설과 같은 국가 기간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체 기술력이 미흡하여 외국기술 즉 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음.

2004 년 대비 2005 년의 투자 신고액 감소의 원인으로 공공서비스업의 15 억 6 천만 불(88.8% 감소) 감소와 서비스업의 3 억 7 천만 불(70.2% 감소) 감소로 볼 수 있으며, 이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공공서비스 부분의 경우 2004 년도 주재국에 대한 ‘나우루 공화국’의 가스 부분 투자가 2005 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이 감소의 주원인임.

필리핀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통계

(단위: 백만 불)

년도	2003		2004		2005		2006 1/4 분기	
구분 업종	신고	투자	신고	투자	신고	투자	신고	투자*
농림수산업	0.47	-	0.09	0.80	5.21	1.15	-	48.96
광업	15.79	113.36	4.10	-	131.13	-	-	3.85
제조업	380.70	191.36	781.79	179.66	1,214.46	191.95	1,148.68	282.94
공공서비스 (수도/전기/가스)	35.62	-	36.40 (전기) 1,722.41 (가스)	61.35	196.41	0.20	-	42.21
건설업	47.36	93.29	20.31	24.43	0.61	35.45	-	315.32
무역업	14.03	37.02	0.94	42.13	1.92	36.62	0.03	199.48
운송업	3.55	-	0.47	1.51	7.02	0.55	0.06	3.85
저장업	6.41	-	3.06	-	0.01	-	-	-
통신업	21.92	375.53	-	191.38	-	0.66	-	249.21
금융/부동산	16.62	412.66	5.19	101.13	3.64	191.12	3.10	156.50
서비스업	85.04	9.54	528.30	4.16	157.49	58.77	71.76	24.86
기타	-	-	-	-	-	0.03	-	-
총액	627.50	1,232.76	3,103.06	606.53	1,717.89	516.49	1,223.63	1,327.18

자료원: Foreign Direct Investment - First Quarter 2006 (NSCB)

신고금액: 필리핀 4대 투자진흥공사 신고 기준(Approved by BOI, PEZA, SBMA, CDC)

등록금액: 필리핀 중앙은행 등록 기준(BSP-Registered Foreign Direct Equity Investments)

주 : 2006 년도 1/4 분기 투자금액 단위: 천 불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개황

1998 년 한국의 대 필리핀 투자는 한국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함. 1999 년, 2000 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2001 년에 급증한 후 2002 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5 년 한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2004 년 대비 약 30% 증가)로 인한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투자 반등으로 지난 10 년 동안 가장 높은 투자 증가폭을 보임.

2006년도 1/4분기에 한국이 주재국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으로 부상 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진 중공업의 수빅만 조선소 건립을 위한 직접 투자가 주 원인으로 분석됨.

나. 투자업종 및 업체

한국의 대 필리핀 투자는 전기, 전자, 섬유,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 건설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주로 CAVITE, BATAAN 등 경제 특구에 위치한 공단에 분포되어 있음. (비즈니스 파일의 진출기업 항목 참조)

- 한진 중공업
 - 지사설립연도: 1973년
 - 투자내용: 2006년 2월 필리핀 수빅만 자유항(Subic Bay Freeport Zone)내에 약 2,300,000km² 상당의 조선소 건립을 위하여 필리핀 정부와 10억불 상당의 투자협정을 맺음.
- 한국전력
 - 지사설립연도: 1995년
 - 투자내용: 60만kW급 말라야(Malaya) 발전소 및 125만kW급 일리한(Ilijan) 발전소 건설 가동 중; 2005년 12월 16일 20만 kW급 세부(Cebu)화력 발전소를 착공함
- 삼성전자
 - 지사설립연도: 2001년
 - 투자내용: 삼성전자는 주 생산 품목인 광디스크 드라이브(Optical Disc Drive - ODD)의 수출증대로(2004년 대비 2005년 수출량 약 26% 증가) 2005년 올해의 '최우수 수출업체상(Outstanding Exporter Award)'을 수상하였음

다. 투자금액

필리핀 4대 투자진흥공사 집계 기준 직접 투자 신고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 불)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체	당해년도	1,053.38	884.71	2,730.68	1,674.46	1,145.48
	누계	8,420.26	9,304.97	12,035.65	13,710.11	14,855.59
한국	당해년도	18.16	12.31	13.70	17.15	54.35
	(순위)	(10위)	(13위)	(10위)	(8위)	(5위)
	누계	130.17	142.48	156.18	173.33	227.68
	(순위)	(9위)	(10위)	(11위)	(11위)	(11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4 분기
전체	당해년도	892.42	627.00	3,103.05	1,717.88	1,223.73
	누계	15,748.01	16,375.01	19,478.06	21,195.94	22,419.67
한국	당해년도	26.06	13.14	58.18	194.16	996.15
	(순위)	(6위)	(7위)	(5위)	(5위)	(1위)
	누계	253.74	266.88	325.06	519.22	1,515.37
	(순위)	(-)	(-)	(-)	(-)	(-)

자료원: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2005 (NSCB)
Foreign Direct Investments - First Quarter 2006

33.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현지인의 영어사용, 종교적인 측면에서 큰 장애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진출여건이며 수출가공지대 및 민간공단 입주시 전력, 통신, 용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임금상의 우위보다는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면에서 강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동력관리문제도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필리핀의 노동도 매우 강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가 어려움.

교육수준이 높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노동 집약적인 전자산업 등이 주로 투자해 있음.

최근 들어 미국계 콜 센터 업체들이 현지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현지인들의 영어실력 향상이 투자유치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제단체인 Makati Business Club에서는 회원사들에게 직원들의 영어 공인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TOEIC 등과 같은 공인 영어시험을 기업들이 요구하면 학교들과 학생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영어성적 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임.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필리핀인들은 외국인 투자가 국가경제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자본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 필리핀인들은 외국인 투자의 증가를 필리핀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표시로 간주.

필리핀 정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장려.

- 필리핀인의 생계와 고용을 확대하는 행위.
- 농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
-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행위.
- 수출품의 범위, 질, 양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농업, 광업, 공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관련기술을 공급하거나 향상시키는 행위.

필리핀 기업들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필리핀이 지금까지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형태나 외국 기업과 필리핀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사업을 시작. 필리핀 노동자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외국기업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여건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또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2) 투자 진출시 유의 사항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산업에의 투자가 바람직.

내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 순위계획(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해당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인프라스트럭처가 구비된 공단 등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 및 민간이 개발한 산업공단 등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필리핀은 아직까지 낮은 소득 등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므로 수출산업이 바람직. 따라서 투자시행 전에 목표시장 설정과 투자전략 수립 시 필리핀 여건을 고려해야 함. 채산성 확보 등을 위해 공장가동시 필리핀 현지에서 관련 원부자재 조달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함.

인근 타 국가에 비해 임금상의 우위는 별로 없으나 풍부한 노동력 및 노동의 질이 다소 우수. 그러나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전력요금 문제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업체의 신규투자는 별로 없으며, 기 진출한 업체들도 베트남, 태국,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한 산업에의 투자는 필리핀 내수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상품을 필리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타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유망한 품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3) 현지진출 투자자들의 필리핀 투자매력도 평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들이 평가하는 필리핀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04년 12월 8일 필리핀 유력 컨설팅업체인 Wallace Business Forum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매력도는 2003년의 63.7에서 62.2로 낮아져 필리핀의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정부정책의 가변성 등으로 투자 확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04년 9월 필리핀 주재 다국적기업들을 포함한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들이 투자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관료적 형식주의, 즉 부패(85%)를 꼽았고, 다음이 경제적 불안정성(76%), 정책의 일관성 결여(73%), 정부 태도(65%), 빈약한 도로 수송망(57%), 외화 송금의 애로 및 불안정한 환율(53%), 정치적 불안정성(51%) 등을 지적 하였음.

필리핀의 투자 매력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가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교육수준(90%), 영어사용 능력(84%), 중간관리자 및 기술자의 수와 수준, 현지생활여건(51%) 등이었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응답업체들이 지적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줄일 것
- 투자자에 대한 세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합리화하여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것

- 전력공급능력 확충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할 것
- 사업환경을 자유롭게 하고 보호주의적 태도를 중단할 것, 공공사업을 민영화할 것
- 합법적 사업 환경에 법원이 끼어드는 일을 최소화할 것
- 공공부문 적자와 부채문제를 즉각적이고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것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들 주요 기업들은 아시아에서의 투자 선호지역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을 꼽았고, 필리핀은 일곱 번째로 꼽아, 투자확대를 고려할 경우 필리핀에서의 사업확장보다는 다른 나라로의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됨.

투자대상지로서의 필리핀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2002년 8위에서 2003년 6위로 올라갔다가 2004년에 6위에 머물렀으나 평가한 점수로는 2003년보다 낮아졌음. 2003년에 베트남은 8위, 말레이시아는 7위였음.

나. 외국인 투자제한 및 금지 분야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40%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방 은행, 대중 매체, 전문 직종에서의 직업행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나 지분소유가 금지됨. 네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영역에 있어 100% 외국자본 투자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받지 못함. 만약 네가티브 리스트 C에 포함되더라도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 100% 외국인 투자 가능. 세부적인 투자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참고

재선에 성공한 아로요 대통령이 2010년까지의 임기 중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대중매체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04년 9월말 발표. BOT (Build-Operate-Transfer)법 및 시행령도 개정하여 정부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는 외국 업체에는 60% 필리핀인 지분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임. 그러나 이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려우며, 임기 중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1) 사기업에 금지된 산업

사기업에 금지된 산업은 없음. 필리핀 헌법은 사기업의 기업확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천연 자원의 탐사나 개발 중 대규모 광업의 생산품 분배 계약(MPSA) 및 소규모 광업 등은 국가의 통제와 감독을 받음. 이러한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자원 탐사나 개발의 경우 필리핀 민간지분 60%인 개별기업과 공동생산이나 합작투자, 생산물 공유계약을 할 수 있음.

2) 외자소유에 대한 규제

옴니버스터투자법 1987은 다음과 같은 기업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

- 생산물의 최소 70%를 수출하는 수출위주의 기업.
- 개척(파이어니어) 기업
- 수출 가공 지대 관리청에 등록된 기업

투자청(BOI)은 투자우선순위계획(IPP)에 의거 저개발 지역에서의 비개척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허용. 외국기업은 다음 분야에서만 100% 단독투자 가능.

- 투자우선순위계획(IPP)에 의해 '개척산업'으로 규정된 산업
- 수출 가공 지대에 의한 수혜를 받는 산업
- Republic Act 7042하의 과도기 네가티브 리스트 A, B, C에 규정되지 않은 산업

필리핀에서는 합작투자회사의 설립이 권장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음.

기타 규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필리핀인만 가능.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 가능. 외국인은 임대 토지에서 빌딩을 소유할 수 있음. 필리핀인 지분이 60% 이상인 일반기업은 리스의 형태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한 공유지를 보유할 수 있음.

3) 과도기의 네가티브 리스트(Transitional Negative List)

다음은 RA 7042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의 과도기 네가티브 리스트임. 이 리스트에는 일반 금융법(General Banking Act) 및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 통제 받는 금융업 및 보험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법례: CA - Commonwealth Act; LOI - Letter of instruction; PD - Presidential Decree; RA - Republic Act; 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OT - Build Operate Transfer)

□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 제한

(외국자본 불허 업종)

- 대중 매체 (헌법 Art. XVI, Sec. 11)
- 허가된 전문직의 수행을 포함하는 서비스업 (헌법 Art. XIV, Sec.14; RA 5181, Sec. 1): 회계/ 건축/ 형사학/ 통관중개/ 엔지니어링/ 산림/ 지질학/ 법률/ 문헌정보/ 갑판원/ 항해사/ 의료/ 설탕 기술/ 인테리어 디자인/ 화학/ 조경술/ 환경계획/ 배관공사 소유권/ 복지사업/ 교육/ 농업/ 어업
- 미화 250 만 불 이하의 자본을 가진 소매 무역 회사(RA 8762, Sec. 5)
- 협동조합 (RA 6938, Ch III, Art. 26)
- 사설 경호(RA 5487, Sec. 4)
- 소규모 광산 (RA 7076, Sec. 3)
- 군도,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수산자원의 활용 및 강, 호수, 만, 개펄 내에 소규모 수산자원의 활용 (헌법 Art. XII. Sec. 2)
- 투계장의 소유, 운영, 관리 (PD 449, Sec. 5)
- 핵무기의 공급, 제조, 수리, 선 구매(stockpiling) (헌법 Art. XII. Sec. 2)
- 생·화학, 방사선 무기의 공급, 제조, 수리, 선 구매(stockpiling)
- 폭죽 및 기타 불꽃 장치의 제조 (RA 7183. Sec. 5)

(2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사설 라디오 통신 네트워크 (RA 3846)

(25%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국내외 고용에 관련된 인력지원(recruit)업 (PD 442, Art 27)
- 지방의 관급 건설이나 수리 계약 (CA No. 541, Sec 1; LOI No. 630)
 - 단, RA 7718 에 명시된 기간시설/개발 프로젝트;
 - 외국 자본 및 원조 프로젝트와 국제 경쟁 입찰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제외
- 방위관련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계약 (육, 해, 공군 및 해안경비, 병기고, 병영 막사, 보급소, 격납고, 비행장, 병원 등) (CA 541, Sec. 1)

(3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광고업 (헌법 Art. XVI, Sec. 11)

(4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광물 생산품 분배계약(Mineral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 사유지 소유 (헌법 Art. XII, Sec 7)
- 공공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 (헌법 Art. XII, Sec 7)
- 교육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소유 및 설립 (헌법 Art. XIV, Sec. 4)
- 쌀, 옥수수의 소매, 교역을 제외한 재배, 생산, 제분, 처리, 거래 행위 (PD 194, Sec. 5; RA 8762, Sec. 15)
- 정부소유 혹은 정부 관리기업 및 대리점, 지방당국 기업에의 원자재 및 상품 공급에 관한 계약 (RA 5283, Sec. 1)
- 공공시설 허가권이 필요한 BOT 프로젝트의 제안 및 설비 운영 (헌법 Art. XII, Sec. 11; RA 7718, Sec. 2(a))
- 심해 상업적 어로 선박 운영 (RA 8550, Sec. 27)
- 회사 조정 (PD 612, Sec. 323, PD 1814)
- 콘도미니엄 전체 소유권 (RA 4726, Sec. 5)

(60%까지 외국자본 허용 업종)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 (RA 5980, Sec. 6; RA 8556)
-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투자회사 (PD 129, Sec. 5; RA 8556)

□ 보안, 국방, 국민보건상의 위험, 혹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외국자본 소유 제한

(외국자본 한도 40%까지 허용 업종)

- 총기류, 탄약, 무기, 군용물품, 폭발물, 조명탄 및 그 부품 또는 그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제조, 수리, 저장, 혹은 배포

(필리핀 경찰청 허가사항)

- 총기(권총 및 소총), 총기류의 부품
- 무기류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의 장비류
- 화약, 다이ना마이트, 폭발물품, 폭발물 제조를 위한 성분
- 망원경, 적외선 조준기 및 유사 장비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

- 전쟁용 총기류 및 탄약, 핵무기류, 군수품 및 관련 부품
- 총포류, 포탄, 사격통제 시스템 및 그 부속류
- 유도미사일, 미사일 시스템 및 그 부속류
- 우주선 및 그 부속 시스템, 항공모함 및 보조함
- 무기 수리 및 유지 장비, 군 통신장비, 야간의 식별용 暗視장비
- 생물학 무기 구성요소, 군사훈련장비

(기타규제 및 허가사항)

- 위험약품의 제조 및 유통 (RA 7042; RA 8179)
- 사우나 및 스팀 목욕업, 마사지 클리닉 및 유사 업종은 국민 보건 및 윤리에 미칠 위험으로 인하여법의 규제를 받음 (RA 7042; RA 8179)
- 경마장운용, 소유, 경마의 수입과 같은 오락관련 영업(RA 7042; RA 8179)
- 자본금 US\$ 20 만 이하로 운영되는 내수기업 (RA 7042; RA 8179)
- 첨단 기술을 소유하거나 최소 50 인의 직접 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으로서 자본금 US\$ 10 만 이하로 운영되는 내수기업 (RA 7042; RA 8179)

□ RA 7042 및 기타 법규, 행정규제 및 일반 관행에 의해 규제 받는 영역**(40%까지 외국자본 허용 분야)**

- 상품의 제조와 무관한 수입 및 도매행위 (RA 7042)
- 라이선스나 특정 인허가가 필요한 사하거나, 투자청(BOI)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이외의 다른 중앙정부 기관의 지속적인 규제를 받거나 RA 7042의 발효일 당시 기존의 행정규제 및 관련 행정기관의 관례에 따라 필리핀 국민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업 (RA 7042)
- 관광 에이전트
- 관광 숙박업 (기숙사, 여인숙)
- 각종 집회 조직자 (Convention and Conference organizer)
- 전문적 재보험 서비스 및 보험중개를 포함한 생명 및 비생명보험 대리점
- RA 7042 발효일 현재 라이선스 계약기간 동안 외국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기술, 노하우, 브랜드 네임 라이선스를 제공받아 필리핀인이 국내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조립, 가공, 제조하는 외국인 라이선스 제공자나 그 동업자가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RA 7042)

4) 소매업

소매업은 1999년까지는 외국인 지분소유가 불허 되었으나 3월7일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소매업 개방화 법안(REPUBLIC ACT NO.8762)에 서명함으로써 수년간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소매업 개방되기 시작함. 그러나 최소자본금이 너무 많고 제약이 많아 실제 효과는 별로 없음.

동 법은 과거에 금지됐던 소매업(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모든 업종)을 아래의 4가지 CATEGORY로 분류 그 중 B, C, D에 해당되는 소매업에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CATEGORY A: 납입자본금 250만불 이하의 규모로 여전히 필리핀 개인 및 법인만 지분 소유 가능.
- CATEGORY B: 납입자본금 250만불~750만불 규모의 소매업으로 법안 발효 후 2년까지는 지분의 60%까지 소유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100% 소유가 가능.
- CATEGORY C: 납입자본금 750만불 이상 규모의 소매업으로 외국인의 100% 소유 가능.
- 다만 CATEGORY B, C 모두 매장 설립 비용이 83만불 이상이어야 함.
- CATEGORY D: 고급·사치품을 판매하는 납입자본금 250만 불 이상 규모의 소매업으로 외국인 100% 소유 가능.

그러나 위 4가지 CATEGORY에 속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 기업만이 소매업에 진출할 수 있음.

- 본국 모기업의 순 자산가치 기준: CATEGORY B, C의 경우 2억불, D의 경우 5천만 불을 넘어야 함.
- 본국 모기업의 매장 기준: 전세계 어느 곳이든 5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매장 중 하나의 자본금이 250만 불을 넘어야 함.
- 소매업 경험: 5년 이상 소매업에 경험이 있어야 함.
- 소매업 개방 상호주의 기준: 필리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매업투자가 개방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소매업 허가를 받더라도 매장이외에서의 상품 판촉활동은 금지되며 최소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함. 최소자본금은 필리핀 중앙은행이나 통상산업부에 의해 확인된 자본금이어야 함.

필리핀은 막사이사이 대통령 시절인 1954년 소매업 금지 법안을 발효, 외국인의 소매업 진입을 금지한 바 있음. 당초 동 법의 취지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화교들의 소매업 행위를 제한하여 필리핀인들의 소매행위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화교들이 귀화 등 절차를 거쳐 소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게 됨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화교들을 타 외국 업체들에게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버림.

소매업 환경 또한 소매금지법 발효시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바뀜. 예전에는 재래시장과 단순 물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형태의 소매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ENTERTAINMENT COMPLEX의 역할을 하는 대형 쇼핑몰이 늘었으며 이에 견주기 위해 일정 자본금 이상의 소매업 진입을 허용하게 됨. 그러나 자본금 하한선이 너무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여전히 외국업체에게는 진입이 어려움. 현재 소매 유통업에 공식 진출한 외국인투자업체는 미국계 PriceSmart 한 곳뿐임.

다. 투자허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허가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투자 허가/등록 기관
 - 투자 인센티브를 수혜 받는 경우와 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인센티브 수혜 경우

BOI (Board of Investment: 투자청): IPP (Investment Priority Plan: 인센티브 부여 대상 리스트로 매년 갱신 하며 일반적으로 4월 경에 당해 년도 리스트 발표)의 대상이 되는 투자 건의 인센티브부여 여부를 검토, 승인. 2006년 자료는 필리핀투자청 홈페이지(www.boi.gov.ph)에 있는 'Doing Business' 란 참고.

- 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공단관리청): 정부소유 공단(수빅 및 클라크 특별경제지대 제외) 및 민간 개발공단으로서 PEZA가 승인한 공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단 입주 허가 및 입주 업체 관리, 지원을 담당
- SMB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수빅만관리청): Subic Bay Freeport Zone 입주허가, 입주업체 관리, 지원 담당기관
- CDC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클라크 개발공사): Clark Special Economic Zone 입주허가, 입주업체 관리, 지원 담당기관

2) 인센티브 비 수혜 경우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이곳에 등록
- BTRCP(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내의 부서로서 개인소유 기업의 경우 동 기관에 등록
 - 인센티브 수혜의 경우 상기 각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SEC 또는 BTRCP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기타 투자관련기관
 - BSP(Central Bank: 중앙은행): 상기 허가 및 등록절차를 거친 후 외국기업의 경우 중앙은행에 등록 필요. 이는 과실송금 및 투자자본 철수시 동 중앙은행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임.
 -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청): Tax Identification Number 발급
 - MMA(Metro Manila Authority):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에서의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동기관의 허가 필요(Location Clearance/ Building Permit/License to do Business)
 - City Hall 또는 Municipal Office: 메트로 마닐라이외지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 건축허가 등 MMA와 같은 허가

- SSS(Social Security System): SSS는 사회보장기금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동 기관에 등록하고 피고용인별 SSS Number를 받아야 함.
- Phil Health Corp. :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기금으로 피고용인 부모
- MERALCO(Manila Electric Co.) : 메트로마닐라 및 인근 수도권일대를 커버하는 민간 전력판매 회사로 전력 연결 신청
- Local Electric Utility Firm: MERALCO 사업지역 이외 지역은 지역별로 담당 전력판매 회사가 있으며 해당지역 회사에 전력 연결 신청
- MWSS(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메트로마닐라 지역 용수 공급 기관으로 용수 공급신청
- Local Water Utilities Administration: 메트로 마닐라 이외 지역은 각 지역 별로 용수 공급기관이 있으며 해당지역 기관에 용수 공급 신청
- 허가서 획득 이후 제반 절차
 - 기타 투자관련 기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 등록, 납세번호 획득, 사회 보험 기금 등록, 의료보험가입, 용수 및 전력공급 신청, 시청 등 지방행정기관에의 사업자 등록 및 건축허가 획득, 노동부 등록 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있음.
 - 투자청의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신청, PEZA 등록 등을 위한 사전조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신청 및 SEC 등록에서부터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그 이외의 절차는 통상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할 경우 시간과 돈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이며 세세한 작성방법, 관행 등을 모르므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 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 제반 사항 등을 대행해주는 변호사비용이 1,200-1,500불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은 수준.
 - 필요서류의 준비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
 -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 이외에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특별허가 취득 절차가 있음.
 - Alien Employment Permit (AEP) :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 Registration for Operation of Customs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CBMW)
 - 공장 내 보세구역 설정: Bureau of Customs
 -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 Dep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내의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 Projects involving land use/conversion(토지사용/전용이 수반되는 프로젝트): Housing & Land Use Regulatory Board(HLURB), National Housing Authority(NHA),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AR)
 - Permit to construction/operate pollution control devices(에너지, 화학, 염색 등 환경오염가능 공장,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허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 Trademarks/Patents registration : Bureau of Patents, Trademarks & Technology Transfer (BPTTT)

- Registration of power Generation projects : National Power Corporation (NAPOCOR)
 - Philippine Standard(PS) Quality Mark (내수 판매 소비재의 필리핀 표준 적합성 여부 심사): Bureau of Product Standards (BPS)
 - Clearance for projects which involve food, chemicals and others : Bureau of Food and Drug (BFAD)
 - Registration of tourism projects : Department of Tourism (DOT)
 - Franchise for mass transit operation : Land Transportation, Franchising and Regulatory Board (LTFRB)
 - Telecommunication projects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NTC)
 - License/clearance for defense-related projects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
 - Registration of advanced technology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선진기술 등록):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OST)
 - Clearance for health-related projects : Department of Health (DOH)
 - Clearance for oil exploration activities : Office of Energy Affairs(OEA)
 - 광업권 획득: Mines & Geosciences Bureau (MGB)
- 투자자금의 송금
- PEZA 등록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01, PEZA 등의 승인이 난 후 SEC(증권거래국)에 등록(투자인센티브 수혜기업이 아닌 경우 바로 SEC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동 기관에 등록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납입자본금의 필리핀 내 은행에 납입해야 함. 이후 SEC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은행(BSP)에 등록해야 함. 등록은 이익금 송금, 투자자본 철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임. 법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송금 후 SEC 대신 필리핀 무역산업부 내 BTRCP (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에 등록하면 됨.

34. 투자인센티브

가. 투자정책

-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자본의 본국송금 및 배당금과 이자의 송금이 자유로움.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수출확대, 경제성장,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도모.
- 일반적 투자인센티브 계획은 외국 자본과 기술이 지역 자원을 보충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근거함.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순위(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의거 투자청(B01)이 외국자본 유치가 필요한 특정 분야를 지정. 2006년도 투자우대분야는 투자청 인터넷홈페이지(www.boi.gov.ph)- 'Doing Business'에 열거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정부재정이 빈약하여 Build-Operate-Transfer(산업시설의 건설-운영-이양)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 참여를 유도. 민간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된 일정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운영, 유지할 수 있음.
- 외국자본 및 투자에 따른 수익의 본국 송금은 물론 필리핀 내 송금에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음.

나. 관련 법규

- 투자우선순위계획(IPP)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투자분야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 리스트는 투자청이 민간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갱신 발표함. 1991년 외국인 투자법(Republic Act 7042)에 전략상 규정된 부문만이 IPP에 포함됨. 옴니버스 투자법 1987은 지속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한 수량적 제한이 철폐되어 시장경제 환경이 조성됨.
- 옴니버스 투자법은 저개발 지역과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한 외국인 소유 및 외국인 경영의 개척산업과 수출지향기업에만 세제혜택을 부여. 비 개척 산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는 환영 받지만 필리핀 기업과의 최소지분 출자형태의 합작투자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센티브 수혜 가능.

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 수출업의 경우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이 전혀 없음.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생산물의 70% 이상을 수출하면 수출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내수업의 경우 자본금 20만불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 단독투자 가능. 단, Negative List상에 지분제한이 명시된 분야는 제외.

라. 세제우대

- 세제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청(BOI)이나 수출가공지대 관리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해야 함. 이러한 세제혜택에는 법인세 면제기간 부여, 인건비 지출이나 공공 사회간접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의 추가 공제, 면세나 일정조건 하에서의 신용구매 등이 있음. 옴니버스 투자법(1987) 하에서의 투자 인센티브는 지역에 규제 대상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투자우선순위계획에 의거 수출가공지대 관리청 및 투자청에 등록된 모든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원부자재 도입분에 대한 수입관세 및 제세금 면제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35. 타당성조사

- 투자대비(투입 대비 예상 성과) 성취가능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지 내수 보다는 제3국으로 수출을 위한 것인지 여부
 - 투자 진출에 따르는 인센티브와 직결됨
- 최적의 원자재 공급 방안 검토
- 향후 법인 철수에 대비한 안전 장치 마련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지사개설 환경

- 외국회사의 지점(Branches of Foreign Companies)은 모회사가 지점의 모든 활동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짐.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는 지점형태보다는 본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필리핀 내 자회사(Subsidiary Corporation)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행위는 할 수 없으며 본사 고객을 위한 정보 배포, 상품판매 진흥활동 등 간접적인 사업 활동만 할 수 있음. 동 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본사는 사무소 운영을 위해 최소 년 5만불 이상의 운영비를 송금해야 함.
- 필리핀의 경우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에 대한 정의/개념이 없으며,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가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음.

나. 지사 및 대표사무소 설립 방법

- 지사(Branch Office) 설립을 위한 구비서류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유사하며 지사 역시 SEC에 등록. 지사 설립 허가 신청 전 투자자는 최소 미화 20만 불을 필리핀 현지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단, 최신 기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지사의 경우 10만 불, 수출지향 지사의 경우 예치금 없음), 지사설립 허가 이후 60일 이내에 SEC에 최소 10만 페소(약 2천불)를 예치해야 함. 동 예치금은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행 담보금 성격을 가지며 총소득(Gross Income)이 5백만 페소(약 10만불)를 넘을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총소득의 2% 해당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하며 매년 총소득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증가분의 2% 상당금액을 예치해야 함.
-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먼저 투자국의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행위는 할 수 없으며 본사 고객을 위한 정보 배포, 상품판매 진흥활동 등 간접적인 사업 활동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 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본사는 사무소 운영을 위해 최소 연간 3만 불 이상의 운영비를 송금해야 하며, 따라서 동 사무소는 기업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필리핀 중앙은행(BSP) 및 국세청(BIR)에 사업자 등록 의무를 지지 않고 증권거래 위원회(SEC)의 등록만으로 사무실운영이 가능함.

다. 기타회사 설립 방법

1) 회사설립

- 회사의 종류: 자본금의 조달형태를 기준으로 주식회사(Stock Corp.)와 비주식 회사(Non-stock Corp.)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주식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밖에 외국 회사의 지점이 있음.
- 주식회사(Stock Corp.)의 설립절차
 - 기본정관의 작성 및 제출

- 5인 이상 15인 이하(과반수가 필리핀 거주자이어야 함.)의 발기인이 기본 정관을 작성, 공증인의 서명과 함께 증권거래 위원회에 제출.
- 기본정관 수록사항: 회사 명칭, 회사설립 목적, 본사 소재지(필리핀 국내에 한함), 회사존속기간, 발기인 성명 및 주소, 회사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인 이상 11인 이하, 그 중 2인 이상이 필리핀인), 총 자본액, 주식 총수 및 1주의 금액 (무액면주의 경우 주식수), 인수 주식의 총수(무액면 주식의 경우 주식수),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및 인수액
- 신문지상 공고 및 정관의 법원 제출
-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인 설립사항을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동 정관을 법원에 제출, 회사 설립 증명서를 발급 받음.
- 부속정관의 작성 및 제출
- 기본 정관이 제출된 후 1개월이 내에 부속정관을 작성, 제출.
- 부속정관 수록사항: 정기 및 특별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주식의 의결권, 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및 권한 등, 주주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인수 주식의 과반수 주주의 동의를 얻어 기재.

2) 합작법인 설립 절차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
- 단,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자본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SEC)와 기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투자청(BOI) 또는 수출공단 관리청(PEZA)의 허가를 받아야 함.

라. 투자형태의 결정

- 필리핀 투자 시 합작투자, 단독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전략적 측면 이외에 법적 제한으로 합작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업종이외에 외국인 토지 소유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합작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필리핀의 공단은 정부소유 공단과 민간개발 공단이 있는데 정부소유공단의 경우 부지 임차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소유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으나 민간개발 공단의 경우 분양(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규정 때문에 100% 외국인 단독투자가 법적으로 불가능.
- 공단 이외 일반지역에서의 사유지 임차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으나 지주에 따라 장기 토지 임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실정임. 내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경우 현지 파트너의 판매망, 인력활용 측면에서 합작투자가 바람직하며 노무관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노무관리를 맡기는 합작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필리핀은 노조설립이 자유로우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노동정책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채택치 않고 선진국에 가까운 민주적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KMU 등 전문 노동운동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 투자업체들의 큰 애로사항 내지 우려사항의 하나가 노사 분쟁임.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노조가 개입되어 회사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있고 고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노조문제는 전보다 많이 둔화됨.

- 필리핀 기업도 노사분쟁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꼭 현지 파트너가 외국인 경영진보다 노무관리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생소한 외국인 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마. 파트너 선정

- 독자적으로 파트너를 물색하기 힘들 경우 필리핀 투자청(BOI)에서는 합작파트너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음.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내수 판매, 관리 등 파트너의 역할을 먼저 분명히 정하고 이에 적절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좋음. 일반적으로 자본이 있는 필리핀 사업가들은 제조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부동산, 상업, 금융 기타서비스업 등을 선호하고 있어 합작선으로 나선 파트너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합작을하기를 원하는지 사전에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의 목적이 우리측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함.
- 필리핀에서 파트너 선정에 있어 애로사항은 경제적인 상류층과 하층이 너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자본 여력이 있고 왕성한 기업욕을 가진 중소기업의 존재가 미미하다는 점이며 또한 자본과 기업경영 의욕, 능력이 있는 중견기업들도 제조업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임.

37. 입지선정

가. 필리핀의 산업공단 개요

필리핀 산업공단관리청인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77개(2006년 6월 기준)의 공단에 1,129개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루손섬에 위치함.

중앙정부가 개발한 Public Economic Zones으로는 Baguio City Economic Zone, Bataan Economic Zone, Cavite Economic Zone, Mactan Economic Zone의 4개 공단이며 총 438개사가 입주해 있음.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공단(Private Economic Zones)으로는 Laguna Technopark,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Light Industry & Science Park 등 41개 공단이 있으며 총 529개 업체가 입주함.

그 외에 정부가 별도 지정한 IT공단 및 지정 건물들은 Eastwood City Cyberpark 등 31개로, 161개의 IT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관광 경제 공단(Tourism Economic Zone)의 경우 Eastbay Arts, Recreation and Tourism Zone이 있으며 1개 업체가 입주해 있음.

공단 내에 수출가공지대와 일반지역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업종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수출가공지대는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만 입주할 수 있으며 수출입 통관 등에 편의를 제공. 이러한 행정적 편의제공 외에도 조세감면,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나 이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게만 국한되는 혜택은 아니며 생산품의 7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및 투자 우선순위에 포함된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부여되는 혜택임.

일반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조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 공단입주의 장점은 조세상의 특혜보다는 사회간접자본 이용, 공단관리업체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공단 외 지역보다 유리한 점임.

초기단계에는 국가공단으로 수출가공지대를 개발하여 임대방식에 의해 활용하였으나 점차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단개발에 나섰으며 정부에서도 재정부족으로 민간공단의 개발을 장려함.

민간공단은 대부분 임대방식이 아닌 매각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선 분양 후 개발의 경우가 많아 정부의 토지전용허가 등을 살펴본 후 매입해야 함.

나. 대표적 공단 소개

면적상으로는 Bataan Economic Zone이 가장 크나 아직 절반 정도 밖에 개발되지 않았으며, 입주업체가 가장 많은 공단은 메트로마닐라 인근의 Cavite Economic Zone (CEZ)로, 이곳에는 한국 업체들도 많이 입주해 있음.

다. CAVITE ECONOMIC ZONE (CEZ)

- 소 재 지: Rosario Town, Cavite Province, Philippines
- 부지면적: 278.51 ha
- 조성주체: 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공단성격: 정부에서 조성한 국가공단으로 수출지향 업체만 입주할 수 있음.
- 입주 비용
 - 토지임차 비용 : m²당 임차료 (단위 : 페소)
 - 2000.1.1 - 2004.12.31 : 17.55
 - 2005.1.1 - 2009.12.31 : 26.33
 - 2010.1.1 - 2014.12.31 : 39.49
 - 표준공장 건물 임차 비용 : m²당 임차료 (단위 : 페소)
 - 2000.1.1 - 2001.12.31 : 122.74
 - 2002.1.1 - 2003.12.31 : 147.29
 - 2006년 5월 기준: 170.00
 - 국가공단으로 토지 및 건물을 판매하지 않고 임대만 함.
 - 임차료는 월 선불 지급, 2개월 분 임차보증금 납부
- 교통
 - 항만: 인근 마닐라항 이용(45km 거리, 약 1시간 소요)
 - 철도: 이용 불가능
 - 공항: 국제공항인 NINYO AQUINO INT'L AIRPORT(40km 거리, 50분 소요) 이용
 - 도로: Coastal Road, South Luzon Expressway 등 중심도로 이용 가능

- 전력
 - 국영전력회사인 National Power Corp.에서 전력 공급.
 - 비상발전기가 있어 정전 시에도 문제가 없음.
- 용수
 - 지하수를 이용, 총 370마력에 달하는 18개 Pumping Station
 - 용수공급에 별다른 문제 없음.
 - 요금 : 1,000㎥까지 ㎥당 6.2 페소, 초과 분에 대해서는 ㎥당 7.2 페소.
- 통신
 - PLDT, Globe Telecom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총 4,000개의 라인 사용 가능.
- 인력조달 및 임금 수준
 - Rosario Town과 인근 Cavite 지방에 걸쳐 60만 명 이상의 노동력 보유.
 - 50만 정도 고용, 10만 명 가량의 실업인구가 있어 유휴인력이 풍부함.
 - 동 지역 최저임금은 266 페소/일 수준임(2006년 1월-현재)
- 기업 입주현황 : 총 260개 (2006년 6월 기준).
 - 한국 111, 일본 90, 필리핀 35, 대만 6, 미국 4, 독일 3, 영국 3, 중국 2, 싱가포르 1, 이탈리아 1, 아일랜드 1, 프랑스 1, 스웨덴 1, 말레이시아 1개사 (합작회사의 경우 대주주 국가 기준)
- 한국기업 입주현황 : 총 111개사 (등록 기준)
 - 맥슨전자, 주영전자, 혜성산업, 청원패션 등 전자, 의류업체들이 주로 입주.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전자, 의류, 경공업분야(금속관련 산업 포함) 관련업종 입주 가능
 - 공해산업 입주 제한
- 우대조치
 - 4년간(최장 8년까지) 법인세 면제
 - 시설, 자본재 도입 시 관세 등 제세 면제 등 기타 세제 혜택
 - 기타 수출입시 편의 제공,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없이 이익금의 본국송금 가능 등
- 입주여건 평가
 - 수도권에 근접한 곳으로, 한국업체가 가장 많이 입주한 공단. 인건비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비싸기는 하나 물류 등 제반 여건이 좋은 공단임.
- 연락처
 - Cavite Economic Zone Administration
 - Add : Rosario Town, Cavite Province, Philippines
 - Telefax : 63-46) 437-6090, 6344
 - E-MAIL : cez@pldtDSL.net
 - Contact : Ms. Cecilia Z. Veleña(Engineer) / Zone Administrator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Add : PEZA Bldg., Roxas Blvd. cor. San Luis St., Pasay City, Metro Manila
 - Tel : 63-2) 551-3454, 3455, 3438
 - Fax : 63-2) 891-6380, 511-3436
 - Web Site : www.peza.gov.ph
 - E-mail : info@peza.gov.ph / webmaster@peza.gov.ph
 - Contact : Atty. Lilia De Lima / Director-General

38. 공장설립

가. 공장설립 인허가

공단이 아닌 일반지역의 경우 공장설립 이전에 토지사용허가(Land Use Clearance) 및 공장 건축허가(관할시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통상 1주에서 2주 소요되며 환경청으로부터 설치예정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증명서인 Environmental Clearance Certificate(ECC)를 발급 받아야 함. (동 절차도 변호사가 대행)

나. 공장 입지 여건 분석

1) 교통여건

- 필리핀의 운송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열악함. 내륙운송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운송이며 철도운송은 거의 없는 실정. 7,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관계로 도로운송에도 한계가 있으며,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운송도 부두시설의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함.
- 또한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 외국회사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 선사들이 노선 별로 독점 또는 과점-담합을 하고 있어 해상 운송비가 턱없이 비싼 경우가 많음. 육상 운송의 경우에도 총 운송비가 실질적인 트럭운송비의 4~5배가 되는 등 운송부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의 경우 입지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함.
- 참고로 마닐라-부산간 40 Foot 컨테이너 해상운송비가 약 500불이라면 민다나오-마닐라간 운송비가 3배에 달하는 1,500불에 달하며 이는 과거 3개 선사가 1개 선사로 합병하면서 동 노선이 독점상태이기 때문. 한국업체들이 많은 카비테 지역에서 마닐라 항구까지의 40F 컨테이너 운송비가 800불-1,000불까지 소요되고 있는데 실제 트럭 운송비는 160-200불 수준이나 운송 경비료(실제로는 경비가 동등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지불함에도 운송도중 분실된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세관원 등 관계 직원의 야간근무수당, 사례비(실제 모든 과정에서 소액의 사례비가 소요되기는 하나 운송회사가 더 붙이는 경우도 있음. 운송회사를 바꾸어도 이러한 청구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관례화 되어 있어 불합리한 청구임을 알아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음) 등 부대경비가 많아 실제 물류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됨. 공단이 밀집해 있는 마닐라 남쪽의 카비테 지방, 라구나 지방의 도로사정도 열악하여 30-40km 떨어진 곳의 평일 자동차편 소요시간이 2시간도 걸리며 러시아워나 강우량이 많을 경우는 3-4시간도 걸리는 등 대중이 없으며 특히 인근에 주거지가 있을 경우 트라이시클(삼륜 모터 사이클 또는 자전거) 지프니 등 저속 차량이 많아 거리에 관계없이 시간이 많이 소요 됨. 육상운송 소요시간은 거리로 가늠하기 어려움.

- 또한 대형트럭(6륜 이상)은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까지만 메트로마닐라 지역을 통행할 수 있는데 국제항인 마닐라항 및 마닐라의 국제공항인 아키노 공항으로의 수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트로마닐라를 통과해야 하므로 수출입 화물은 야간에만 수송이 가능.
- 따라서 수출입화물 수송측면에서 본다면 마닐라 남쪽 인근의 어떤 공단이나 지역도 운송 사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까지 있는 남부 고속도로(South Super Highway)인근지역이 비교적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마닐라 북쪽으로도 클라크 특별경제지대까지의 70km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므로 동 고속도로 주변이나 클라크 지대, 클라크와 접해 있는 Angeles Industrial Park공단 등 (클라크는 최근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마닐라에서 클라크까지의 철도 개설과 함께 아키노공항을 대체하는 필리핀의 관문으로 개발할 계획임) 교통 여건은 까비테, 라구나 지역에 비해 별로 나쁘지 않음. 내수시장이나 필리핀 내 원자재 조달이 필요 없는 수출가공업의 경우 자체 국제항구 및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수빅 특별경제구역이 물류 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2) 전력/용수 공급방안 및 절차

- 전력 대량 수요기업의 경우 지역 전력판매회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전력 생산회사로부터 직접 라인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력료 부담이 줄어듦.
- 필리핀의 전력료는 한국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현재 필리핀의 발전이 대부분 중유를 쓰는 화력 발전이기 때문인데 향후에는 팔라완 섬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 발전과 지열 발전, 석탄 화력 발전 등 연료비용이 저렴한 발전소를 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력료가 인하될 전망.
- 전력 요금은 민다나오섬 일대가 가장 저렴한데 타 지역에 비해 약 40% 저렴. 이는 민다나오 섬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수력발전량이 많기 때문. 따라서 전력 다 소비업종은 민다나오섬에 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나, 민다나오 지역은 메트로마닐라나 수빅, 세부 등지에 비해 치안이 불안한 점을 감안해야 함.
- 필리핀은 1994년 이후 전력부족이 거의 해소되어 현재로서는 도시지역 및 공단 지역의 경우 전력 부족으로 인한 단전은 거의 없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단전이나, 대부분의 전력선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우기에는 수시로 짧은 시간 이긴 하지만 단전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상 대책은 있어야 함. 2000년대 후반기에 가면 루손섬에도 전력부족 사태가 예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6년 ‘한국전력’과 동 지역에 125만kW급의 ‘일리한(Liljan) 발전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였음. 2002년 5월 한전은 일리한 발전소에서 125만kW의 전력을 생산하였고 이 전력량은 한국의 ‘고리 원자력발전소(100만kW)’ 보다 큰 규모임.
- 정전 및 단전사태에 대비하여 대부분 자체적으로 비상발전기(Back-up Generator)를 설치하고 있는데, 2005년 6월 말까지 일반 가정(단독주택)과 병원용을 제외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에너지 관리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ERC)에 등록해야 함. 등록되지 않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대당 10만 페소의 벌금에 지체일수당 1천 페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함. (전력산업개혁법 시 행정;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 of Republic Act 9136 -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 of 2001)

- 일부 공단의 경우 물 과다 소비업종은 입주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업종의 경우 사전 점검이 필요. 각 지역 급수기관으로부터 용수를 공급 받는 방법 외에 공단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 저수조 설치 등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으며 기업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도 있음.

3) 통신 여건

- 1993년부터 1개사 통신독점체제를 개혁하여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복수 통신 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전화라인 설치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전화망 확충에 노력한 결과 전화보급이 상당히 늘어남.
- 휴대폰의 경우 다수 업체의 경쟁체제로 인해 기기가격 및 통화료가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발달.
- 공단 및 상업지구 등 통신케이블이 부설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회사용 전화라인의 설치에는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며 국제전화를 포함한 전화료도 적절한 수준이며 통신품질도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
-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층에게는 전화가 사치품에 속하고 전화 보급율도 낮은 수준이며 공중전화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종업원들과의 연락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있음. 최근 저가 단말기 보급 및 이동통신사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 등으로 휴대전화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도 이동전화를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4) 노동력 확보

- 필리핀은 전국 어느 지방도 문맹률이 10%이하이고 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음. 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있으나 불완전고용이 20%정도 되어 실제 취업률은 7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전국 어디에서나 노동력 확보는 별반 어렵지 않음.
- 일반노무자도 최소 고졸인력, 많은 경우 전문학교내지 대학 졸업자로 충당할 수 있음. 노동력확보와 관련 카비테, 라구나, 메트로마닐라 등 공장 밀집지역은 미소한 월급 차이에도 쉽게 이직을 하는 등 이직율이 높고 노조세력도 영향을 미치는 등 불리한 면도 있음.
- 그러나 경험이 있는 숙련노동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면에서는 공단 밀집지역이 유리.

다. 입지선정

1) 토지임차 / 매입

토지 임차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국가소유공단(4개 공단) 및 수빅, 클라크 특별경제지대의 경우로 장기임대 방식임. 현재 4개 국가소유공단은 개발 완료된 곳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기존 입주업체

가 철수할 경우에만 신규 입주가 가능. 각 공단들이 추가확장 또는 유보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음. 수박의 경우에도 기존 공단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 둘째, 공단 이외 개인 사유지를 임차(최장 50년)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높아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지주들이 합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토지 매입도 두 가지로 나누어 짐.

- 첫째, 민간개발 공단을 분양 받는 것으로 개발업체로부터 매입. 민간개발공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완료 후 판매방식이 아닌 선 분양 방식을 취함.
- 둘째, 공단 이외의 일반지역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장용지로의 사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 필리핀 헌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은 토지 지분의 40% 밖에 소유할 수가 없어 합작투자가 불가피해짐.

라. 공장건물 건축

- 건축허가는 해당 시청 또는 자치단체에서 받음. 필리핀 건설업체들은 공기도 오래 걸리고 약속한 공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조업시작에 지장을 초래 할 수가 있음. 특히 6월에서 10월에 걸친 우기에는 작업이 느려지고 태풍 등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한국에서 샌드위치 패널 등 조립식 자재를 수입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도 신속한 공장건물 건축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B01 인센티브를 받는 투자업체나 수출 가공 지대 입주 업체는 공장설비는 물론 건축자재도 면세로 수입할 수 있음.
- 1996년 말 컨덴서 공장을 설립한 한국전자의 경우 한국에서 조립식 패널을 수입하여 신속하게 공장을 건축한 바 있음.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투자유관기관의 기능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자청(B01)의 주관으로 실행되고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리핀 경제지대 관리청(PEZA)에 문의해야 함. 그밖에 외국인투자 유관기관으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증권거래위원회(SEC), 국가 경제 개발청(NEDA) 및 노동부 등이 있음.

B01은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의와 허가사항을 관장하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우선 계획(IPP)을 입안하는 역할. 외국인투자 상담실을 개설, 투자절차안내 및 등록업무 등 외국인투자자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함.

BSP는 외자도입 및 과실송금의 허가, B01의 심의를 거쳐 등록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관계업무를, SEC는 회사 설립허가 및 공개증권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함.

PEZA는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지대 등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일차적인 허가 및 등록업무를 관장하며, 외국인투자정보센터(OSAC)는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

나. 투자유관기관의 연락처

□ 주한 필리핀 대사관 상무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1동 34-44 한국인 담당: 오지연
- (Simeon L. Hernantez, Jr. / COMMERCIAL ATTACHE & PTIC EXECUTIVE DIRECTOR)
- 전화: 798-2502
- 팩스: 796-0827

□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 BOI)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1200 Makati, Metro Manila
- Tel : (63-2) 896-9332, 895-3638, 897-5582
- Fax : (63-2) 895-3512
- Web Site : www.boi.gov.ph

□ 필리핀 경제지대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

- 6th Fl, Almeda Building, Roxas Blvd Corner San Luis St, Pasay City
- Tel : (63-2) 551-3454/3455
- Fax : (63-2) 891-6380
- Web Site : www.peza.gov.ph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

- Central Bank Bldg, Apolinario Mabini St, cor. Vito Cruz St., Malate, Manila
- Tel : (63-2) 524-7011~53
- Fax : (63-2) 523-3461, 6210
- Web Site : www.bsp.gov.ph

□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 (63-2) 890-4901 to 05
- Fax : (63-2) 895-6487
- Web Site : www.dti.gov.ph

□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 SEC Bldg. EDSA near Ortigas Ave, Greenhills, Mandaluyong City, Metro Manila
- Tel : (63-2) 726-0931~39
- Fax : (63-2) 726-8459

□ 국가경제개발청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 NEDA)

- NEDA Bldg, Amber Drive, Ortigas Complex, Pasig City, Metro Manila
- Tel : (63-2) 631-0945~56
- Fax : (63-2) 631-3747
- Web Site : www.neda.gov.ph

□ 노동/고용통계국 (Bureau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 BLES)

- 3rd Floor, Dole Bldg, Gen Luna Corner San Jose St, Intramuros, Manila
- Tel : (63-2) 527-3579, 9311, 8000
- Fax : (63-2) 527-3579
- Web Site : www.dole.gov.ph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외국계 주요 투자 컨설팅 업체

□ SGV & CO. (Ernst & Young Global 제휴)

- Add : SGV1 Bldg., 6760 Ayala Ave., Makati, Philippines
- Tel : 63-2) 891-0307
- Fax : 63-2) 818-1377
- Email : SGV_Information@sgv.com.ph
- Contact : Mr. Cirilo P. Noel / Head, Tax Services Division

□ Joaquin Cunanan & Co. (Price Waterhouse Coopers 제휴)

- Add : 29/F. Philamlife Tower, 8767 Paseo de Roxas, Makati, Philippines
- Tel : 63-2) 845-2728
- Fax : 63-2) 845-2806
- Contact : Mr. Jerry Isla / Chairman & Sr. Partner

나. 한국-필리핀 법률 컨설팅 업체

□ 법무법인 정안(Counsellors' Centre Law Firm)

1) 한국 사무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 센터 17층 법무법인 영진
- 전화 : 82-2) 552-7285
- 팩스 : 82-2) 552-7289
- 담당 변호사 : 박영구

2) 필리핀 사무소

- 주소 : 1901 Antel 2000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전화 : 63-2) 889-7423 (Trunk line)
- 팩스 : 63-2) 889-7726

41. 노동관리

가. 고용

현지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하에 위험하지 않은 작업에만 종사가능하며 피고용자로 분류되지 않음. 임시직으로 고용했다라도 6개월 이상 고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동 정규직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어려움.

나. 인력

현재 필리핀은 2006년 4월 현재 약 293만 여명의 실업자(실업률 8.7%)가 있는 상태로, 업종과 숙련도 여부에 상관없이 노동력의 확보에는 별문제가 없음.

제조업 미발달로 고기술을 요하는 숙련노동자의 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의 훈련으로 작업에 쉽게 적응하는 편. 가정을 중시하여 집안일 때문에 결근하는 사례가 잦은 편이며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업무영역 이외의 일은 기피하는 성향이 있음.

개선추세에 있기는 하나 특히 부녀자의 경우 치안상의 문제 등으로 잔업 또는 초과근무를 싫어하며, 경영주의 입장에서 생산성과 추가 비용을 감안 시 비효율적. 업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면 실증을 내지 않고 반복적인 작업에도 잘 적응하며 손재주가 뛰어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기간 훈련 후 생산성은 우리나라의 약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임금

급여기준 정규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음.

- 생산직: 하루 8시간 주 48시간
- 사무직: 하루 8시간 주 45시간
- 점심시간: 하루 1시간

임금정책은 노동 고용부 산하 National Wages & Productivity Commission(NWPC)가 관장하고 있으며 RA 6727 (1989년 공포)에 기초하여 최저 임금제가 시행됨. 수도권인 METRO MANILA의 최저임금은 1일 당 300 페소(2006. 7. 11 -현재) 마닐라 근교로 우리나라 기업의 입주자 가장 많은 CAVITE의 일당 최저임금은 1일당 266페소(Cavite Economic Zone 기준). 초과

근무수당의 경우 시간외 근무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피고용자 모두 초과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수도권 업체들의 경우 교통비, 식비 보조 성격의 생활 보조비(ECOLA) 50페소/일 (2006. 7. 11 -현재)을 피고용자에게 지급해야 함.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등 물가상승으로 노동단체들이 임금인상을 요구.

○ 시간외 근무수당

- 정규 근무일: 정상 임금의 125 %,
- 휴일, 일요일 및 특별 휴일: 정상임금의 130 %,
- 야간 근무자의 근무수당: 정상임금의 110 %, (22:00 - 06:00)
- 법정 공휴일(Regular Holiday)이 주당 정기휴일과 겹친 경우 200%.

휴일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하는 일요일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지급을 요하지 않음. 주당 6일 근무 후 최소한 24시간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2004년 12월 노동부 권고령(Labor Department Advisory No. 2)이 발표되어, 유해작업장,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10시간 또는 최대 12시간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변경. 주당 근무시간 48시간을 준수하고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면 근무일수를 6일에서 5일로, 또는 5일에서 4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은 지불해야 함.

라. 외국인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노동법(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Labor Code) Title II 및 Omnibus Rules Implementing the Labor Code Rule XIV에 의거 규정되어 있음.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후 취업코자 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을 필리핀 내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은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Employment Permit)를 받아야 함.

외국인 취업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다른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며 이를 위반 시 노동법제 289조 및 290조에 의거 처벌 받고 추방될 수 있음.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용 후 30일 이내에 성명, 국적, 국내 및 해외고용 직업과 체재자격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에 관한 위임)

모든 거주자인 외국인은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에 등록해야 함. 고용 허가서는 1년 또는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정당한 취업의 사유로 갱신이 가능. Bureau of Employment Services는 이민국(Commission on Immigration and Deportation: CID)에 고용 허가서 발급여부를 통보해야 함.

마. 사회보장제도

1854년 6월 18일 발효된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Law ; RA 1161) Sec.9에 의거 60세 이하의 모든 피고용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동 법 Sec. 8. (C) Employee 규정에서 정부 및 정부기관 등은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신 이들은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Act (GSIA)의 대상이 됨.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마지막 날에 동 법에 의한 Social Security System(SSS)에의 가입 의무가 중단됨. SSS에 의한 혜택은 월간 베이스로 부양가족 연금, 퇴직금, 사망보조금(Death Benefits), 장애자보조금(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장례보조금, 질병보조금, 출산보조금 등이 있음.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42. 조세제도

가. 세제 개요

- 현재 적용되는 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CR)은 1997년 개정됨.
-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특별소비세, 비례세, 인지세 등이 있음.

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

- 부가가치세는 건설 및 서비스 계약업자에 대한 서비스, 주식, 부동산, 세관 브로커 등에 대한 서비스, 부동산 임차료, 창고 서비스료, 요식업 서비스료, 전신전화료, 은행 서비스료 등의 각종 서비스와 수입품(수입품은 수입 시 납부)을 포함한 각종 제품 판매 대금에 대해 12%가 적용됨.
- 그러나 식품용이 아닌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일반 소비용 가축, 비료, 종자, 동물용 사료 등의 수입품, 천연가스나 석탄 및 그 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엔진과 부품을 포함하여 5천 톤 이상의 여객선이나 화물선 수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2006년 2월 1일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조세수입 확대를 위한 국가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10%에서 12%로 인상하였음. 이는 국가 재정회복 프로그램(Fiscal Recovery Program)에 따른 것으로 2%의 부가세 인상으로 연간 미화 15억 불 상당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금년 2월 9일 세계 3대 평가 기관 중 하나인 Standard & Poor's(S&P)사는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정부 재정적자 폭 축소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 하여 종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다. 개인소득세 (Income Tax)

- 내,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소득 1만 페소 이하: 5%
- 1만 초과 3만 페소 이하: 500페소 + 1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10%
- 3만 초과 7만 페소 이하: 2,500페소 + 3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15%
- 7만 초과 14만 페소 이하: 8,500페소 + 7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20%
- 14만 초과 25만 페소 이하: 22,500페소 + 14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25%
- 25만 초과 50만 페소 이하: 50,000페소 + 25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30%
- 50만 페소 초과: 125,000페소 + 50만 페소 초과액에 대해 32%

라. 법인세 (Tax on Corporations)

- 필리핀 국내법인(domestic corporation)이나 필리핀 거주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은 과세대상 소득의 32% 납부. 비 거주 외국법인(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은 35% 적용.

마. 양도세 (Transfer Taxes)

- 부동산세(Estate Tax), 증여세(Donor's Tax) 등.

바. 특별소비세 (Excise Taxes)

- 주류, 담배, 석유제품, 기타 화장품이나 향수, 요트 및 자동차에 대해 적용됨.
- 광산물도 석탄, 코크스 등은 채굴 톤당 10페소에 연간 총 생산량의 실제 시장가격에 대해 2% 과세. 금, 크롬은 2%, 구리 및 기타 금속광물은 2% 이하 등 적용.
-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15%, 35%, 50%, 100%로 차등 적용.
-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이 2004년 말 인상됨.

43. 외환관리

가. 개황

1993년 4월 13일 결정되어 신문지상에 공포된 중앙은행의 Circular No.1389로 외환의 자유화 조치로서 일부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민간인의 자유로운 외화 소지 및 자유로운 송금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수출대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환 자유화 추진.

필리핀의 외환보유고는 1995년 76억불, 1996년 116억불, 1997년 86억불, 1998년 106억불, 1999년 149억불, 2000년 129억불, 2001년 143억불, 2002년 162억불, 2003년에는 171억불, 2004년에는 162억불, 2005년에는 185억불, 2006년(3월 기준)에는 206억불에 달함. 외환보유고가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페소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 대량매입을 통해 시장개입을 확대하는 것과 국외로 유출되었던 투자자본의 재유입 등에 기인.

나. 외환 통제

필리핀으로의 투자 유입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등록을 필해야 하며 국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일반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 중앙은행, 증권 거래 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 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함.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의 철수, 투자의 회수, 현금 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 증명서 역할을 함.

외국인 투자는 투자 시점에서의 환율로 환산하여 현지 화폐로 계산되는데, 현금투자 및 현물 투자도 가능함. 현물투자의 경우 중앙은행 Circular 1318에 표기된 상품에 한함.

다. 외국자본 및 기술에 대한 규제

1) 자본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시 필요하기 때문임.

2) 대부금

외국자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면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 외국 자본 차입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중앙은행은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함. 외국자본 차입 신청서는 중앙은행이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음.

모든 사기업, 주식회사, 금융기관, 정부기관은 외국자본 차입 현황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 현지에서의 외국인 기업의 차입행위는 다음과 같이 자유화 및 단순화되어 있음.

- 서로 상이한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사전 행정 처리는 폐지됨.
- 구비서류 간소화
- 외국기업에 대한 빈번한 보고서 제출요구는 분기 혹은 반기 1회로 변경됨.

3) 기술계약

기술이전계약은 호텔 경영계약을 제외하고는 상공부의 특허, 등록상표, 기술 이전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기술이전 등기소(Technology Transfer Registry)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적 재산권에 대한 copyright licenses는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4) 예금 계좌

법인은 증권거래 위원회(SEC) 또는 무역 산업부(DTI)에 등록을 필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은 Alien Certificate Registration을 필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중앙 은행에 관련 계약이나 외국인 투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로얄티, 임대료, 수수료, 배당금, 이익금, 기타 다른 무형의 지불금 등이 거래중지 계좌로 간주됨.

5) 자본금, 배당금, 이자의 본국 송금

외국인 투자는 중앙은행 혹은 투자자가 정식으로 지정한 보관은행에 등록되지 않으면 본국 송금이 불가능함.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분할송환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음.

1992년 9월 1일부로 중앙은행은 사전승인 없이 중앙은행 투자등록증(DBRD)의 제출만으로 투자자본의 본국 송환 및 배당금, 이자의 송금이 가능해짐.

중앙은행 Circular 1353에 의해 중앙은행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던 1973년 3월 15일 이전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인된 은행을 통하여 자본금의 본국 송환이나 투자에 따른 배당금 송금이 가능해진 것임.

- 대부금과 이자
 - 외환 대부금이 금융권으로부터 구입한 외국환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외환 대부금으로부터의 수익금이 공인된 은행에 매각되어야만 함. 외국환 대부금과 관련된 지불은 중앙은행 Circular 1277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는 대부금 성질의 일부를 차지하는 계약이나 계획에 대한 지불금도 포함됨.
- 로열티와 서비스 수수료
 - 로열티 및 임대 계약은 일반적으로 자동 갱신조항이 없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 일정한 조건하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할 수도 있음), 제한적인 비즈니스 조항을 포함해서도 안 됨.
 - 계약문구의 해석은 필리핀 국내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 집 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적은 지역임.
-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면 중개업체가 자세한 리스트를 제시해주며, 각 주택을 일일이 동반하여 안내해줌.
-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월 임차료가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집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거나 해외여행 등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애로를 겪게 될 수 있는 바, 중개업자를 가운데 두고 계약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됨. 계약 시 수리 등의 문제, 퇴거 시 원상복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주 전에 모든 부분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함. (가급적이면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임차 시 보통 1년 선불로 계약하며 임차보증금은 대체로 2개월 분을 납부하는 것이 관행임. 따라서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보통 14개월 분이 소요됨.

나. 은행계좌 개설

- 달러화 및 현지화 계좌를 개설함. 가급적이면 지점이 많은 대형은행(UNIVERSAL BANK 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여권을 챙겨서 가져가도록 함. 현지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임차료 등 고액경비나 공과금, 현지직원 급여 등을 회사수표나 개인수표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어 편리하며 Crossed Check의 경우 도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됨.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인출기(ATM)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편리.

다. 전화신청

- 주택 임차 시 통상적으로는 그 집에 가설되어 있는 전화선을 사용하므로 별도 전화 번호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새로 전화를 신청하려면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 PHONE)의 경우 장시간이 걸리므로 GLOBE TELECOM등 타 LAND LINE TELEPHONE 전화를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단시간에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방법임.

라. 비품 구입

- 자신이 소유한 비품의 과다를 따져 주택 임차 시부터 FURNISHED 여부를 체크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좋음.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UNFURNISHED가 아파트(콘도미니엄으로 부름)의 경우 SEMI-FURNISHED가 일반적임.
- 가구나 비품을 살 경우 대부분 제품이 수입품이어서 매우 비싸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상관행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가 여의치 않음.